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뵙다’ 동사의 동시 통사론  
— 재귀 사동성과 피동성을 중심으로 —

2013年 2月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 전공

김 미 경



# ‘뵙다’ 동사의 동시 통사론

- 재귀 사동성과 피동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승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 전공  
김미경

김미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위원장 전재일   
(인)

부위원장 이승재   
(인)

위원 남승호   
(인)



## 국문초록

현대 한국어에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윗사람이면 ‘만나다’ 대신 ‘뵙다’ 동사를 사용한다. 이 동사는 흔히 타동사로 인식되지만, 여러 사전을 찾아 보면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철수가 어제 할아버지께 뵠었다”와 같이 타동사 이외에 피동사로 쓰이는 용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철수가 할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을 ‘철수가 할아버지의 시선을 받는 사건’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다. 이 피동사 용법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통시적으로 변화해 온 양상을 15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뵙다’ 동사는 원래 재귀 사동 구조라는 특수한 통사 구조를 띠는 사동사로 출발했으며, 현재 전해지는 피동사 용법이나 타동사 용법은 이 재귀 사동 구조가 재분석되면서 생겨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취했던 재귀 사동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피사역주가 대격 표지를 취하는 것은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이다.

내	부터-를	(나-를)	뵈다
[사역주] <sub>i-NOM</sub>	[피사역주] <sub>j-ACC</sub>	([피동작주] <sub>i-ACC</sub> ) 보-이 <sub>CAUS-DA</sub>	

‘내가 부처로 하여금 나를 보시도록 하다’

재귀 사동 구조의 핵심은 사역주와 피동작주가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이다.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 동사는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피동작주 논항이 생략된 상태로 쓰였다. 재귀 사동 구조의 문장에서 피동작주 논항이 생략되면, 아랫사람이 사역주와 피동작주의 두 역할을 한다는 단서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가 쓰인 문장은 곁보기에는 사동 구조라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뵙다’ 동사의 논항 중 아랫사람이 수행하는 의미역에서 피동작주의 측면이 부

각되면서, 재귀 사동 구조가 피동 구조로 재분석되는 변화가 15~16세기 사이에 일어났다. 주어인 아랫사람이 지녔던 사역주의 측면이 약화되면서 윗사람이 지니던 피사역주의 측면도 약화되고, 그 결과 윗사람의 의미역은 동작주로 재분석된다.

내	부터-씩	뵈다
[피동작주] <sub>i-NOM</sub>	[동작주] <sub>j-DAT</sub>	보-이 <sub>PASS</sub> -다
'내가 부처의 시선을 받다'		

이 변화의 영향으로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여격 표지를 취하는 여격 격틀 구조가 새롭게 출현한다. ‘뵙다’ 동사가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여 쓰인 예를 문헌 자료에서 확인해 보면, ‘뵙다’ 동사의 피동사 용법이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꾸준히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까지 활발히 쓰이던 ‘뵙다’ 동사의 피동사 용법은 19세기 이후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뵙다’ 동사가 타동사로 쓰이는 용법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뵙다’의 타동사 용법은 18세기까지도 사용되고 있었던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 동사가 재분석되면서 나타났다. 당시에 활발히 사용되었던 ‘뵙다’의 피동사 용법에 이끌려, 동사의 자릿값이 두 자리인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목적어가 대격 표지를 취하면서 필수 논항이 두 개인 통사 구조로서 가장 전형적인 구조는 타동 구조이다. 이에 맞춰 사역주와 피사역주의 관계에 있던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재분석되었다.

내가	부처-를	뵈다
[동작주] <sub>i-NOM</sub>	[피동작주] <sub>j-ACC</sub>	뵈-다
'내가 부처를 보다'		

새로이 생겨난 타동사 용법은 16세기 이후 피동사 용법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언중의 생활에 퍼져나갔다. 그런데 19세기 이후로 한국어가 변화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이 타동사 용법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뵙다’ 동사가 피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기에 ‘뵙다’ 동사가 피동사로 쓰이는 용법은 언중의 생활에서 완전히 쇠퇴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뵙다’ 동사를 연구한 것은 통사 구조가 통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역사 언어학에서 통사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아래, 한국어의 사동·피동 등 통사 구조와 관련이 있는 문법 범주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개별 동사를 대상으로 통사 구조가 재분석되는 과정과 원리를 탐구한 것은 드물다. 통사 구조도 문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것이 변화하는 원리를 탐구하는 일은 언어 변화를 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동사의 필수 논항이 생략된 채로 사용되는 용법이 반복되면서 세 자리 동사가 두 자리 동사로 단순화하는 재분석의 사례를 ‘뵙다’ 동사를 통해 탐구하였다.

주요어 : 통시 통사론, 통사 변화, 재귀 사동, 피동, 논항 구조, 격틀 구조

학번 : 2010-22952

# 목차

1. 서론.....	1
2. 기본적 논의.....	4
2.1 연구의 대상.....	4
2.2 선행 연구.....	14
2.3 연구 방법.....	18
3. ‘뵙다’의 문법적 구성.....	23
3.1 ‘뵙다’의 사건 구조와 형태적 구성.....	23
3.2 ‘뵙다’의 통사적 구성 .....	29
3.3 사·피동 파생과 통사 구조의 변형.....	33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36
4.1 격틀 구조 분석 방법.....	36
4.2 15세기: [NP가, NP를] ( ≫ [NP가, NP奚]).....	38
4.3 16~18세기: [NP가, NP를] ≤ [NP가, NP奚].....	41
4.4 19~20세기: [NP가, NP를] ≥ [NP가, NP奚].....	48
4.5 소결.....	53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56
5.1 ‘뵙다’ 통사 구조의 분화.....	56
5.2 ‘뵙다’ 동사와 재귀 사동 구조의 두 측면.....	57
5.3 피동 구조 ‘뵈다’의 재귀 사동 기원 .....	61
5.4 사동 구조 ‘뵈다’의 통사적 특징.....	67
5.5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와 피동 구조의 ‘뵙다’ .....	71
5.6 소결.....	74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76
6.1 ‘뵙다’ 동사의 목적어 논항 종류와 통사 구조 변화.....	76

6.2 기원~15세기: 재귀 사동 구조.....	77
6.3 16~18세기: 재귀 사동 구조, 피동 구조.....	81
6.4 19세기 이후: 타동 구조, 피동 구조.....	90
7. 결론.....	101
참고 문헌.....	105
부록: 문헌 선정 및 용례 추출 기준.....	108
Abstract.....	121

## 표 목차

[표 1] 15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38
[표 2] 16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41
[표 3] 17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43
[표 4] 18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43
[표 5] 19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48
[표 6] 20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52
[표 7] 15세기 피동사 ‘뵈다[見]’의 구문 분포.....	65
[표 8] 15세기 ‘뵈다[示]’ 동사의 피사역주 논항이 취하는 격표지의 분포.....	69
[표 9] 15세기 ‘뵙다’ 동사의 대우받는 논항과 사동사 ‘뵈다[示]’의 피사역주 논항 이 취하는 격표지 분포의 비교.....	70
[표 10] 17~18세기 사동사 ‘뵈다[示]’의 격틀 구조 분포.....	72
[표 11] 15세기 '보다' 동사의 객체 대우 패러다임.....	80
[표 12]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에서 편지를 대우하는 ‘보다’와 ‘뵙다[觀]’.....	91
[표 13] 19세기 ‘보다’ 동사의 객체 대우 패러다임.....	94



# 1. 서론

현대 한국어에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는 사건이면 ‘만나다’ 대신 특별히 ‘뵙다’ 동사를 쓴다. 다음의 (1)은 ‘뵙다’ 동사가 쓰이는 전형적인 예이다.

## (1) 현대 한국어에서 ‘뵙다’ 동사가 쓰이는 예

철수-가<sub>NOM</sub><sup>1</sup> 선생님-을<sub>ACC</sub> 뵤었다.

이 동사의 필수 논항은 두 개이고, 아랫사람인 ‘철수’가 주어, 윗사람인 ‘선생님’이 목적어가 된다. 목적어에는 대격을 표시하는 ‘-을’ 조사가 결합한다. 이것을 보고 ‘뵙다’ 동사가 타동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한국어 사전에서 ‘뵙다’ 동사가 피동사로 쓰이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 큰사전』(1992)은 ‘봄을 당하다’라는 풀이로 ‘뵙다’의 피동사 용법을<sup>2</sup> 설명하면서 다음의 (2)와 같은 예문을 든다.

## (2) ‘뵙다’ 동사가 피동사로 쓰인 예

할아버지-께<sub>DAT</sub> 뵤다.

(2)와 같은 피동사 용법은 『연세 한국어 사전』(1998), 『표준 국어 대사전』(1999),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2009) 등과 같이 20세기 후반의 말뭉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 전문 집필자가 기술한 사전에는 실려 있고

1 이 논문에서 격 정보를 분석할 때 사용한 약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NOM (Nominative, 주격), ACC (Accusative, 대격), DAT (Dative, 여격), LOC (Locative, 처격)

2 이 용법은 ‘뵙다’가 아니라 ‘뵈다’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우리말 큰사전』뿐만 아니라 여러 사전에서 ‘뵙다’와 ‘뵈다’를 따로 기술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두 형태가 같은 동사인 것으로 다룬다. 2.1절에서 연구의 대상을 확정하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말뭉치를 바탕으로 기술한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용법이 20세기 동안 언중의 생활에서 빠르게 쇠퇴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피동사 용법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서 왜 쇠퇴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기원형부터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뵙다’ 동사의 기원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 동사의 어원은 ‘보- + -이-’로 분석된다. 이 기원형의 문법 구조를 분석한 것은 김현주(2010:68~73)이 최초이다. 그는 대우 표현에 관여하는 인지적인 동기를 근거로 삼아 ‘-이’ 형태소가 사동 파생 접미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5~16세기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뵙다’의 예를 중간태적인 사역 구문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이 옳다면 ‘뵙다’ 동사는 중세 국어 시기에는 사동사로 쓰이다가 그 이후에 피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지니는 동사로 변화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변화가 일어난 시기와 과정, 원리는 전혀 연구된 것이 없다. 어떤 과정을 거쳐 통사 구조가 이렇게 변화한 것인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통사 구조가 역사 언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부각된 이래, 한국어의 사동·피동과 이들 문법 범주가 실현되는 방법의 변천 등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가 이뤄져 왔다 (권재일 1995). 그러나 개별 동사를 대상으로 통사 구조가 재분석되는 과정과 원리를 탐구한 것은 드물다. 통사 구조도 문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것이 변화하는 원리를 탐구하는 일은 언어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뵙다’ 동사를 연구하는 것은 통사 구조가 통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뵙다’ 동사가 한때 지녔던 피동사 용법이 출현하게 된 과정과 쇠퇴한 원인을 찾고, 이 동사가 현재 지니는 타동사 용법이 출현하게 된 과정을 탐구한다. 중세 국어의 ‘뵙다’ 동사가 정말로 사동사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통사 구조의 특징은 어떠했는지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 동사가 피동사 또는 타동사로 재분석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 1. 서론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 연구의 범위를 정의하고, 통사 구조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에 ‘뵙다’ 동사가 지녔던 문법적 특징을 살펴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 4장에서 ‘뵙다’ 동사가 취하는 격틀 구조와 목적어의 종류를 시기별로 문헌 자료에서 추출하여 통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단서로서 제시한다. 5장에서는 ‘뵙다’ 동사가 재귀 사동 구조의 사동사 ‘뵈다’에서 출발했고, 피동사 ‘뵈다’의 용법은 이 구조가 재분석되면서 생겨났음을 재귀 사동 구조와 피동 구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6장에서는 재귀 사동 구조로 출발한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그 이후에 겪은 변화를 논의하면서, 특히 ‘뵙다’ 동사에 타동사로서의 용법이 생겨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7장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부록에서는 동시 통사론 연구를 위해 문헌 자료를 선정하고 용례를 추출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이 논문에서 사용한 기준을 자세히 서술한다.

## 2. 기본적 논의

### 2.1 연구의 대상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전반기까지 사용되었던 ‘뵙다’ 동사의 피동사 용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쇠퇴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통시적으로 겪은 변화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뵙다’ 동사를 이루는 동사 형태가 몇 개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 구조가 무엇이며 그 하위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측면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뵙다’ 동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양상을 관찰하면, 두 종류의 어간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1)과 같다.

#### (1) ‘뵙다’ 동사와 관련이 있는 두 어간 형태

- 가. 철수가 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뵈었다.
- 나. 철수가 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뵙고 왔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등 여러 사전에서 이 두 어간이 각각 ‘뵈다’와 ‘뵙다’라는 서로 다른 동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서술한다.<sup>1</sup>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도 ‘뵙다’ 동사와 ‘뵈다’ 동사를 따로 설정하고 각각의 통사 구조를 연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두 형태가 사용된 용례를 15세기부터 비교한 결과, ‘뵙다’와 ‘뵈다’를 서로 다른 동사로 취급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었다.

우선 ‘뵙다’ 동사의 ‘뵙-’ 어간은 ‘뵈다’ 동사에 대우법 어미 ‘-읍-’이 결합한 ‘뵈

---

1 『동아 새국어 사전』(1989, 2003), 『우리말 큰사전』(1992), 『국어 대사전』(1994), 『연세 한국어 사전』(1998), 『표준국어대사전』(1999), 『우리말 활용 사전』(2007),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2009)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 2. 기본적 논의

옵-’ 어간이 줄어들어 생겨난 형태이다. 20세기 이후 만들어진 사전 중에서도 ‘뵙다’를 ‘뵈옵다’의 준말로 설명하는 경우가<sup>2</sup> 있는 것을 보면, ‘뵈옵-’이 ‘뵙-’으로 줄어드는 형태 변화는 20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문헌 자료는 15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 사이의 자료이다. 이 범위 안에서 ‘뵙-’ 어간은 ‘뵈옵-’ 어간의 준말로서, ‘뵈다’ 동사에 대우법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일 뿐이다. 게다가 이 논문에서 검토한 문헌 자료 안에서는 ‘뵈다’ 어간에 대우 어미가 결합하거나 결합하지 않는 것이 통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통사 구조를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이 논문에서는 ‘뵙다’와 ‘뵈다’ 형태를 나누어서 다룰 실익이 없다. ‘뵈다’ 동사와, 이 동사에 대우법 어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여러 활용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 (2가~다)의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는 동사 형태라면 모두 ‘뵙다’ 동사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2) 이 논문에서 다루는 ‘뵙다’ 동사의 정의

- 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가리킬 것
- 나. 어간에 ‘뵈-’ 형태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다. ‘만나뵙다’ 등의 합성 동사가 아닐 것

다음의 (3)은 이 논문에서 ‘뵙다’ 동사로 분류한 여러 가지 동사 형태를 모아서 제시한 것이다. 이 형태들은 모두 ‘뵈다’ 동사에 대우법 어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활용형이다. 결합한 어미의 형태가 다양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대우법 어미 ‘-습-’이 통시적으로 음운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

2 『조선말 사전』(1989), 『조선말 대사전』(1992, 2007)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수정증보 조선어 사전』(1942)과 『금성판 국어대사전』(1993)은 ‘뵙다’를 등재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뵙다’를 별도의 어휘로 보지 않는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 (3) 이 논문에서 ‘뵙다’ 동사로 분류한 동사 형태의 예

‘뵈-’, ‘뵙-’, ‘뵈옵-’, ‘뵈읍-’, ‘뵈읍-’, ‘뵈습-’

(3)에서 제시한 ‘뵙다’ 동사의 형태 중에서 ‘뵈-’ 단독형은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여러 사전에서 ‘뵈-’ 어간이 단독으로 ‘뵙-’ 어간처럼 객체 대우의 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러했을까? ‘뵙-’ 어간과 그 이전 형태들은 대우법 어미가 결합한 상태이므로 대우의 의미를 나타낼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대우법 어미에만 주목한다면, 혹시 ‘뵈-’ 형태가 특정한 음운·형태적 조건 아래서 어미가 생략된 결과물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15세기부터 ‘뵈-’ 어간이 단독으로 쓰여서 대우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뵈-’ 형태와 다른 어간 형태를 구분하는 음운·형태적 조건은 15~20세기 사이의 문헌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sup>3</sup>

(4)는 15세기 자료에서 ‘뵈-’ 어간이 단독으로 쓰여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예이다.

### (4) 15세기 ‘뵈다’와 그 활용형 ‘뵈습다’의 병존

#### 가. 뵈다

...이 須菩提<sup>노</sup> 當來世예 三百萬億 那由他 佛을 뵈야 供養 恭敬<sup>하</sup>며 尊重  
讚歎<sup>하</sup>야 上<sup>네</sup> 梵行<sup>을</sup> 닷가… (법화경언해 3:67a, 15세기)

3 현대 한국어 화자들은 대개 ‘뵈-’ 어간은 모음 어미 앞에서, ‘뵙-’ 어간은 자음 어미 앞에서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 ‘뵈고’보다는 ‘뵙고’, ‘뵙었-’보다는 ‘뵈었-’을 선호하는 식이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이 ‘뵈다’와 ‘뵙다’를 서로 다른 동사로 정의하면서 ‘뵈다’는 자음어미와 모음 어미 둘 다와 결합하고 ‘뵙다’는 자음어미에만 결합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이 두 형태가 음운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지극히 현대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나. 뵈쉽다

...諸弟子】 부텨 뵈수옴 하며 져굼 곤디 아니호문 각各 그 願緣을 쪽고…  
 (법화경언해 3:57b, 15세기)

(4가)는 ‘이 수보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 삼백만억 나유타 부처를 뵙고’로 해석된다. ‘뵈-’ 형태가 쓰여서 불제자 중의 한 명인 수보리가 내세에 수없이 많은 부처를 만나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4나)는 ‘여러 제자가 (출가하는 과정에서) 부처를 뵙는 일이 많고 적음이 (서로) 같지 아니함은 각각 그 원래 인연을 따르고’로 해석된다. ‘뵈쉽-’ 형태가 쓰여서 제자들이 부처를 만나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두 형태 모두 제자가 주체이고 부처가 객체인 문장에서 ‘만나다’와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15세기에 ‘뵈-’ 어간만으로도 ‘뵙-’ 어간과 마찬가지로 대우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다음으로 통사 구조를 보기로 하자. 통사 구조를 간략히 정의하면, 문장에서 단어들이 서로 맺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동사와 그 필수 논항들이 의미적으로 맺는 관계와 통사적으로 맺는 관계라는 두 측면을 지닌다. 통사 구조가 지니는 두 측면을 정의하면 다음의 (5)와 같다.

## (5) 통사 구조의 두 측면

가. 논항 구조: 동사와 그 필수 논항들이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 안에서 의미적으로 맺는 관계

나. 문법 관계: 동사와 그 필수 논항들이 문장 안에서 통사적으로 맺는 관계

동사와 논항이 맺는 의미적 관계가 논항들의 통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4 단, 이 자료가 15세기의 ‘뵈쉽다’와 ‘뵈다’가 목적어를 대우하는 정도가 동일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뵈쉽다’ 형태와 ‘뵈다’ 형태 사이에 대우법 측면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넘긴다.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은 그간의 의미·통사 연구를 통해 널리 밝혀져 있다(남승호 2007:5~14). 특히 동사의 필수 논항이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 역할을 대개 의미역이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을 이용하면 논항 구조를 의미역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의미역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미역을 의미적 특성의 연속체로 보는 견해와 서로 구분되는 역할의 목록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남승호 2007:14~22, Primus 2009).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고, 다만 ‘뵙다’와 이것에 관련된 다른 동사들의 사건 구조에서 표상되는 의미역만을 개별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특정 동사가 취하는 필수 논항의 의미역이 그 동사의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법 관계는 동사의 논항이 문장의 구조 안에서 맡는 역할을 말한다. 한국어의 경우, 주어와 목적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사의 논항이 지닐 수 있는 문법 관계의 종류는 언어에 따라 달라지며, 가끔 동사 부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문법 관계는 논항 구조와 아주 무관하지는 않으나, 논항 구조에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통사 구조의 또 다른 독자적인 측면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의 필수 논항이 지니는 문법 관계는 의미역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여러 언어에서 동작주 논항은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의미역이 문법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향일 뿐이며, 의미역을 보고 문법 관계를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영어의 피동태(passive voice) 범주처럼 논항의 문법 관계만을 바꾸는 문법 범주까지 고려하면, 문법 관계를 통사 구조의 독자적인 측면으로 분석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sup>5</sup>

---

5 문법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 문법이나 소쉬르 이후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주어와 목적어 등을 문법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이를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생성 문법의 경우, 문법 관계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통

## 2. 기본적 논의

그러므로 동사의 통사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문법 관계와 함께 논항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뵙다’ 동사의 필수 논항들이 지니는 의미역을 분석해야 하며, 의미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뵙다’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면 화자의 직관을 이용해서 이 세부 구조들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때에는 화자의 직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적인 단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단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논항이 취하는 격표지로서, 이는 통사 구조의 세 번째 측면인 격틀 구조를 구성한다.

격틀 구조는 공시 통사론에서는 논항 구조나 문법 관계와 달리 그 자체로서 주목을 받는 일이 없지만, 통시 통사론에서는 이 구조를 통사 구조의 세 번째 측면으로서 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헌 자료에서 추출한 용례의 통사 구조를 분석할 때 격틀 구조가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격표지가 어떻게 통사 구조를 분석하는 단서가 되는지, 예를 통해 보기로 하자. 다음의 (6)은 격표지를 통해 의미역을 추정하는 예이다.

(6) 격표지를 통해서 의미역이 드러나는 예(남승호 2007:49)

- 가. 진이가 벽을 까만 페인트로 칠했다.
- 나. 진이가 까만 페인트를 벽에 칠했다.

(6가)와 (6나) 문장이 가리키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칠하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벽에서 겸게 칠해진 부분이 늘어난다. 그런데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벽이 영향 받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6가)에서 벽은 모든 부분이 겸게 칠해져 있다는 것이

---

사 구조에서 동사의 논항이 처음으로 생성되는 위치를 정의한다. 언어 유형론에서는 개별 언어에서 동사의 논항들이 통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유형화하여 문법 관계를 정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 유형론에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문법 관계를 정의했다. ‘뵙다’ 동사의 문법 관계는 3장에서 상술한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가장 전형적인 해석이다. 반면 (6나)에는 벽에 아직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경우에, (6가)의 벽과 (6나)의 벽은 ‘칠하다’ 사건에서 맡은 역할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6가)처럼 사건의 종결과 더불어 완전히 영향을 받는 참가자는 흔히 피동작주 (patien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동작주 논항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대격 표지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반면 (6나)처럼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벽은, 페인트가 칠해지는 착점(location)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착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논항은 흔히 처격 표지를 지니고 실현된다. 즉, 범언어적으로 의미역과 격표지가 조합되는 경향을 근거로 삼아 의미역을 추정하는 단서로 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격표지가 곧바로 의미역을 알아내는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이 변형되어 문법 관계가 변화하면 격표지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7)의 예문을 보자.

### (7) 문법 관계가 격표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모기가 발바닥을 물었다.

나. 발바닥이 모기에게 물렸다.

(7가)의 ‘물다’ 사건과 (7나)의 ‘물리다’ 사건에서 논항 구조는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동작주 ‘모기’와 피동작주 ‘발바닥’으로 논항 구조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다’ 동사가 ‘물리다’라는 피동사로 파생되면서 사건을 인식하는 관점이 바뀌었다. 이 관점의 변화는 (7가)에서는 목적어였던 ‘발바닥’이 (7나)에서는 주어가 되는 문법 관계의 변화로 드러난다. (7가)의 문장이 (7나)의 문장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발바닥’ 논항은 의미역에는 변화가 없이 문법 관계만 변화했다. 그러나 문법 관계가 변화하면서 이 논항에 결합하는 격표지가 대격에서 주격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 2. 기본적 논의

즉, 같은 사건에서 같은 의미역을 수행하는 논항이라도 문법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격표지를 취할 수 있다. 공시 문법을 연구할 때에는 화자의 직관을 근거로 삼아 문법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통시적인 연구를 할 때에는 문장이 변형되었는지 여부를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법 관계의 변화가 격표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정리하면, 동사의 필수 논항에 결합하는 격표지는 논항의 의미역과 문법 관계 둘 모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격표지가 이들 정보에 영향을 받는 방식을 분석하면, 역으로 격표지를 통해 논항의 의미역이나 문법 관계를 추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격표지가 통사 구조를 드러내는 단서가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권재일(2001)에서는 동사의 필수 논항이 어떤 격표지를 취하는가 하는 정보를 격틀 구조라는 개념을 이용해 표현하고, 통사 구조에 일어난 통시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격틀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기술하자고 했다. 이는 통시적 연구의 입장에서 격표지와 통사 구조의 관계에 주목한 선구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권재일(2001)에서는 격틀 구조를 ‘명사구로 구성되는 통사적 논항 구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의미역과 문법 관계를 이용해 격틀 구조를 정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격틀 구조를 통사 구조의 독자적인 측면이기보다는 논항 구조와 문법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으로 이해하게 된다. 실제로 공시 문법을 다루는 통사론 연구에서는 논항의 의미역이나 문법 관계를 드러내는 형태적인 단서로서 격표지를 이용할 뿐이고, 격표지 자체에 주목하는 일은 드물다. 언어 유형론에서 격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격이라는 문법 범주를 연구하는 것이지 격표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시적인 통사론 연구에서 격틀 구조가 독자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격틀 구조를 형태적으로만 정의하여, ‘동사의 필수 논항에 각각 결합하는 격표지의 조합’으로 보고자 한다. 통사 구조의 독자적인 측면으

## ‘펩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로 논항 구조나 문법 관계와 분리되는 격틀 구조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격틀 구조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정의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공시 통사론에는 없고 통시 통사론에는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통시 통사론은 통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단서가 공시 통사론만큼 다양하지 않다. 화자의 직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말뭉치를 이용해 양적인 연구를 하려고 해도 남아 있는 문헌 자료의 양은 현대어 자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통사 구조를 연구할 때는, 동사의 논항이 취하는 격표지가 가장 직접적이고 유용한 단서가 된다. 따라서 동사의 논항이 어떤 격표지를 취했는지 기술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 때 격표지만 보고서 논항의 의미역과 문법 관계를 바로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격표지가 무엇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통시 통사론 연구에서 격틀 구조를 정의하면서 논항 구조나 문법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로, 변화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격틀 구조가 실제로 독자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논항 구조나 문법 관계의 재분석이 일어나면 그 영향을 받아 격틀 구조가 변화할 수 있지만, 즉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8)은 그러한 예이다.

### (8) 영어 *like* 동사의 문법 관계 변화와 격틀 구조 변화

가. ac gode ne licode na heora geleafleast,  
but God<sub>DAT</sub> not liked not their faithlessness<sub>NOM</sub>,  
ne heora ceorung, ac asende him to fyr  
nor their grumbling<sub>NOM</sub> but sent them to fire

(Allen 1995:109, 5~11세기)

## 2. 기본적 논의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 불만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불을 보내셨다’

나. ...she    liked    hym    the bet

...she<sub>NOM</sub> liked    him<sub>ACC</sub>    the better                      (Allen 1995:114, 14세기)

‘그녀는 그가 더 마음에 들었다’

현대 영어 *like* 동사의 논항 구조는 경험주와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I like him”과 같은 문장에서 보이듯이, 이 동사에서 경험주 논항은 주격 표지를, 대상 논항은 대격 표지를 취한다. 그러나 (8가)와 (8나)를 비교해 보면 격틀 구조에 통시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like* 동사에 대응하는 고대 영어 *lician*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경험주 논항은 여격 표지를, 대상 논항은 대격 표지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항 구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격틀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다.

Allen(1995)는 고대 영어에서 *lician* 동사의 문법 관계가 재분석된 것이 이 변화가 일어난 원인이라고 보았다. 원래 *lician* 동사에서 여격 경험주는 목적어였다. 그런데 이것이 주어로 인식되는 변화가 고대 영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Allen(1995)에서는 (8가)에서 사용된 여격 경험주 *gode*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하면서, 그 근거로 어순과 접속문의 주어 생략(Coordinated Subject Deletion)이라는 두 가지 통사적 테스트를 제시하였다.<sup>6</sup> 그런데 이렇게 고대 영어 시기부터 이미 주어로 쓰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like* 동사의 경험주가 주격 표지를 지니는 용례는 14세기가 되어서야 관찰되기 시작한다(Allen 1995:251).

---

6 (6가)에서 *lician* 동사의 앞에 위치한 *gode*는 *licode*의 경험주이면서 *asende*의 동작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와 공지시를 갖는 것은 고대 영어 문법에서 주어가 주로 지니던 특징이다. 그런데 *lician* 동사의 여격 경험주가 동사 뒤에 위치할 때에는 그러한 경우가 관찰되지 않았다(Allen 1995:104~116). 즉, *lician* 동사의 여격 경험주는 동사의 앞에 위치했을 때에만 주어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문법 관계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이 예는 통시적 변화의 측면에서는 격틀 구조에도 독자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통사 구조의 어느 한 측면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영향을 받아 논항의 격표지가 바뀔 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격틀 구조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를 연구할 때에는, 격틀 구조가 독자적으로 통사 구조의 세 번째 측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변화를 분석하기에 더 편리하다. 따라서 동사의 통사 구조가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다음의 (9)에서 정리한 세 구조를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9) 통사 구조의 세 측면

- 가. 논항 구조: 동사의 필수 논항들이 지니는 의미역 조합
- 나. 문법 관계: 동사의 필수 논항들이 동사에 대해 통사적으로 맺는 관계
- 다. 격틀 구조: 동사의 필수 논항들이 지니는 격표지 조합

여기서 (9다)의 격틀 구조는 (9가~나)를 드러내는 단서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9가)와 (9나)를 구분하여 드러낼 수 없다. 따라서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격틀 구조 이외의 단서가 필요하다. 동사의 형태, 동사의 논항으로 실현된 명사들의 종류 등이 그러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중 ‘뵙다’ 동사의 형태에 대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선행 연구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 2.2 선행 연구

‘뵙다’ 동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뵈-’ 어간과 ‘뵙-’ 어간의 형태적 특성 및 객체 대우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유필재(2002)는 ‘뵙다’ 동사의 공시적인 형태·음운론을 기술하였는데, ‘뵈다’와 ‘뵙다’를 별도의 어휘로 보지 않고 단일 어

## 2. 기본적 논의

휘의 어간 이형태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형태·음운변화에 관한 통시적인 고찰을 더하여 ‘뵙다’ 형태가 ‘뵈습다’에서 기원함도 보였다(유필재 2002:55~59).

이유기(2005)는 현대 한국어의 불규칙적 현상 중에서 통시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고찰하면서, ‘뵈-’와 ‘뵙-’ 어간의 공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유기(2005:219)의 각주에서 흥미롭게도 ‘뵙다’ 동사의 어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10가)의 예처럼 대우받는 객체가 부사어로 나타났던 사실을 들어 이 동사의 원래 의미가 ‘보여 드리다’라고 지적한다.

(10) 이유기(2005)에서 제시한 ‘보여 드리다’ 기원의 근거

가. [須達이] ... 世尊씩 뵈수방 (석보상절 6:45a)<sup>7</sup>

나. [내가] ... 그를 올이습고 皇帝를 뵈수오니 빠데 ㅎ마 風塵을 물기고져 ㅎ  
니라...<sup>8</sup> (두시언해초간본 22:26)

(10가)는 ‘수달이 세존께 뵙고’로 해석된다. 세존, 즉 부처에 여겨 표지 ‘-씩’가 결합하여 ‘뵙다’ 동사가 쓰인 경우이다. 여겨 표지는 한국어 문법에서 부사격으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세존씩’은 부사어라고 할 수 있다. (10나)는 '(내가) 글을 올리고 황제를 뵙오니'로 해석된다. ‘뵙다’ 동사의 목적어인 ‘황제’에 대격 표지 ‘-를’이 결합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부사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10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유기(2005)는 시대를 통틀어 ‘-를’ 표지가 부사어로 보이는 성분에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부사어에 ‘-를’ 표지가 결합하는 것은 대개 주제화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이광호 1972), 자료를 보면 대우받는 논항에 ‘-를’이 결합하더라도 딱히 주제화가 일어났다는 인상을 받기 어렵다.

7 문헌에서 나타나는 ‘뵙다’ 동사의 용례는 주어가 생략되거나 아주 멀리 있는 경우가 많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꺽쇠 괄호를 이용해 생략된 논항을 보충하여 밝혔다.

8 원문은 두보가 쓴 《別蔡十四著作》이다. 예문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문은 “…獻書謁皇帝，志已清風塵…”이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이선영(2010)은 15세기 국어의 어휘적 대우를 다루면서 15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적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다음의 (11)과 같은 예를 들어 ‘뵙다’ 동사가 대격<sup>9</sup>을 대우하거나 또는 여격을 대우하는 구문으로 쓰였다고 분석한다(이선영 2010:112~114).

(11) 이선영(2010)에서 제시한 대격·여격 대우의 예

- 가. 女 닐오디 이러트시 헤야 王을 뵈수오면… (내훈 2하:70b)  
나. (須達이) … 世尊씩 봐수함… (석보상절 6:45a)

(11가)는 ‘여인이 말하기를 (옷과 얼굴을) 이렇게 하여 왕을 뵈면’이라고 해석된다. 대우받는 목적어인 ‘왕’이 대격 표지를 취하고 있다. (11나)는 위에서 본 (10가)와 같다. 이선영(2010)은 ‘뵙다’ 동사의 목적어에 결합하는 격표지의 종류를 지적하였으나, (11가~나)와 같은 문장의 통사 구조를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것이 현대 한국어에서 ‘선생님을 뵙다’와 ‘선생님께 뵙다’가 둘 다 쓰일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현대 한국어와 똑같은 통사 구조를 설정한 듯한 인상을 준다.

김현주(2010)은 국어의 대우법 어미들이 통시적으로 겪은 형태적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뵙다’ 동사와 관련해 대우법 어미 ‘-습-’에서 객체를 대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변화와, ‘뵈옵다’ 형태가 ‘뵈다’ 동사의 패러다임에서 분리되는 변화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뵙다’ 동사의 어원을 논의한 부분이 흥미롭다. 그는 이 동사가 ‘보다’ 동사에 ‘-이-’ 접사가 결합한 파생 동사 ‘뵈다’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생을 통해 표현되는 행위의 간접성이 곧 공손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합한 접사인 ‘-이-’의 기능은 사동 파생인 것으로 보았다. ‘뵙다’ 동사의

---

9 이선영(2010)에서는 목적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타동사의 피동작주 논항이 ‘-을/를’ 표지를 취할 때 이 격의 이름을 ‘대격’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 2. 기본적 논의

기원이 되는 ‘뵈다’는 재귀적인<sup>10</sup> 용법의 사역 구문으로서, 피사역주로 하여금 사역주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게끔 하는 구도를 나타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김현주 2010:68~73).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동의할 만하다.

다만 김현주(2010)은 형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분석인 까닭에,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관련된 기술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15~16세기의 자료를 한데 묶어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씩’를 격표지로 취하는 용례를 나열한 다음, 이 용례를 사동 파생의 증거로 제시하는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뵙다’ 동사의 목적어에 여격 표지 ‘-씩’가 결합하는 형태는 특히 16세기 이후에 널리 쓰였다. 이 ‘-씩’ 표지는 후대에 ‘-께’ 형태로 발전한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의 ‘뵙다’ 동사는 목적어에 ‘-께’ 표지가 결합할 경우 피동 구조로 분석된다.<sup>11</sup> 강명순(2001, 2007)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한국어의 사·피동 동형 파생 동사는 15세기에서 후대로 갈수록 종류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동일한 형태이더라도 한국어 화자들은 이들의 통사 구조에 혼동을 느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씩’ 표지를 취하는 문장이 15~16세기에 사동 구조로 인식되었다면, ‘뵙다’가 사동사로 인식되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후에 피동사로 인식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

10 김현주(2010)에서는 ‘중간태(middle voic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범언 어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면 논의가 혼란스러워질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Shibatani(2004)가 중간태를 설명한 것을 보면,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에서 전통적으로 ‘중간태’로 불렸던 다양한 사례의 집합에 가깝다. 이 논문에서는 ‘재귀’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여 사역주 자신이 피동작주가 되는 관계만을 한정하여 지칭하였다.

11 3.2절에서 ‘-께 뵙다’ 형의 통사 구조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 2.3 연구 방법

이 논문에서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드러내는 단서로서, 시기별로 ‘뵙다’ 동사가 취한 격틀 구조와 목적어 논항의 종류에 특히 주목했다. 2.1절에서 보았듯이, 격틀 구조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구성하는 문법 관계와 논항 구조를 추정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격틀 구조는 의미역과 문법 관계 양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뵙다’ 동사가 예전에 지녔던 통사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격틀 구조 이외에도 다른 단서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뵙다’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로 나타나는 명사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목적어로 실현되는 명사들의 종류를 조사하여, 이 논항의 의미역을 추정하는 단서로 활용하였다.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실현되는 명사의 종류가 의미역을 추정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것은, ‘뵙다’ 동사가 기원적으로 ‘보다’ 동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이유기 2005, 김현주 2010). 15세기 자료에서 ‘보다’ 동사가 쓰인 예를 보면, 목적어로 실현된 명사의 종류가 인물 등의 유정물부터 사물 등의 무정물까지 다양하다. 한편 같은 시기의 자료에서 ‘뵙다’ 동사의 용례를 보면, 목적어로 실현된 명사는 오로지 인물 명사뿐이다. 인물 명사만이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양상은 15~17세기까지 유지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문법에서 이 목적어의 의미역이 인물인 참가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동사에서 ‘뵙다’ 동사가 파생되는 과정에서 목적어의 의미역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파생은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19세기 이후, ‘글월’과 같은 비인물 명사가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실현되는 용례가 여러 자료에서 관찰된다. 이것은 이 동사의 목적어가 지니는 의미역이 무정물도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와 목적어 논항의 종류가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15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문헌 자료에서 ‘뵙다’ 동사의 용례를 추출하

## 2. 기본적 논의

였다. 용례가 적거나 아예 관찰되지 않는 문헌이 많기 때문에, 대량의 문헌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역사 문헌 자료를 입력한 말뭉치를 주된 자료로 삼았다.

다만 이 자료는 통사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말뭉치를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번역문처럼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비전형적인 구조의 문장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말뭉치를 구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결과물(2010.10 수정)』의 역사말뭉치를 중심으로 ‘홍윤표의 국어 연구’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원문 입력 자료를 더하여 기초 자료를 구성했다. 다음으로, 이 기초 자료를 Allen(1995)에서 통사 변화 연구를 위해 제시한 문헌 선정 기준에 따라 정렬했다. 이 선정 기준을 요약하면, 외국어의 영향이 적고, 작성 시기가 분명하고, 중복되지 않은 자료 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력되지 않은 문헌 자료 중에서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1~10권)에 수록된 한글 간찰을 추가 자료로 삼았다. 문헌을 선정할 때 사용한 기준과 검색에 이용한 입력 자료의 목록은 부록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역사 말뭉치 및 한글 간찰 자료를 대상으로, ‘뵙다’ 동사와 그에 관련된 다른 동사들의 용례를 추출하였다. 이 때 격사를 구조와 목적어 명사의 종류에 특히 주의하였다. 다음의 (12)는 용례를 추출하여 검토한 동사의 목록이다.

### (12) 문헌 자료에서 용례를 추출한 동사의 목록과 그 정의

- 가. ‘뵙다’ : 주어가 윗사람을 대하여 만나보는 사건을 가리키면서, 형태가 ‘뵈다’와 ‘뵈웁다’ 또는 그 후계형 ‘뵈옵다’인 경우
- 나. ‘뵙다[觀]’ : 주어가 일방적인 시각적 인지의 주체인 사건을 가리키면서, 형태가 ‘뵈다’와 ‘뵈웁다’ 또는 그 후계형 ‘뵈옵다’인 경우
- 다. ‘뵈다[示]’ : 주어가 다른 참가자로 하여금 객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도록 영향을 가하는 사건을 가리키면서, 형태가 ‘뵈다’인 경우(사동사 ‘뵈다’)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 라. ‘뵈다[見]’ : 주어가 시각적 인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건을 가리키면서 형태가 ‘뵈다’인 경우(피동사 ‘뵈다’)
- 마. ‘보습다[會]’: 주어가 윗사람을 만나는 사건을 가리키면서 형태가 ‘보습다’ 또는 그 후계형 ‘보옵다’인 경우
- 바. ‘보습다’[觀]: 주어가 일방적인 시각적 인지의 주체인 사건을 가리키면서, 형태가 ‘보습다’ 또는 그 후계형 ‘보옵다’인 경우

(12가~나)는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뵙다’ 동사이다. ‘뵙다’의 목적어로 인물 명사가 오면 ‘뵙다’, 비인물 명사가 오면 ‘뵙다[觀]’로 분류했다. (12다~라)의 ‘뵈다’는 ‘보다’ 동사에 사·피동 파생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형태이다. ‘보다’ 동사로부터 ‘뵙다’ 동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5장에서 분석할 때 비교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12마~바)의 ‘보습다’는 ‘보다’ 동사에 객체 대우 어미 ‘-습-’이 결합한 형태이다. ‘보습다’는 16세기 이후 대우법 어미 ‘-습-’의 객체 대우 기능이 소멸하면서 청자를 대우하는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객체를 대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용례만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보습다’ 용례에서 인물 명사가 목적어로 나타나고 맥락상 ‘만나다’ 동사로 대치될 수 있으면 ‘보습다[會]’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보습다[觀]’로 분류했다. 이 ‘보습다’는 6장에서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 변화를 분석할 때 비교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여러 동사의 용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13)에서 제시한 두 정보가 ‘뵙다’ 동사에 일어난 통사 구조의 변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 (13) ‘뵙다’ 동사에 일어난 통사 구조 변화의 단서

- 가. ‘뵙다’가 대우하는 객체 논항의 격표지: 대격 대 여격(예: ‘-를’ 대 ‘-씩’)
- 나. ‘뵙다’가 대우하는 객체 논항의 유정성: 인물 대 비인물(예: 사람 대 편지)

이 단서로 추정할 수 있는 통사 구조의 변화를 예문을 통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돋기 위해 예문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함께 적었다.

(14) ‘뵙다’ 동사에 일어난 통사 구조의 변화를 드러내는 단서의 예

가. [내가] … 그를 올이습고 皇帝를 뵈수오니 빠데 旱마 風塵을 물기고져 旱  
나라 (두시언해초간본 22:26)

‘내가 … 글을 올리고 황제를 뵈오니 뜻에 바라건대 풍진을 맑게 하고자  
한 것이다’

가’. 太子] 님금씩 뵐수와 솔오디… (번역소학 9:45, 16세기)

‘태자가 임금께 뵙고 말씀드리되…’

나. 천만의 나으리겨오셔 갓가이 오시니 반가운 마음은 오늘이라도 [제가]  
뵈옵고 십수을 츄…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 111, 19세기)

‘뜻밖에 나으리께서 가까이 오시니 반가운 마음은 오늘이라도 (제가) 가  
뵙고 싶을 차…’

나’. [제가] 하셔 박주와 황송 둥 뵐오니… (광산김씨 가문 한글간찰 141, 19  
세기)

‘(제가) 어른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받고 황송한 가운데 (그 편지를) 뵐오  
니…’

(14가)에서 대우를 받은 ‘皇帝’ 논항은 대격 표지를 취하고 있다. 15세기 ‘뵙다’의 용례는 대우받는 논항이 대격 표지를 취하는 격틀 구조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14가)에서는 대우를 받은 목적어에 여격 표지 ‘-씩’가 결합하였다. 이런 용법은 15세기에 거의 관찰되지 않다가, 16세기부터 점점 늘어난다. 즉,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뵙다’ 동사의 목적어 논항이 지니는 의미역 또는 문법 관계에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4나)에서 대우를 받은 ‘나으리’는 인물 명사이다. ‘뵙다’의 목적어는 15~18세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기까지 거의 인물 명사로 한정된다. 그런데 ‘편지’와 같은 사물이 ‘뵙다’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예가 19세기부터 새로이 관찰되기 시작한다. (14나)가 그 예로서, 여기서 대우를 받은 ‘하셔(下書)’는 어른이 보낸 편지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목적어의 의미역이 무정물도 수행할 수 있는 종류로 변화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17~18세기 한글 간찰에서 편지와 같은 무정물은 모두 ‘보옵다[觀]’의 객체로만 나타난다. 이는 19세기 이전의 화자들이 무정물은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고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 3. ‘뵙다’의 문법적 구성

#### 3.1 ‘뵙다’의 사건 구조와 형태적 구성

‘뵙다’ 동사가 ‘보다’ 동사에 ‘-이-’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라는 인식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뵙다’의 어원으로 ‘보- + -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뵙다’가 ‘보다’에서 파생된 동사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어원적 파생 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뵙다’와 ‘보다’의 관계를 다룬 것은 이유기(2005)와 김현주(2010)밖에 없다. 게다가 이유기(2005:219)의 경우, ‘뵙다’와 ‘보다’ 동사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 파생 관계를 논증한 것은 아니다.

김현주(2010)은 논거를 들어 분석한 유일한 사례이므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현주(2010)에서는 ‘뵙다’ 동사의 기원은 ‘보다’ 동사에 ‘-이-’ 접사가 결합하여 생겨난 파생 동사 ‘뵈다’이며, ‘-이-’ 접사의 기능은 사·피동사를 파생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하였다.

(1) ‘뵙다’ 동사가 ‘보다’ 동사에서 기원했음에 대한 논거(김현주 2010:69)

- 가. ‘뵈다[謁]’는 ‘만나다’를 존대하는 동사이다.
- 나. ‘보다’는 ‘만나다’를 의미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뵈다[謁]’는 ‘보이-’가 줄어든 것이 틀림없다.
- 라. ‘-이-’는 사동접사나 피동접사일 것이다.
- 마. 사동이나 피동은 주체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바. 행위의 간접적 표현은 공손성으로 이어진다(Escandell-Vidal 1996).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사. 따라서 ‘뵈다[謁]’는 ‘보다’와 사·피동 접사 ‘-이-’의 결합을 통해 객체 존대를 표현하게 된 파생 동사이다.

김현주(2010)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1다)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보다’ 동사에서 사·피동 파생을 통해 만들어진 ‘뵈다’ 동사와, ‘뵈다[謁]’ 동사의 어간이 서로 형태가 같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1다~라)에 동의하면서, 예문을 통해 ‘뵙다’ 동사의 사건 구조를 분석하여 (1가~나)의 주장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뵙다’ 동사가 ‘보다’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뵙다’ 동사가 ‘만나다’를 대우하는 객체 대우 어휘라는 점은 여러 사전의 기술에서 이미 확고하다. 이선영(2005:112)처럼 ‘보다’의 대우어로 기술하는 경우에도, ‘만나다’를 의미하는 ‘보다’의 대우어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라는 풀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뵙다’ 동사는 ‘보다’에서 파생된 동사라고 했는데,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보다[觀]<sup>2</sup>’ 동사의 대우어로는 쓰이지 않는 것일까? 사전에서 ‘뵙다’ 동사를 설명하는

1 ‘보다’가 ‘만나다’를 의미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모든 언어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어의 경우, ‘보다’를 의미하는 ‘見る miru’ 동사는 언제나 주체가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사건만을 가리켜 사용된다. ‘만나다’ 사건을 의미할 때에는 언제나 ‘会う au’ 동사가 사용된다. 이 두 동사는 격틀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会う au’ 동사의 목적어가 여격 표지 ‘に ni’를 취하는 데 비해 ‘見る miru’ 동사의 목적어는 대격 표지 ‘を wo’를 취한다. 이는 일본어에서 두 동사의 목적어로 실현된 논항이 논항 구조에서 지니는 의미역 역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어에서 ‘만나다’의 객체 대우 표현으로 쓰이는 ‘お目に掛かかる o-me-ni-kakaru’의 경우, 글자 그대로 옮기면 ‘눈에 띠다’가 되므로 ‘만나다’ 사건에 관여하는 시각적 인지가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보다[觀]’은 주체가 일방적으로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보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 3. ‘뵙다’의 문법적 구성

내용이나, ‘뵙다’ 동사를 논의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뵙다’ 동사는 오직 ‘만나다’의 대우어로만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료를 찾아보면, 다음의 (2)처럼 ‘뵙다’ 동사가 ‘보다[觀]’ 동사를 대우하여 쓰인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 (2) ‘뵙다’가 ‘보다[觀]’를 대우하여 쓰이는 사례

- 가. (마) 올치 그러면 덟령감계셔 그 덕에 가시는 것을 더러 보았겠구나  
(옥) 천만의외에 분부올시다 소인은 령감계셔 그 덕에 헝차후암시는 것을 뵈온 적이 업습니다 (홍도화 하:21, 이해조 지음, 20세기)
- 나. “페이스북으로 글, 사진은 자주 뵙습니다만…” (구글 검색, 21세기)<sup>3</sup>

(2가)에서는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영감께서 그 댁에 행차하시는 것’이라는 명사절이 왔다. 따라서 이 ‘뵙다’는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인이 어떤 장면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2나)에서도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글, 사진’은 만나는 대상이기보다는 ‘보는’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 예문에서 ‘뵙다’ 동사는 ‘보다[觀]’ 동사를 대우하여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뵙다’ 동사가 ‘보다[觀]’ 동사를 대우하여 쓰이는 것은 상당히 비전형적인 용법이다. 4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2가~나)와 같이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비인물 논항이 오는 것은 18~19세기 사이에 새로 생겨난 용법이다.<sup>4</sup> 18세기 이전

3 2012년 10월 19일에 검색하여 얻은 결과 중 하나로, 2012년 8월에 작성된 문장이다. 이렇게 ‘뵙다’가 ‘보다[觀]’의 대우어로 쓰이는 경우, TV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된 영상,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적힌 게시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서비스에 올라온 글과 사진 등이 흔히 ‘뵙는’ 대상이 된다.

4 ‘뵈다’가 대우하는 논항이 사람이 아니라 장소인 경우가 있다. 아래 예에서 보이듯이 15세기와 19세기 모두 그러한 쓰임이 관찰되는데, 이 경우 사람이 있는 장소를 지칭함으로써 사람을 가리키는 환유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의 문헌을 살펴보면, ‘보다[觀]’ 동사의 목적어를 대우하는 표현으로 ‘보습다/보옵다’ 동사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뵙다’ 동사가 원래 가리키는 사건은 ‘만나다’였다. ‘만나다’ 사건의 특징은 둘 이상의 참가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서로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사건 구조의 측면에서 ‘만나다’ 동사와 ‘보다’ 동사는 시각적인 인지가 일어난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두 동사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만나다’ 사건의 경우 참가자 쌍방이 서로를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뵙다’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인지하는 것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인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3)과 같은 예를 보면 그 점이 잘 드러난다.

### (3) ‘뵙다’ 사건을 구성하는 참가자 쌍방의 시각적 인지

(김양주) 그러나 래일 허판서를 가서 뵈옵시다

(김진사) 내가 가서 뵈오면 무엇하고 종씨가 있는데

(김양주) 그러해도 한번 가서 눈에 뵈이는<sup>5</sup> 거시 요담날 조흔 일이 만소

(추풍감별곡 22, 세창서관 출판 구활자본, 20세기)

(3)에서 김양주는 ‘허판서를 뵈는’ 사건은 곧 ‘허판서의 눈에 보이는’ 사건이며, 높은 사람인 허판서의 눈에 직접 띠어 두어야 나중에 유리하다고 김진사를 설득하고 있다. 즉, ‘뵙다’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은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서로 보는 사건

---

예) 장소를 대우하여 쓰인 ‘뵙다’

가. ...기픈 므로 裴陵으로 뵈라 가는 듯도다 (초간두시언해 20:21b, 15세기)

나. 용문이 이윽기 싱각다가 설영두의 손을 잡고 왈 … 오늘밤 달 쓰기를 지달여 명국  
으로 도라가 션싱 전의 뵈옵고 즉시 산증의 드러가 초목과 갓치 늘글지라. (용문전  
24a, 방각본 소설, 19세기)

5 ‘뵈이다’는 접사 ‘-이-’가 덧쓰인 형태이다. 이것은 어간과 파생접사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강명순 2001, 2007). 17세기 이후 자주 관찰된다.

### 3. ‘뵙다’의 문법적 구성

이며, 양자가 서로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한다.

이렇듯 사건 구조가 ‘만나다’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위계를 굳이 강조하지 않거나, 객체 대우를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호 교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의 (4~5)는 같은 문헌의 서로 다른 판본이 ‘만나다’의 의미를 지닌 다른 동사와 ‘뵙다’를 교체하여 사용한 예이다.

#### (4) ‘뵙다’와 ‘상대하다’의 교체

가. …사후황천의 도라간들 무숨 면목으로 션영을 뵈오며… (효녀심청실고

2a, 박순호소장본, 20세기)

나. …죽어 황천의 도라간들 무숨 면목으로 션영을 상디호며… (심청전 2a-

2b, 서울대 가람문고본, 20세기)

#### (5) ‘뵙다’와 ‘보다[會]’의 교체<sup>6</sup>

가. .... 후에 엊데 조상을 짜 아래 가 뵈ս오며… (번역소학 7:49a, 16세기)

나. .... 다른 날애 엊디 뼈 조상을 짜 아래 가 보으오며… (소학언해 5:80b, 16

세기)

(4~5)의 예문을 보면, 화자가 죽은 조상을 만나는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 ‘뵙다’, ‘상대하다’, ‘보다’ 등의 동사를 사용했다. (4나)는 객체 대우법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相對)하다’ 동사로 조상을 만나는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 (5나)는 ‘보다[會]’ 동사에 객체 대우 어미인 ‘-읍-’을 결합한 ‘보읍다’ 형태를 사용하여, ‘보다’ 동사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객체 대우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뵙다’ 동사의 기원적 사건 구조를 살펴보았다. ‘뵙다’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은 ‘보다’ 동사와 동일하게 시각적 인지를 포함하지만, ‘보다’ 동사와 달리

6 ‘보다[會]’는 ‘만나다’의 의미로 쓰인 ‘보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5가~나)는 소학의 같은 구절 “異日何以見祖宗于地下”를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참가자 쌍방이 서로를 인지하는 사건으로만 한정된다. 이렇게 사건 구조가 한정된 것은 결합한 접사 ‘-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접사가 결합함으로써 어근의 의미가 한정되는 것은 파생에서 흔히 관찰되는 일이다(Haspelmath and Müller-Bardey 2004).

이 ‘-이-’ 접사의 기능은 선행 연구 두 편이 지적했듯이 사·피동 파생 접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접사의 기능을 사동 파생과 피동 파생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보다’ 동사에 이 접사가 결합하면 ‘참가자 쌍방의 시각적 인지’가 항상 실현되기 때문이다. ‘뵙다’ 사건의 주도자가 언제나 아랫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랫사람의 시선은 ‘뵙다’ 사건에서 언제나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뵙다’가 사동사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것이므로 윗사람의 시선이 보장된다. 만약 ‘뵙다’가 피동사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시선을 받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윗사람의 시선이 보장된다.

‘뵙다’를 형성한 ‘-이’ 결합 파생이 사동과 피동 중 어느 쪽이었는가에 대해, 김현주(2010:70)에서는 ‘뵙다’ 동사의 필수 논항이 주격과 대격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동 접사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2장에서 본 것처럼 의미역과 격표지가 항상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뵙다’ 동사가 ‘보다’ 동사에서 사·피동 파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만 확인해 두고자 한다. ‘뵙다’ 동사가 형성된 방법을 밝히는 것은 이 동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지녔던 통사 구조를 논의할 때 큰 단서가 된다. 사동사 ‘뵈다’ 또는 피동사 ‘뵈다’가 ‘뵙다’ 동사의 기원형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뵙다’ 동사의 기원적 통사 구조를 논의할 때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통사 구조만 검토하면 되기 때문이다.

### 3.2 ‘뵙다’의 통사적 구성

앞 절에서 ‘뵙다’ 동사의 기원적 통사 구조가 사동 파생 또는 피동 파생으로 형성된 구조로 분석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더 논의하기 전에, 20세기 전반기에 ‘뵙다’ 동사가 지녔던 통사적 구성을 먼저 분석하기로 한다. 타동사로만 인식되는 현대의 ‘뵙다’ 동사와 달리, 이 시기의 ‘뵙다’ 동사에는 과거에 있었던 다른 통사 구조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뵙다’ 동사가 지금처럼 타동사가 되기 전에 지녔던 통사 구조를 알 수 있다면, 이 동사가 통사 구조의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겪은 변화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쓰이던 ‘뵙다’ 동사에는 타동사로서의 용법과 피동사로서의 용법이 있었다. 『우리말 큰사전』(1992)에서 이 두 개의 용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의 (6)과 같다.

#### (6) 『우리말 큰사전』(1992)에서 제시하는 ‘뵙다’의 설명

- 가. (제)<sup>7</sup> ② 곳 자리토씨 ‘에게’, ‘께’ 다음에 쓰이어 봄을 당하다의 뜻으로,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 예: 할아버지께 ~. 선생님께 절하고 뵠었다.
- 나. (남) ②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 예: 외할아버지를 ~.

(6)의 설명을 바탕으로, 20세기 전반기에 ‘뵙다’ 동사가 지녔던 두 개의 통사 구조를 격틀 구조, 문법 관계, 논항 구조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격틀 구조는 다음의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의 설명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시기에도 ‘뵙다’ 동사의 주어는 항상 아랫사람으로서 주격 표지를 취했기 때문이다.

---

7 (제)는 자동사를, (남)은 타동사를 가리킨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 (7) 20세기 전반기에 ‘뵙다’ 동사가 지녔던 격틀 구조

가. {NP-가}<sub>NOM</sub> NP-께<sub>DAT</sub>}

나. {NP-가}<sub>NOM</sub> NP-를<sub>ACC</sub>}

다음으로 문법 관계 측면을 살펴본다. 문법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론마다 다르지만, 이 논문에서는 언어 유형론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법 관계의 구체적인 목록은 자동사, 타동사, 사동사의 필수 논항들 중에서 무엇과 무엇이 통사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논항이 통사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격표지를 기준으로 삼아 보겠다.<sup>8</sup> (8)은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서 자동사, 타동사, 사동사의 논항이 취하는 전형적인 격표지 유형을 보인 것이다.<sup>9</sup> 각 논항이 취하는 격표지를 바탕으로 각각의 문법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8) 현대 한국어의 문법 관계 유형을 드러내는 예

가. 자동사: 철수[S]가 떠났다.

나. 타동사: 철수[A<sub>1</sub>]가 밥[O]을 먹었다.

다. 사동사: 철수[A<sub>2</sub>]가 아이[G]에게 밥[T]을 먹였다.

(8가~다)를 보면 ‘철수’ 논항이 모두 똑같이 주격 표지 ‘-가’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취하는 격표지는 ‘밥’이나 ‘아이’ 논항에 결합하는 격표지와 다르다. 언

8 논항이 통사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격표지 결합 외에도 관계화시킬 수 있는가, 절이 접속될 때 생략될 수 있는가 등으로 다양하다. 즉, 문법 관계의 목록은 언어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Dryer 1986).

9 분석의 편의를 위해 Bickel (2011)에 따라 자동사의 유일 논항을 S(Subject), 타동사의 동작주 논항을 A<sub>1</sub>(Agent), 타동사의 피동작주 논항을 O(Object), 사동사의 사역주 논항을 A<sub>2</sub>(Agent), 사동사의 피동작주 논항을 T(Target), 사동사에서 사역주도 피동작주도 아닌 논항을 G(Goal)로 표기하였다.

### 3. ‘뵙다’의 문법적 구성

어 유형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격체계를 주격-대격 체계로 분류하고, 같은 격표지를 취하는 S, A<sub>1</sub>, A<sub>2</sub>가 주어라는 문법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Comrie 1989).

또한 이 때 주어가 아닌 O, G, T 논항은 목적어라는 문법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목적어 안에서도 다시 문법 관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8나)의 ‘밥’ 논항을 보면, (8다)에 있는 ‘밥’ 논항과 동일한 격표지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8다)의 ‘아이’ 논항과는 격표지가 다르다. 언어 유형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격체계를 ‘직접-간접 목적어’ 체계로 분류하며, 같은 격표지를 취하는 O, T가 직접목적어가 되고 다른 격표지를 취하는 G가 간접목적어가 되는 것으로 본다(Dryer 1986). 이에 따라 20세기 전반기에 ‘뵙다’ 동사가 지녔던 문법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의 (9)와 같다.

#### (9) 현대 한국어 ‘뵙다’의 문법 관계

가. {주어, 직접목적어}

나. {주어, 간접목적어}

이 문법 관계를 앞서 본 (7)의 격틀 구조와 합쳐서 제시하면 (10)과 같다.

#### (10) 현대 한국어 ‘뵙다’의 문법 관계와 격틀 구조

가. {주어-가<sub>NOM</sub> 간접목적어-께<sub>DAT</sub>}

나. {주어-가<sub>NOM</sub> 직접목적어-를<sub>ACC</sub>}

‘뵙다’ 동사의 용례를 15세기부터 검토해 보면, (10)과 같이 아랫사람이 주어가 되고 윗사람이 목적어가 되는 관계가 언제나 일정하다. 이 동사가 지니는 문법 관계의 측면은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 시기별로 통사 구조를 분석할 때, 문법 관계는 분석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제 (10가, 나)의 논항 구조를 논의할 차례이다. 앞서 (6가)에서, ‘-께’ 조사를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취하는 목적어와 함께 ‘뵙다’ 동사가 쓰이면 ‘봄을 당하다’를 의미한다는 메타적인 분석이 주어졌다. 이 분석에 따르면, (10가)의 통사 구조는 피동 구조가 된다.<sup>10</sup> 그렇다면 (10가)의 구조를 취하는 ‘뵙다’ 동사의 논항 구조는 동작주(Agent)와 피동 작주(Patient)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피동 구조는 주어의 위치로 상승한 피동작주와 목적어의 위치로 하강한 동작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10나)의 논항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6나)를 보면, ‘윗사람을 대하여 보다’라고 풀이하였을 뿐 통사 구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보다’ 동사와 통사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이 생략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10나)의 구조를 취하는 ‘뵙다’ 동사의 논항 구조도 동작주와 피동작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보다’ 동사의 논항 구조는 시각적 인지를 행하는 동작주와 시각적 인지의 대상이 되는 피동작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논항 구조와 (10)의 구조를 조합하면, 20세기 전반기에 ‘뵙다’ 동사가 지녔던 통사 구조를 (11)처럼 기술할 수 있다. (11가)는 전형적인 피동 구조이며, (11나)는 타동 구조에 해당한다.<sup>11</sup>

### (11) 20세기 전반기에 ‘뵙다’ 동사가 지녔던 통사 구조

가. 피동 구조: [피동작주]-가<sub>NOM</sub> [하강된 동작주]-께<sub>DAT</sub> 뵙다

                        주어                        간접목적어

나. 타동 구조: [동작주]-가<sub>NOM</sub>      [피동작주]-를<sub>ACC</sub>                        뵙다

                        주어                        직접목적어

10 (10가)의 구조로 사용된 ‘뵙다’ 동사의 의미가 ‘봄을 당하다’라는 것은 『우리말 큰사전』(1992) 외에 『조선말 사전』(1989)에서도 기술되어 있으므로 20세기 전반의 한국어 화자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었다고 생각된다.

11 사동 구조를 넓은 의미에서 타동 구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타동성을 띠고 영향력의 주체가 주어로 실현되는 동사에 대해 필수 논항이 셋이면 사동 구조로 보고, 필수 논항이 둘이면 타동 구조로 보아 분리하여 다뤘다.

### 3. ‘뵙다’의 문법적 구성

정리하면, 20세기 전반기의 ‘뵙다’ 동사에는 (11가)에 대응하는 피동사 용법과 (11나)에 대응하는 타동사 용법이 있었다. 그런데 앞 절에서 ‘뵙다’ 동사는 사동사 혹은 피동사로 출발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혹시 ‘뵙다’ 동사의 기원적 통사 구조는 피동 구조였고, 이 피동사 용법이 20세기 전반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일까?

그러나 20세기 전반기의 ‘뵙다’에 피동사 용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뵙다’ 동사의 기원이 피동사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11가)의 피동사 용법이 통시적 변화의 결과로 생겨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11나)의 타동사 용법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히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뵙다’ 동사의 기원적인 통사 구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지니는 통사 구조의 특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헌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 3.3 사·피동 파생과 통사 구조의 변형

사·피동 파생은 한국어의 동시 통사론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범주이다.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가 이 파생을 통해 변형된 통사 구조라는 것을 3.1절에서 보았으므로, 이 절에서 사·피동 파생을 통해 동사의 통사 구조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12)는 현대 한국어의 ‘물다’ 동사를 이용해 사동문과 피동문, 그리고 파생 이전의 기본 형태로 구성되는 타동문을 만든 예이다.

##### (12) 사·피동 파생을 통해 달라지는 통사 구조의 예

- 가. 타동문: 새끼가 젖을 물었다.
- 나. 사동문: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렸다.
- 다. 피동문: 발바닥이 모기에게 물렸다.

(12가)의 예문은 ‘물다’ 동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장 유형이다. 이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문장에서 필수 논항은 ‘새끼’와 ‘젖’ 두 개이고, 각각의 의미역은 동작주와 피동작주로서 무는 동작의 주체와 객체를 나타낸다.

이제 통사 구조의 측면에서 (12가)와 (12나~다)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나)의 예문은 필수 논항이 ‘어미’ ‘새끼’ ‘젖’의 세 개이다. (12가)에 비해 늘어난 논항인 ‘어미’의 의미역은 사역주이고, 동작주였던 ‘새끼’ 대신 주격 표지를 취하고 있다. ‘새끼’는 여전히 동작주이기는 하나 피사역주로서의 측면을 겸하게 되었으며, 이 변화는 ‘새끼’의 격표지가 주격에서 여격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난다.

(12다)의 예문은 필수 논항이 ‘발바닥’과 ‘모기’ 두 개로 (12가)와 논항 수가 동일하지만, (12가)와 달리 피동작주가 주어로 실현되었다. 이는 피동작주 ‘발바닥’이 주격 표지를 취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 차이를 일반화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13)과 같다.

### (13) 통사 구조의 차이를 빚어내는 요소

가. 동사의 자릿값: 동사가 취하는 필수 논항의 수

나. 필수 논항의 의미역: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 안에서 각 논항이 지시하는 참가자의 역할 (예: 동작주와 피동작주)

다. 필수 논항과 문법 관계의 대응: 동사가 취하는 필수 논항의 의미역과 문법 관계의 조합 (예: 동작주가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와 목적어로 나타나는 경우)

(12가)의 타동문과 (12나)의 사동문은 (13가~다) 모두에서 차이가 있다. (12가)의 타동문과 (12다)의 피동문은 (13나~다)에서 차이가 있다. (12나)의 사동문과 (12다)의 피동문은 (13가~다) 모두에서 차이가 있다. 즉, (13)의 기준에 근거하여 (12가~다)의 통사 구조는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12가~다)의 통사 구조를 각각 타동 구조, 사동 구조, 피동 구조로 분류하게 된다.

이를 2.1절에서 살펴본 통사 구조의 세 측면과 비교하면, (13가~나)는 논항 구조

### 3. ‘뵙다’의 문법적 구성

에 대응하고 (13다)는 문법 관계에 대응한다. 그리고 각 논항의 격표지, 즉 격틀 구조가 (13가~다)의 정보 중에서 하나 이상이 변형되었음을 드러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와 피동사 ‘뵈다[見]’가 격틀 구조의 측면에서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뵙다’가 보이는 특징과 비교하면 ‘뵙다’ 동사가 처음에 지녔던 통사 구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뵙다’ 동사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통사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도,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도, ‘뵙다’ 동사가 지녔던 격틀 구조를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장에서 는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와 목적어의 종류 등 통사 구조를 추정하기 위한 단서를 시기별로 모아서 기술하기로 한다.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 4.1 격틀 구조 분석 방법

4장에서는 격틀 구조를 중심으로 문헌에 나타난 ‘뵙다’ 동사의 용례를 정리하기로 한다. 주로 초점을 둔 것은 대우받는 객체가 인물, 즉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존재일 때 그 논항이 취한 격표지이다. 이와 별도로 대우받는 객체가 인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제시하였다. 3.1절에서 잠시 지적한 것처럼, ‘뵙다’ 동사가 일방적인 시각적 인지를 의미하는 ‘보다[觀]’ 동사의 객체 대우어로 쓰이는 경우가 현대 한국어에서 소수이나마 관찰된다. 이러한 용법 또한 ‘뵙다’ 동사가 겪은 통사 구조의 변화를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객체가 비인물인 경우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헌에서 검색된 ‘뵙다’ 동사의 용례 중에는 인물이 있는 장소를 지칭함으로서 인물을 나타내는 환유가 사용된 경우가 있다.<sup>1</sup> 이 용법은 15세기부터 사용되다가 20세기에 줄어들어 현대 한국어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장소 명사가 ‘뵙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면 처격 표지와 결합하는데, 이러한 용법에 해당하는 예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인물을 대우하는 용법이기는 하나, 비유에 의해 확장된 용법이어서 ‘뵙다’ 동사의 기원적 통사 구조를 논의할 때에는 부적절한 자료이기 때문이다.<sup>2</sup> 또한 문헌 자료에서는 대우받는 객체 논항이 생략된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러한 자료도 논거에서 제외한다.<sup>3</sup>

---

1 이에 대한 예문은 3장의 각주 4에서 제시하였다.

2 ‘뵙다’가 ‘보다’의 사·피동 파생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뵙다’ 동사의 기원적 통사 구조에서 대우받는 객체는 인물 명사이어야 한다.

3 ‘선생님께 절하여 뵈었다’처럼 ‘뵙다’와 또 다른 동사가 상호 연결되어 쓰인 경우도 자료에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15세기부터 ‘뵙다’의 용례를 살펴보면, 항상 아랫사람이 주어이고 윗사람이 목적어인 관계로 나타난다. 격틀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어는 항상 주격 표지를 취한다. 목적어의 격표지에 대해서는 목적어가 인물 명사일 때와 비인물 명사일 때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2.1절에서 통사 구조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면서 보았듯이, 논항의 의미적 특징은 격표지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뵙다’ 동사가 인물 명사를 목적어로 취했을 때와 비인물 명사를 목적어로 취했을 때 각각의 격틀 구조를 나눠서 제시한다.

목적어가 인물 명사일 때에는 여격 표지를 취하는 경우와 대격 표지를 취하는 경우로 나뉜다.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여격 표지를 취하는 경우를 ‘여격 격틀 구조’라고 부르고, 대격 표지를 취하는 경우는 ‘대격 격틀 구조’라고 부르기로 한다.

##### (1) ‘뵙다’의 격틀 구조

가. 여격 격틀 구조: 주어<sub>NOM</sub> 간접목적어<sub>DAT</sub>

나. 대격 격틀 구조: 주어<sub>NOM</sub> 직접목적어<sub>ACC</sub>

목적어가 비인물 명사인 경우는 항상 대격 표지를 취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격틀 구조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뵙다’ 동사가 인물 명사가 아닌 목적어를 취하는 용례의 수와 그 양상만을 정리했다.

---

서 제외한다. ‘절하다’ 역시 목적어가 여격표지를 취하는 동사여서 어느 동사가 목적어의 격표지를 결정했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선생님을 가서 뵈었다’처럼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자료로 채택하였다. ‘선생님’은 ‘가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우받는 논항에 보조사 ‘-도’ 등이 결합했을 때에도 격표지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자료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대우받는 객체 논항이 무표지로 나타난 경우, 즉 격표지가 생략된 경우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격표지 생략은 한국어에서 흔하게 일어나지만 그 동기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 현상의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고 하여 격표지 생략의 예를 제외해 버리면, 격틀 구조의 분포 경향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격표지가 생략된 예도 역시 자료로 제시하였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취하는 격표지를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격 표지는 언제나 ‘-을/를/을/를/ㄹ’ 등의 ‘-ㄹ’ 계 형태로만 나타난다. 반면 여격 표지는 15세기의 ‘-씩’부터 16세기 ‘-의계’, 18세기 ‘-괴’, 19세기 ‘-계’, ‘-게’, ‘-째’ 등으로 새로운 형태들이<sup>4</sup> 나타나는데, 크게 ‘-괴’ 류와 ‘-의계’ 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설명과 예문은 다음의 각 절에서 제시한다.

### 4.2 15세기: [NP가, NP를] ( ➤ [NP가, NP씩])

15세기의 13개 문헌을 검색한 결과, ‘뵙다’의 용례를 73건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대우받는 객체 논항이 장소가 아닌 명사로 실현된 예는 43건이다. 대우받는 객체 논항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물 명사이다. 이들은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하거나 격표지가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여격 격틀 구조로 보이는 예는 4건에 불과했다. [표 1]은 이 분포를 정리한 것이고 (2)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문을 가져온 것이다.

[표 1] 15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대격 격틀 구조	여격 격틀 구조	격표지 생략	합
20건	4건	19건	43건

#### (2) 15세기 ‘뵙다’ 동사의 예

가. 이 須菩提 當來世에 三百萬億 那由他 佛을 뵈<sup>수</sup>ば… (월인석보 13:64, 15세기)

4 여기서 여격 표지의 특정 형태가 ‘새로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어의 역사에서 그러한 형태가 처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그러한 여격 표지를 취하는 사례가 처음 관찰되었다는 의미이다.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나. [須達이] … 즉자히 누려와 世尊씨 뵈수방 머리 조瘁고 흐녀괴 안즈니…

(석보상절 6:45, 15세기)

다. 須達이 … 부텨 뵈습노 禮數를 몰라… (석보상절 6:20, 15세기)

그런데 언뜻 보아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4건 중, 3건의 예문은 그 사용된 맥락을 볼 때 사동사 ‘뵈다[示]’ 혹은 피동사 ‘뵈다[見]’의 사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3건을 모두 들어 보이면 다음의 (3)과 같다.

(3)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의 예

가. [須達이] 命終 흐야 兜率天에 가아 兜率天子 | 듸외야 世尊 뵈습고져 너겨  
즉자히 누려와 世尊씨 뵈수방 머리 조瘁고 흐녀괴 안즈니 (석보상절  
06:44b-45a, 15세기)

나. 分身 오샤매 모미 부텅기 뵈습디 아니 흐샤문 體 곧 흐신 전치시고 다 뫼우  
오니 보내샤 물즈옴 닐위시고 塔 여르샤문 願이 곧 흐신 전치시니라<sup>5</sup> (법화  
경언해 4:130a, 15세기)

다. [目連이] 어미를 드려와 世尊스기 뵈수방 五百 戒를 들즈 복니이다  
天母 | 누려와 마자 切利天에 가 快樂을 누리니이다 (월인석보 23:71b,  
15세기)

(3가)의 “世尊씨 뵈수방”는 ‘現於佛前’의 번역으로서 ‘부처의 앞에 나타나다’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만나서 예를 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가리키는 다른 용례와 달리, 바로 뒤에 예를 표하는 장면 묘사가 따로 이어지고 있다. 15세기의 불경언해류나, 불경언해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석보상절』 및 『월인석보』에

5 원문은 다음과 같다. “分身之來예 不躬觀佛者는 體同故也 | 시고 皆遣侍者 흐샤 致問 흐우  
오시고 皆塔者는 願同故也 | 시니라…”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서는 피동사 ‘뵈다[見]’의 예가 자주 관찰된다. (3가)는 그런 ‘뵈다[見]’의 사례였을 가능성이 있다.

(3나)의 “모미 부텨고 뵈습디 아니 희샤문”은 “不躬觀佛者”的 번역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분신들이 석가모니 부처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사자를 대신 보내어 인사를 전하게 하는 장면을 풀이한 것이다. 주어가 ‘분신불의 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피동사 ‘뵈다[見]’였을 가능성이 있다.

(3다)는 『월인천강지곡』의 其五百十九가 『월인석보』에 수록된 것인데, 해당 부분에 “目連이 어미를 부텨 알피 드려다가 五百 戒를 受흐 습게 흐야…(월인석보 23:91b, 15세기)”라는 『석보상절』의 내용이 주석으로 달려 있다. 이 내용을 고려하면 ‘부텨고’가 ‘부처가 있는 곳’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목련이 그 어머니를 부처에게 보이는 사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3가~다)가 사동사 ‘뵈다[示]’나 피동사 ‘뵈다[見]’로 분석된다면,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한 예는 다음의 (4)에 제시한 단 한 건에 불과하다.

### (4) 15세기 ‘뵙다’와 여격 표지 ‘-의그애’

徐積이 세 설 머거셔 아비 죽거늘 아춤마다 甚히 슬피 어드며 아чув나죄 冠帶  
흐야 어미그애 뵈더라 (삼강행실도 련던대 소장 孝:28, 15세기)

여기서 여격 표지로 분류한 ‘-의그애’는, 형태적 측면에서 보면 속격조사 ‘-의’, 장소성 대명사 ‘궁’, 처격조사 ‘-에’가 결합하여 여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사적 구성으로 분석된다(박양규 1972). 이 통사적 구성이 문법화를 거쳐 나타난 것이 여격 표지 ‘-의개’이다. 유민호(2008)에서는 ‘-의개’ 형이 15세기 문헌들에 이미 나오기 때문에 ‘-의그애’ > ‘-의개’의 문법화가 15세기에 이미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4)에서 나오는 “어미그애”를 장소의 환유를 활용한 표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현으로 보지 않고, 여격 표지 ‘-의그에’가 결합한 것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4)를 여격 격틀 구조의 용례로 분류해 둔다.<sup>6</sup>

그러나 (3)을 모두 ‘뵙다’ 동사의 용례로 인정하고 (4)의 예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례는 네 건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한 예는 모두 20건이므로, 대격 격틀 구조가 여격 격틀 구조에 비하여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15세기의 ‘뵙다’ 동사는 주로 대격 격틀 구조를 취했고, 대우받는 목적어는 인물 명사로 한정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4.3 16~18세기: [NP가, NP를] ≤ [NP가, NP씌]

16세기의 ‘뵙다’ 동사가 취하는 격틀 구조의 분포를 보면, 변화가 일어났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여격 격틀 구조가 쓰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11개 문헌에서 86건이 검색된 가운데 대우받는 객체 논항이 장소가 아닌 명사로 실현된 예는 39건이고, 이들은 모두 인물 명사였다. [표 2]에서 이 39건에 대하여 격틀 구조의 분포를 정리하였다. (5)는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예이다.

[표 2] 16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대격 격틀 구조	여격 격틀 구조	격표지 생략	합
15건	19건	5건	39건

##### (5) 16세기 ‘뵙다’ 동사의 예

가. 모든 선비들 히 오래 언버스를 아니 가 보니 있느 나 (번역소학 9:8a)

나. 太子 】 님금씩 뵈 수 와 술 오 디… (번역소학 9:45b)

6 다만 이 사례를 ‘뵙다’ 동사의 기원적 통사 구조를 논의할 때 이용할 수는 없다.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인물 명사일 때 기원적으로 어떤 격표지를 취했는가 하는 문제는 ‘-의계’가 없던 시기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다. 公綽의 안해 韓氏는…미양 부모 뵈수 오라 갈 제… (번역소학 9:106a)

16세기 자료에서 ‘뵙다’ 동사와 함께 쓰인 여격 표지는 ‘-씩’과 ‘의계’의 두 가지가 있었다. 앞 절에서 잠시 보았듯이, ‘-의계’는 장소의 환유에서 기원하는 ‘-의그에’가 문법화를 겪어 생겨난 격표지이다. 16세기의 용례에서 두 번 관찰된다.

### (6) ‘뵙다’의 여격 격틀 구조에서 ‘-의계’ 표지가 쓰인 경우

가. 셔석이 세 설 머거셔 아비 죽거늘 아침마다 심히 슬피 어드며 주라는 아침  
나죄 관디 흐 야 어의계 뵈더라 (삼강행실도 동경대 소장 孝:28, 16세기)

나. [陽城이] 모든 션비 오래 어버이를 보디 몯 흐였는 이 인누냐 흐니 이튿날  
城의계 뵈고 돌아가 효양흘 이 스므 물이러니…<sup>7</sup> (소학언해 6:7a~b, 16세  
기)

17세기 문헌 자료에서 ‘뵙다’ 동사가 취하는 격틀 구조의 분포는 16세기와 비슷하다. 16개 문헌에서<sup>8</sup> ‘뵙다’의 용례가 105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대우받는 객체 논항이 장소가 아닌 명사로 실현된 예는 46건이고, 이들은 모두 인물 명사였다. [표 3]은 17세기의 ‘뵙다’ 동사가 취하는 격틀 구조의 분포를, (7)은 그 예문을 보인 것이다.

7 원문은 “明日謁城還養者”이다. (5가)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陽城이라는 관리가 오랫동안 부모를 뵙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자 이들이 陽城에게 인사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이야기이다. 『번역소학』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옮겼다.

이튿날 陽城 더브리 하딕흐고 도라가 효양흐리 스므나무니러니 (번역소학 9:8a)

8 17세기부터는 한글 간찰 자료가 추가된다. 한글 간찰은 한편한편을 독자적 단위로 셀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문헌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므로, 분류의 편의를 위해 한글 간찰들을 보관하고 있는 집안에 따라 묶은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표 3] 17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대격 격틀 구조	여격 격틀 구조	격표지 생략	합
16건	19건	11건	46건

#### (7) 17세기 ‘뵙다’ 동사의 예

가. [壇]...웃 네 ? 티 흔 後에 婦의 父母를 뵈라 (가례언해 4:25, 17세기)

나. 이튿날 壇 가 婦의 父母씩 뵈라 (가례언해 4:25, 17세기)

다. [내가] 한 쿤의 샤직 모님 뵈옵고 넴감도 보오라 (병자일기 150, 17세기)

17세기 자료에서 ‘뵙다’ 동사와 함께 쓰인 여격 표지는 여전히 ‘-씩’과 ‘-의게’이다. 다만 여격 격틀 구조로 분류된 용례 19건 중에서 ‘-의게’가 결합한 예가 7건이므로, 16세기에 19건 중의 2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뵙다’ 동사의 목적어에 ‘-의게’ 표지를 쓰는 용법이 17세기를 거쳐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의게 뵙다’ 형이 16~18세기까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18세기 자료에서는 ‘뵙다’ 동사가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용례가 대격 격틀 구조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21개 문헌에서 ‘뵙다’ 동사의 예로 139건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목적어가 장소가 아닌 명사로 실현된 예는 74건인데, 그 중 1건만 인물명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외하고 73건의 격틀 구조를 정리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은 [표 4]와 같다. (8)은 각각의 구조에 대한 예이다.

[표 4] 18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대격 격틀 구조	여격 격틀 구조	격표지 생략	합
22건	51건	0건	73건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 (8) 18세기 ‘뵙다’ 동사의 예

가. 김덕숙이는 딘션 사름이라 … 나히 여순둘하<sup>이</sup> 어미 죽거늘 삼년시묘흘제  
미일 앗참나조 제<sup>하</sup>고 아비을 와 뵈오되 비록 눈비 와도 폐티 아니<sup>하</sup>더라  
(속삼강행실도 孝:6a, 평안감영 중간본, 18세기)

나....季氏 ] 장<sup>초</sup> 頸與를 치려커늘 冉有와 季路 ] 孔子<sup>이</sup> 뵈으와 골오디…  
(논어율곡언해 17a-b, 18세기))

18세기의 자료에서 ‘뵙다’ 동사와 함께 쓰인 여격 표지를 보면, ‘-씩’과 ‘의계’에 대해 ‘-그’가 늘어난다. 여격 격틀 구조로 분류되는 예 51건 중 ‘-씩’가 13건, ‘-의계’가 14건, ‘-그’가 24건 관찰되는데 ‘-씩’과 비교하여 ‘-의계’의 쓰임이 16세기에 처음 등장한 아래 꾸준히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표지가 쓰인 예를 18세기 자료에서 뽑아 보면 (9)와 같다.

### (9) 18세기 ‘뵙다’의 대우받는 논항이 여격 ‘-그’ 표지를 취한 예<sup>9</sup>

가. 닳퉁명공이 성도부의 이실 제 일즉 밤의 쁨 쿠어 주부 진구그 뵈야 말<sup>하</sup>기  
오래디 아녀셔… (종덕신편 상:24a, 18세기)

나. 이 그별을 니강의계 보훈대 강이 듯고 바로 드려가 흡종그 뵈와 골오디…  
(무목왕정충록 1:50, 낙선재 필사본, 18세기)

9 (9)의 용례에서 목적어에 ‘-그’가 결합하는 경우는 목적어 명사가 모두 ‘○, □, ㄴ’ 등의 비음으로 끝난다. 따라서 혹시 ‘-씩’의 ‘ㅅ’이나 ‘-의계’의 ‘의’가 공명음 뒤에서 생략되는 음운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 나타나는 ‘-씩’과 ‘-의계’의 예가 있으므로 ‘ㅅ’이나 ‘의’가 생략된 형태라고 할 수 없다. 다음은 공명음 뒤에 ‘-씩’과 ‘-의계’가 나타나는 예이다.

가. 장<sup>초</sup> 므습 낫<sup>초</sup>로 도라가 우리 황형씩 뵈오리오 (천의소감언해 유찬슈제신:5b ,  
18세기)

나. 후의 그 집 사름이 와 면의계 뵈거늘… (종덕신편 上:9a, 18세기))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다. 왕태 shim 닐오디 전의 그디 모친고 뵈오니… (형세언 5:100, 낙선재 필사본, 18세기)

‘-고’는 형태로 보아 여격 조사임은 분명한데, 단독으로 쓰인 ‘-고’를 여격 조사로 분류한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민호(2008)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어의 여격 조사 목록을 정리하여 그 변화를 추적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15~20세기 여격 조사 목록에 ‘-고’가 없다(유민호 2008:74). 대신 ‘-의고’, ‘-ㅅ고’, ‘-썩’ 등을 ‘-고’ 류에 속하는 여격 표지로 제시한다. 그러나 ‘뵙다’ 동사에 관련된 자료에서는 ‘-고’ 단독형도 여격 조사로 나타남을 강조해 둔다.

한편 목적어가 항상 인물 명사로 한정되던 15~17세기 자료와 달리, 18세기 자료에서는 ‘뵙다’ 동사가 인물이 아닌 목적어를 취하는 예가 세 건 나타난다. (10)에서 세 사례를 모두 제시하였다. (10가, 다)의 예문에서 ‘뵙다’의 목적어가 명사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내용으로 보아 생략된 목적어는 ‘윗사람의 어떠한 모습’임이 확실하다.

(10) 18세기에 새로 등장한,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는 ‘뵙다[觀]’의 예

가. 슬프다 낸 고로흔 여성으로써 양금위명<sup>10</sup> 헤기는 곳 주궁이시니<sup>11</sup> 주궁이  
디난 그을 후로브터 식음을 전혀 물니시고 테루를 양회 흘니오시니 [그모  
습을] 무양 훈 번 우러러 뵐오매 심간이 불붓는 듯 훈디라 (속명의록언해  
2:26a-b, 18세기)

나. 왕이 이러특시 골으샤다 의흡다 우리 성조 광능죠겨오셔<sup>12</sup> 무비로 대략을  
명헤시고 문치로 태평을 일위셔 신기하신 공이 팔방의 넙하시며 너르신

10 ‘尙今爲命’

11 ‘주궁’은 ‘慈宮’이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고 왕세손이 즉위하였을 때 왕세자의 빈을 부르는 호칭인데, 여기서는 혜경궁 홍씨를 가리킨다.

12 광릉에는 세조의 무덤이 있다. 따라서 “우리 성조 광능죠”는 세조를 가리킨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복이 만세의 덥하시니 오히라 창잠의 즐기심과 홍벽의 감추심도 오히려  
다시 뵈옵는 듯한 온 생각이 있거든…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 1a,  
18세기)

다. [擡] 큰할아버님 상수는 통곡한 온Batman 무슨 말씀을 알외오리잇가 [제가] 쉬  
이 가깝게 되여소오니 다시 [擡] 뵈올가 신괴히 녀겨습더니 그사이 [隔]져  
리 되오실 줄 어이 생각한여소오리잇가 면길 흉역한 오신 쑤흐이 쪼쎄치오  
시니 오죽히 양한오시랴 [그 모습을] [隔] 뵈옵는 듯 굽브온 념녀 아므라타  
업소오며…<sup>13</sup> (은진 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138, 18세기)

(10가)의 경우 ‘자궁(慈宮)이 지난 가을 이후부터 먹고 마시기를 거부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시니 (그 모습을) 우러러 뵈오매 속에 불이 붙는 듯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생략된 것이 그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인물 명사 ‘조궁(慈宮)’이라고 주장 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러러’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만나다’보다는 일방적인 시각적 인지를 뜻하는 ‘보다[觀]’에 더 가깝게 쓰인 ‘뵙다[觀]’의 예라고 할 수 있다.

(10나)에서 목적어는 ‘창잠(昌歎)의 즐기심과 홍벽(弘璧)의 감추심’으로 해석된다. 창잠을 즐기고 홍벽을 소장했다는 것은 주나라 문왕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세조가 이뤄낸 업적을 생각하니 성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나라 문왕의 특징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하심’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목적어로 쓰여 ‘뵙다’가 인물이 아닌 목적어를 대우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

13 한글 간찰은 맥락에 따른 생략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옮겨 오면 다음과 같다. “큰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일은 통곡할 밖에 무슨 말씀을 아뢰겠습니까? (제가) 빨리 가게 되었으니 (큰할아버님을) 다시 뵐까 신기하게 여겼는데 그 사이 저렇게 되실 줄 어찌 생각하였습니까? (큰할아버님께서) 면길 행차로 고생하신 끝에 시달리신 것이 오죽 (몸이) 상하셨을까 뵙는 듯 애가 끊어지는 듯한 염려를 어떻다고 할 수 없으며…”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10다)는 (10가)와 비슷하다. ‘뵙다’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의 ‘뵈올가’는 생략된 목적어가 큰할아버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두 번째의 ‘뵈옵는’은 바로 앞에 온 문장의 내용에 나타나는 ‘큰할아버지가 먼 길을 가느라 시달려 몸이 상했을 모습’을 눈 앞에서 보는 듯 마음이 아프다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뵈옵다’가 ‘일방의 시각적 인지’를 의미하여 쓰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절에서 보겠지만, (10가, 다)와 같은 표현은 19~20세기 한글 간찰 여러 편에서 상투적으로 쓰여 ‘어른의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 (10가, 다)의 경우 목적어가 명사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생략된 목적어가 가리키는 객체가 ‘어른의 어떠한 모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인물 명사가 대우받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16~18세기 자료에서 관찰된 ‘뵙다’ 동사의 특징을 정리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여격 격틀 구조의 용례가 15~16세기 사이에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여격 격틀 구조가 새로 출현하여 ‘뵙다’ 동사의 용법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17~18세기 사이에도 여격 격틀 구조의 용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sup>14</sup> 따라서 16~18세기까지 여격 격틀 구조가 쓰이는 경우가 대격 격틀 구조에 비해 늘어났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사용한 말뭉치 중, 15~16세기의 자료는 당대의 언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련을 거쳤지만 17~18세기의 자료는 문헌의 질과 양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대표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17~18세기의 ‘뵙다’ 용례에서 나타나는 격틀 구조의 분포 비율은 여격 격틀 구조와 대격 격틀 구조가 모두 꾸준히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기로 한다.

14 17세기의 분포가 16세기와 다르지 않은 것은 자료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 이용한 17세기 자료는 한글 간찰과, 세종역사말뭉치에서 17세기로 분류된 자료 전체이다. 그런데 후자의 크기가 약 9만5천 어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글 간찰 역시 17세기 자료가 18세기 자료보다 훨씬 적다(부록 참조). 15세기 『월인석보』가 단일 문헌으로 약 22만 어절임을 감안하면 17세기 자료가 매우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다음으로, 대우받는 목적어로 오는 명사의 종류가 18세기에 들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뵙다’ 동사가 대우하는 목적어가 철저하게 인물 명사로 한정되었던 15~17세기와 달리, 18세기에는 ‘윗사람의 어떠한 모습’ 등의 비인물 명사가 목적어로 나타나는 용법이 관찰된다. 이것은 이전 시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용법이므로, ‘뵙다’ 동사의 문법에 변화가 생겨났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뵙다’의 목적어가 지니는 의미역이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다루는 19~20세기의 자료에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 4.4 19~20세기: [NP가, NP를] ≥ [NP가, NP께]

19세기의 자료에서 ‘뵙다’ 동사의 용례를 검토해 보면, 대격 격틀 구조의 비율이 18세기에 비해 늘어난다. 35개 문헌에서<sup>15</sup> ‘뵙다’로 검색된 예는 281건이고, 그 중에서 목적어가 인물 명사인 예는 123건이다. [표 5]는 이 123건에 대하여 격틀 구조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고 (11)은 각각의 예를 보인 것이다.

[표 5] 19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대격 격틀 구조	여격 격틀 구조	격표지 생략	합
59건	60건	4건	123건

#### (11) 19세기 ‘뵙다’ 동사의 예

- 가. 그더들이 세상에 잇솔 쪽 쥬를 극력 헤여 섬긴다 헤나 죄악에 물이 들고 육신이 연약 헤야 … 여고서는 쥬를 섬기되 영영히 곤 헤지 아니 헤고 찬미 헤

<sup>15</sup> 이 논문에서 사용한 한글 간찰 중에는 19~20세기에 걸치는 것들도 있다. 이들은 시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장의 통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며 감사히 넉이며 즐거워 훗기를 밤낮 쉬이지 아니 하며 죠를 뵈옵고 말숨  
을 흥상 드르며… (천로역정 2:198b, 파리동양어학교 소장, 19세기)

나. 고독도 | 글 으더 … 우리보담 몬져 간 천천만만 성도들이 피초 해롭게 흠  
이 업고 서로 소랑 하며 거록흔 풍치가 름름 하야 각각 하느님씩 뵈옵고 흥  
상 그 압희 서셔 은총을 누리 느니… (천로역정 1:8a, 파리동양어학교 소  
장, 19세기)

다. …글시 드려보오 업다 우리 부모임의 덕택으로 [내가] 장기드려 숨일신항  
후연후의 노마초려 쳐가집의 건네가셔 빙장 빙모 뵈와더이… (화  
용도12a, 42장본 박순호 소장, 19세기)

만약 이 논문에서 사용한 18세기 자료와 19세기 자료가 각 시기의 언어 자료를  
대표할 수 있었다면, 이 분포 비율의 변화를 근거로 ‘뵙다’ 동사의 문법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의 자료 역시 대표성이 다소 부  
족하다. 문헌의 양은 적지 않으나, 문헌의 질 측면에서 충분히 정련되지 못했기 때  
문이다. 따라서 17~18세기와 마찬가지로, 19세기의 ‘뵙다’ 동사는 두 격틀 구조가  
모두 활발히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기로 한다.

여격 격틀 구조로 분류된 19세기 용례에서 여격 표지의 형태를 보면, ‘-계’ 5건,  
‘-계’ 14건, ‘-의계’ 3건, ‘-괴’ 31건, ‘-째’ 3건, ‘-씩’ 4건이다. ‘-의계’ 형이 줄어들고  
대신 ‘-계’, ‘-계’ 형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띈다. ‘-째’는 ‘-씩’의 후대형이다. (11나)  
에서 예를 보인 ‘-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격 표지가 사용된 예를 보이면 다음의  
(12)와 같다.

(12) 19세기 ‘뵙다’의 목적어가 취한 여격 표지 형태의 종류와 예

가. ‘-계’

용문이 산문 밧그 누와 부모계 뵈오니 부모 크게 깃거 팔 연 그리던 정을  
못느 이연 하더라 (용문전 4a, 고소설 판각본 전집, 19세기)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나. ‘-개’

용문이 천주~~개~~ 뵈~~을~~신 노왕이 몬져 드러가 용문의 전후~~스~~ 말~~숨~~을 다 쥐달  
흐 오니… (용문전 26b, 고소설 판각본 전집, 19세기)

다. ‘-의개’

각설 각~~쳐~~ 제~~후~~ 기회을 정~~후~~고 초회왕~~으~~개 뵈~~오~~며 진국 칠 으논을 정할 시  
… (초한전上:15b, 고소설 판각본 전집, 19세기)

라. ‘-그’

춘향이 훌 일 업셔 당상의 올나 절~~후~~여 뵙는 거동 셔왕~~모~~ 요지연의 쥬목왕  
그 뵈~~옵~~는 듯 셔미인~~이~~ 오왕궁중의 범~~쇼~~후~~그~~ 뵈~~옵~~는 듯 작모~~횡~~지 그묘~~호~~  
고 붓그리는 옥모~~튀~~되 절승~~흔~~지라 (남원고사 23a, 19세기)

마. ‘-째’

웅~~이~~ 직시 헝장을 차려 위국 노정~~괴~~을 바다 ?지고 션싱째 하직~~후~~니 … 바  
로 강설암으로 향~~후~~야 슈일 만의 이르러 부인째 뵈~~오~~니 부인이 웅을 붓들  
고 못~~니~~ 길거~~후~~시니… (조웅전 33b, 고소설 판각본 전집, 19세기)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는 ‘뵙다[觀]’의 용례 역시 늘어났다. 윗사람의 어떠한 모  
습이나 어른의 얼굴,<sup>16</sup> 또는 어른이 보낸 편지 등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가 확인  
된다. ‘뵙다’에서 대우받는 논항으로 실현될 수 있는 명사의 종류에 확실히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의 용례에서 비인물 명사가 대우받는 경우는 39건이  
검색되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의 (13)과 같다.

(13) 19세기 ‘뵙다’가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는 예

가. [제가] 증녹을 보오니 … 症錄을 주시 뵈~~오~~미 큰 염녀는 업깃~~소~~오니 너무  
과이 냄녀마~~읍~~<sup>17</sup>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 161, 19세기)

<sup>16</sup> 얼굴은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5장에서 자세한 예와 함께 검토한다.

<sup>17</sup> 이 편지를 작성한 사람은 의원이다. 당시에는 환자가 병의 증세를 자세히 적어 의원에게 보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나. [제가] 하셔 두 장 일시에 뵈오니 뵈옵고 말씀이온듯 하정 든 ” 깃부오며

…<sup>18</sup> (전주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 60, 19세기)

다. 요소이는 잡수오시기 죠곰 낫조오신가 [저는] 구미 그덧 후신 모양 뵈옵고

이탁 두립수오니…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 35, 19세기)

(13가)에서 ‘뵙다’의 목적어로 나타난 것은 ‘증녹(症錄)’인데, 이는 환자가 자기 병의 증세를 자세히 적어 의원에게 보낸 글이다. 증록(症錄)을 읽는 사건을 가리켜 ‘보옵다’와 ‘뵈옵다’가 같이 사용되었으므로, ‘뵈옵다’의 목적어가 ‘보옵다’의 목적어와 똑같은 의미역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3나)는 ‘하서(下書)’가 ‘뵙다’의 목적어로 나타났다. 하서(下書)는 윗사람이 보낸 편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13가)와 마찬가지로 무정물이 대우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3다)의 ‘구미 그덧 후신 모양’은 ‘입맛이 그렇게 되신 모양’으로 해석되는데, 외지에 훌로 가 있는 남편이 몸도 좋지 않고 잘 먹지도 못하는 것을 부인이 걱정하면서 ‘남편이 입맛도 없고 지내는 모양’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윗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는 사건에 대하여 ‘뵙다’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셋은 모두 비인물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뵙다[觀]’의 용례임이 확실하다.

이어서 20세기<sup>19</sup> 자료에서 검색되는 ‘뵙다’의 용례에서 격틀 구조의 분포를 보면,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예가 크게 늘어난다. 32개 문헌 중에서 ‘뵙다’의 사례로 검색된 것이 281건인데, 그 중에서 목적어가 인물 명사로 실현된 예는 89건이다. 이들의 격틀 구조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

내면 그에 따라 처방을 했던 듯하다.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가) 증록을 보니 … 증록을 자세히 뵐오매 큰 염려는 없겠사오니 너무 과히 염려 마십시오”

18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가) (어른께서 보내 주신) 편지 두 장 동시에 뵐오니 뵐시고 (듣는) 말씀이온 듯 제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며…”

19 이 논문에서 사용한 20세기 자료는 모두 1945년 이전이고 특히 1915년 이전 자료가 많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표 6] 20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

대격 격틀 구조	여격 격틀 구조	격표지 생략	합
54건	16건	19건	89건

### (14) 20세기 ‘뵙다’의 예

- 가. 좌선군이 … 창을 열고 보니 시즈가 명편 훈장을 드리며 엿즈오디 엎던 손  
임이 셜싱을 뵈와지라 ㅎ오니 청 ㅎ야 도리 오릿가 (철세계 2, 20세기 )
- 나. 양공조 | 공순이 디답 ㅎ야 글 ՞디 쇼동이 발셔 셜싱쓰 뵈오령마는 공부 ㅎ  
 기에 겨를이 업 ㅅ와 이제야 뵈오니 죄송 ㅎ도소이다 (완월루 15, 20세기)
- 다. [저는] 빙모쥬 뵐을 씨부터 기가 막히여 싱각 아특 한심 ” … (전주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 52, 20세기)

20세기 자료는 문헌의 질과 양 두 측면에서 20세기의 언어 자료를 대표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표 6]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세기의 ‘뵙다’ 동사는 대격 격틀 구조가 여격 격틀 구조에 비하여 더 많이 쓰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그 결과 대격 격틀 구조의 쓰임새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18~19세기 사이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뵙다’의 목적어로 비인물 명사가 오는 ‘뵙다[觀]’의 예는 42건 관찰된다. 나는 비인물 명사의 종류는 19세기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17~20세기 한글 간찰에서 ‘하서(下書)’에 관해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된다. 한글 간찰 중 답장으로 쓰여진 것들은 상당수가 ‘보내 주신 소식을 잘 받아 읽었고, 이러저러하게 지내고 계시다니 안심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시작한다. 상투적인 시작 문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에는 ‘하셔 밧즈와 보옵고’와 같이 이 문구에 거의 대부분 ‘보옵다’가 사용된다. 그러나 19세기로 넘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어가면, 나이 많은 화자는 ‘보옵다’를 쓰고 젊은 화자는 ‘뵈옵다’를 쓰는 경향으로 나뉜다. 이어서 20세기에 들어서면 거의 모든 한글 간찰에서 ‘하셔 밧자와 뵈오니’와 같이 ‘뵙다’를 쓴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19~20세기에 있었던 ‘뵙다’ 동사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까지 여격 격틀 구조와 대격 격틀 구조가 활발히 사용되다가, 19~20세기를 거치면서 대격 격틀 구조가 사용되는 예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뵙다’가 대우하는 목적어로 실현될 수 있는 명사의 종류는 15~17세기까지 인물 명사에 한정되던 것이, 18세기 예 약간의 변화가 시작되어 19세기부터 비인물 명사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뵙다 [觀]’의 용법이 자리를 잡았다. 이 때 목적어 자리에 오는 비인물 명사는 편지, 글, 윗사람의 어떠한 모습, 그리고 얼굴 등으로 목록이 한정된다.

#### 4.5 소결

지금까지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격틀 구조를 중심으로 ‘뵙다’ 동사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의 자료에서 ‘뵙다’의 용례는 목적어가 대격 표지를 취하는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15세기 용례에서 ‘뵙다’가 대우하는 목적어는 인물로 한정되었다. 목적어가 인물 명사로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는 43 건의 예문에서 대격 격틀 구조가 쓰인 경우는 20건이었고, 여격 격틀 구조가 쓰인 경우는 4건이었다. 게다가 여격 격틀 구조가 쓰인 4건의 용례 중 3건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5세기 ‘뵙다’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15세기 ‘뵙다’는 주로 대격 격틀 구조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자료에서는 ‘뵙다’ 동사가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용례의 수가 늘어난다. 대우하는 목적어는 16세기 자료에서도 인물로 한정되어 나타났다. ‘뵙다’의 목적어가 인물 명사이며 분명한 용례 39건 중에서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경우는 15건,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경우는 19건이었다. 여격 격틀 구조의 비율이 상대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격 격틀 구조가 15~16세기 사이에 새로이 발생하여 자리를 잡은 구조임을 의미한다.

17세기 자료에서 ‘뵙다’ 동사의 특징은 16세기와 비슷했다. ‘뵙다’가 대우하는 목적어는 인물로 한정되었고, 여격 격틀 구조의 쓰임새가 꾸준히 유지되었다. 목적어가 인물 명사임이 분명한 46건의 용례 중에서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는 16건,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는 19건이었다. 다만 17세기 자료에서 격틀 구조의 상대적 분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17세기 자료를 구성하는 문헌의 양과 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볼 18~19세기 자료도 마찬가지로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이 시기의 자료에서 격틀 구조가 분포하는 비율은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직접적인 증거이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세기 자료에서 ‘뵙다’ 동사는 여격 격틀 구조가 대격 격틀 구조보다 더 활발히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우받는 목적어가 인물 명사임이 분명한 용례 73건 중에서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가 22건,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가 51건이었다. 격틀 구조 분포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변화하는 흐름을 보면, 여격 격틀 구조가 새로이 생겨나 활발히 쓰임새를 넓혀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18세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대우받는 목적어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의 용례에서 대우받는 목적어는 항상 인물로 나타났으며,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의 내용도 ‘만나다’에 가까웠다. 그런데 18세기 자료에서 ‘윗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목적어로 삼는 ‘뵙다’의 용례가 3건 확인된다. 이 3건의 용례에서 ‘뵙다’는 일방적인 시각적 인지를 뜻하는 ‘보다’에 가깝게 해석되고 있다. 새로운 용법이 추가된 것이다.

19세기 자료에서 ‘뵙다’ 동사는 대격 격틀 구조의 쓰임새가 상대적으로 다시 늘어난다. 대우받는 목적어가 인물 명사임이 분명한 용례 123건 중에서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가 59건,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가 60건이었다. 대우받는 목

#### 4. ‘뵙다’ 격틀 구조의 통시적 변화

적어 측면에서는 18세기에 생겨난 변화가 더욱 확대되었다. ‘윗사람의 어떠한 모습’ 뿐만 아니라 ‘편지’와 같은 무정물까지도 ‘뵙다’의 목적어로 쓰이는 용례가 관찰된다.

20세기 자료에서 ‘뵙다’ 동사는 여격 격틀 구조의 쓰임새가 줄어들고 대격 격틀 구조의 쓰임새가 늘어난다. 대우받는 목적어가 인물 명사인 용례 89건 중에서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는 54건,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한 경우는 16건이었다. 목적어에 관해서 보면,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인물 명사가 대부분인 가운데 ‘윗사람의 어떠한 모습’이나 ‘얼굴’, ‘편지’ 등 다양한 비인물 명사들이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예가 확인된다.

지금까지 15~20세기에 걸쳐 ‘뵙다’ 동사에 일어난 변화를 격틀 구조와 목적어로 나타나는 명사의 종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5장에서는 15~16세기 사이에 여격 격틀 구조가 생겨나는 변화를 단서로 삼아 ‘뵙다’ 동사가 지녔던 기원적 통사 구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 5.1 ‘뵙다’ 통사 구조의 분화

4장에서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가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겨 격틀 구조가 15~16세기 사이에 새로 생겨나서 퍼져나간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5세기보다 이전 시기의 ‘뵙다’ 동사는 목적어에 대격 표지가 결합하는 단일한 격틀 구조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15~16세기 사이에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영향을 받아 ‘뵙다’ 동사에 새로운 격틀 구조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통사 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오래된 구조가 새로운 구조로 완전히 대체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 이후로도 계속 쓰이면서 새로운 구조와 병존하게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대개 통시적으로 일어나는 언어 변화는 오래된 표현과 새로운 표현의 경쟁을 통해 실현된다. 특정 형태소를 구성하던 음성·음운적 실체의 쇠퇴 또는 대체, 기능이 비슷한 서로 다른 두 문법 형태소의 경쟁, 비슷한 맥락에서 문체 차원의 교체를 보이던 서로 다른 두 구문의 경쟁, 비슷한 의미를 지녔던 표현들 간의 경쟁 등 음성·음운·형태·통사·의미의 모든 측면에서 경쟁이 벌어진다. 이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사용 빈도에 따른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리하여 대개는 둘 중 생산성이 높은 표현이 살아남아 후대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뵙다’ 동사의 경우 오래된 표현인 대격 격틀 구조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19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동일한 대상이 통시적 변화를 겪으면서 대체되지 않고 두 가지로 분화한다면, 그 대상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적인 특징 또는 외적인 맥락이 존재했을 것

---

1 언어가 통시적으로 변화할 때 관찰되는 일반적인 양상과, 변화 과정에서 빈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Bybee(2001, 2007), Croft(2000)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이다. 이전 시기의 음소 하나가 주위 환경에 따라 후대에 서로 다른 두 음소로 바뀌어 나타나는 현상(phonemic split)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분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이다.

‘뵙다’ 동사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통사 구조의 분화이다. 통사 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격표지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15~16세기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에 관여하는 격표지 ‘-를’, ‘-씩’, ‘-의개’ 등은 모두 15세기부터 존재했고, 특히 많이 사용되는 ‘-를’과 ‘-씩’은 15세기 그 이전에도 사용되었던 격표지이다. 따라서 격표지의 변화가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15~16세기 ‘뵙다’ 동사가 사용되는 맥락은 ‘격식을 동반한 만남의 상황’으로 언제나 동일했으므로 사용 맥락의 확장으로 인하여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sup>2</sup> 그렇다면 15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 자체가 분화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5.2 ‘뵙다’ 동사와 재귀 사동 구조의 두 측면

‘뵙다’ 동사의 기원형에 대해, 김현주(2010)은 ‘보다’ 동사가 사동사로 파생되어 중간태적으로 쓰인 사역 구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15~16세기의 자료를 그 예로 제시하였다. 이 사역 구문의 통사 구조를 ‘재귀 사동 구조’라고 부르기로 하자. 재귀 사동 구조를 현대 한국어의 ‘보다’ 동사를 이용해 나타내면 다음의 (1)과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 (1) 현대 한국어로 옮긴 재귀 사동 구조의 ‘보다’

내가 선생님께 나를 보이다. ‘내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시도록 하다’

---

2 사용 맥락이 확장되어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는 Benveniste (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재귀 사동 구조를 취하여 쓰였다면, 사동사 ‘뵈다[示]’의 한 예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15세기의 사동사 ‘뵈다[示]’가 취했던 격틀·논항 구조와 ‘뵙다’ 동사의 구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2)는 사동사 ‘뵈다[示]’의 격틀·논항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sup>3</sup> (3)은 각각의 예이다.

### (2)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의 격틀 구조와 논항 구조

가. [사역주]-가<sub>NOM</sub> [피사역주]-률<sub>ACC</sub> [피동작주]<sub>ACC</sub><sup>4</sup>

나. [사역주]-가<sub>NOM</sub> [피사역주]-의거<sub>DAT</sub><sup>5</sup> [피동작주]<sub>ACC</sub>

### (3)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의 예

가. 내 이제 네게 奉羅懿手를 뵈노니 네 누니 불 제 무 속 미 分別候 누녀 아닌 누녀 (능엄경언해 1:55b, 15세기)

나. 卽時에 如來 金色 불 훌 드리우샤 輪手를 아래로 그르치샤 阿難을 뵈야  
니르샤디 네 이제 내이 毘陀羅手를 보라 正候녀 갓그녀 (능엄경언해 2:12a, 15세기)

(3가)는 사역주 ‘부처’가 피사역주 ‘너(아난)’에게 자기의 손을 보이는 사건이다. 피사역주가 ‘네게’로 나타나 여격 표지를 취했다. (3나)는 사역주 ‘여래’가 피사역주 ‘아난’에게 손으로 아래를 가리키는 동작을 취하여 그 손을 보이는 사건이다.

3 여기서는 ‘뵈다[示]’의 재귀 사동 구조가 15세기 문법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을 지녔을지 보기 위해 간략히 격틀 구조와 논항 구조만을 제시한다. 사동사 ‘뵈다[示]’의 통사적 특징은 5.4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4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에서 피동작주가 도구격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가 있다. 다만 용례가 매우 적으므로 여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음은 “乃至示現種種形相”의 언해인데, 사역주와 피사역주는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種種形相이 피동작주임은 분명하다.

種種액 形相으로 뵈야 나토매 니르러… (원각경언해 하1-1:60a)

5 15세기의 사동사 ‘뵈다[示]’의 용례에서 피사역주 논항이 취하는 여격 표지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로서 ‘-의거’를 든 것에 불과하다.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피사역주 ‘아난’이 ‘아난을’로 나타나 대격 표지를 취했다. 사역주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것과 피동작주가 대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3가~나) 모두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사동사일 때 지닐 수 있는 격틀 구조 및 논항 구조를 제시해 보면, 다음의 (4)와 같다. 의미역 안에 있는 아래첨자 ‘i, j’는 해당 논항이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한지 여부를 나타낸다. 논항을 둘러싼 소괄호는 해당 논항이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 15세기 ‘뵙다’가 재귀 사동 구조일 경우 취할 수 있는 격틀·논항 구조

가. [사역주<sub>i</sub>]-가<sub>NOM</sub> [피사역주<sub>j</sub>]-를<sub>ACC</sub> ([피동작주<sub>i</sub>]-를<sub>ACC</sub>)

나. [사역주<sub>i</sub>]-가<sub>NOM</sub> [피사역주<sub>j</sub>]-씌<sub>DAT</sub> ([피동작주<sub>i</sub>]-를<sub>ACC</sub>)

‘뵙다’ 동사가 재귀 사동 구조일 경우 아랫사람이 사역주로서 주어가 되면서 주격 표지를 취하며, 윗사람은 피사역주로서 목적어가 되면서 여격 또는 대격 표지를 취할 수 있다.<sup>6</sup> 또한 피동작주 논항은 사역주와 공지시를 갖는 논항, 즉 사역주인 아랫사람 자기 자신으로서 대격 또는 도구격 표지를 취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아예 생략될 수도 있다.<sup>7</sup> 앞서 4.2절에서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주로 (4가)와 같은 격틀 구조를 취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뵙다’ 동사의 15세기 용례를 (4가)와 같은 재귀 사동 구조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정말로 재귀 사동 구조의 사동사였는지 분석하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3장에서 지적했듯이,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는 후대에 피동 구조와 타동 구조의 두 가지로 분화했다. 15세기의 ‘뵙다’ 동사

6 비록 사동사 ‘뵈다[示]’의 피사역주가 여격 표지로 ‘-씌’를 취하는 용례가 15세기 자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4나)와 같은 구조가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7 15세기 문법에서 맥락상 주어진 논항은 무엇이든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문에서 피동작주와 사역주는 둘 중의 하나가 동일한 문장 안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생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가 재귀 사동 구조라고 가정했을 때, 이 구조가 피동과 타동의 양쪽으로 재분석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

재귀 사동 구조에서 나타나는 영향 관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역주가 피사역주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또 하나는 피사역주가 동작주로서 피동작주에게 미친 영향이다.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춰 보면 사역주 역시 동작주로 이해될 수 있다.<sup>8</sup> 피사역주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동작주가 된다.<sup>9</sup> 이 이중의 영향 관계를 (1)의 예문을 이용하여 나타내 보이면 다음의 (5)와 같다.

### (5) 재귀 사동 구조의 이중적 영향 관계

내가	선생님께	나를	보이다
가. [동작주]	[피동작주]		
나.	[동작주]	[피동작주]	

재귀 사동 구조의 ‘보다’ 구문에서 주어인 ‘나’는 동작주와 피동작주 양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목적어인 ‘선생님’ 역시 동작주와 피동작주 양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뵙다’ 동사에서는 아랫사람이 사건의 주도자가 되므로, 언제나 ‘나’가 주어로 실현된다. ‘나’를 주어로 하여, (5)의 논항 구조를 더 단순한 구조로 재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자. (5가)의 측면을 강조하면 타동 구조로 분석할 수 있고, (5나)의 측면을 강조하면 피동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귀 사동 구조의 사동사 ‘뵈다[示]’는 피동 구조와 타동 구조 양쪽으로 분화될 수 있는 논항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이 때문에 사동 구조는 일반적인 타동 구조보다 더 강한 타동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9 범언어적으로 피사역주가 피동작주처럼 대격 표지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Haspelmath and Müller-Bardey 2004). 피사역주가 대격 표지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5가)의 영향 관계가 격틀 구조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5.3 피동 구조 ‘뵈다’의 재귀 사동 기원

지금까지 재귀 사동 구조의 사동사 ‘뵈다[示]’가 피동 구조와 타동 구조로 발전할 내적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뵙다’ 동사의 기원형은 재귀 사동 구조의 사동사임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자료에서 찾아서 제시하기로 한다.

한국어의 피동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에서 기원한다는 가설이 있다(이향천 1991). 만약 피동사 ‘뵈다[見]’가 재귀 사동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접사의 기능이 기원적으로는 사동 파생 하나였을 것이다. 이 가설이 옳다면, ‘뵙다’ 동사가 사동사 ‘뵈다[示]’가 재귀 사동 구조를 취하여 쓰인 용법에서 출발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동사의 피동사 ‘뵈다[見]’에 관해 이 가설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향천(1991)은 피동의 의미와 기원을 탐구하면서, 의미 차원에서 논리적인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나아가서 국어의 초창기에는 파생을 통한 피동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파생을 통한 사동사와, 사동 파생 전의 기본 동사의 대립만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하여 피동사는 중간태, 즉 사동사의 재귀적 사용에서 나왔다고 한다. 다음 (6)의 예를 보면 순이가 돌이로 하여금 순이 자신을 잡게 하는 구문이 형성되고, 이것이 재분석되면서 피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

10 간혹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등의 예문을 들면서, 도둑이 경찰로 하여금 자신을 잡게 하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피동이 사동사의 재귀적 용법에서 출현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동 파생은 의미 측면에서 사역주의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사이의 차이가 있다. 간접적 개입의 의미는 여러 언어에서 조력(assistive)이나 허용(permissive)의 의미로 발전하곤 한다(Haspelmath and Müller-Bardey 2004: 1138). 즉,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문장은 도둑이 도망치는 데 실패하거나 덜미를 잡힐 만한 실수를 해서 경찰이 자신을 잡도록 허용하고 말았다는 의미가 된다.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6) 이향천(1991)에서 제시된 피동 개념의 형성 단계

- 가. 순이가 돌이에게 순이를 잡히었다.
- 나. 순이가 돌이에게 자기를 잡히었다.
- 다. 순이가 돌이에게 (자기)를 잡히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6다)에서 주어와 지시 대상이 일치하는 피동작주를 생략하고 사동 파생 전의 ‘잡다’ 구문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7)과 같다.

(7) 기본 동사와 재귀적 용법으로 쓰인 사동 파생 동사의 비교(이향천 1991:160)

- 가. 돌이가 순이를 잡았다.
- 나. 순이가 돌이에게 잡히었다.

(7가)와 (7나)의 대립은 격틀 구조 측면에서는 타동 구조와 피동 구조의 대립과 다를 바가 없다. ‘잡다’ 동사의 타동 구조와, ‘잡다’의 피동 파생 동사인 ‘잡히다’의 예문을 들면 다음의 (8)과 같다.

(8) 기본 동사와 피동 파생 동사의 비교

- 가. 돌이가 순이를 잡았다.
- 나. 순이가 돌이에게 잡히었다.

즉, (7나)의 재귀 사동 구조와 (8나)의 피동 구조는 격틀 구조가 서로 같으며, 2.2 절에서 분석한 한국어의 문법 관계에 비추어 보면 문법 관계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이 두 통사 구조의 차이는 의미역 조합 및 생략된 논항의 유무, 즉 논항 구조에서 나온다.

이향천(1991)은 이렇게 재귀적으로 쓰인 사동사에서, 순이가 지니는 피동작주로서의 측면에 주의가 쏠리고 사역주로서의 측면이 약화되면 마침내 피동문이 된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실제로 실현된 문장에서 ‘순이’의 의미역은 사역주가 아니라 피동작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7나)의 재귀 사동 구조처럼 피동작주 논항이 생략된 구문이 반복하여 쓰이다 보면 그러한 재분석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사동 파생 접사 ‘-이-’에서 피동 파생 접사 ‘-이-’가 출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달한 것인지 실증적 자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동 파생 전체에 대하여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피동사 ‘뵈다[見]’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5세기 문헌에서 ‘뵈-’ 어간을 검색해 보면, ‘뵙다’ 동사와 사동사 ‘뵈다[示]’, 피동사 ‘뵈다[見]’의 용례가 뒤섞여 있다. 맥락을 살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분류해야 하는데, 사동사 ‘뵈다[示]’인지 피동사 ‘뵈다[見]’인지 판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예를 들면 (9)의 예문과 같다.

### (9) 사동사 ‘뵈다[示]’와 피동사 ‘뵈다[見]’ 양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

가. 그<sup>백</sup> 普賢菩薩이 부텨<sup>식</sup> 솔<sup>부</sup>샤<sup>디</sup> … 이 사<sup>르</sup>미 든니거나 셔거나 ھ야셔  
이 經을 날거 외오거든 내<sup>고</sup> 그저<sup>그</sup> 六牙白象王 ㅌ고 굴근 菩薩衆과로 그  
고대 가 모<sup>를</sup> 뵈<sup>여</sup> 供養<sup>하</sup>야 딕<sup>하</sup>야 護持<sup>하</sup>야 모<sup>으</sup> 물 편안<sup>크</sup> 호리니 쪘 法  
華經 供養<sup>을</sup> 위흔 전치이다 (석보상절 21:52a~b, 15세기)

나. 이 藥師瑠璃光如來へ 일후를 듣<sup>조</sup>부<sup>면</sup> 모<sup>딘</sup> 힝<sup>뎌</sup>글 부<sup>리</sup>고 도<sup>훈</sup> 法<sup>법</sup>을  
당<sup>가</sup> 惡趣<sup>예</sup> 아니 디리니 비록 모<sup>딘</sup> 힝<sup>뎌</sup> 부<sup>리</sup>고 도<sup>훈</sup> 法<sup>닦</sup>고<sup>물</sup> 몬<sup>하</sup>야  
惡趣<sup>예</sup> 떠<sup>려</sup>디고도 며 如來へ 本願威力으로 [약사유리광여래가] 악취에  
떨어진 이의] 알피 뵈<sup>샤</sup> 일후를 잡간 들이시면 … (석보상절 09:14b~15a,  
15세기)

(9가~나)의 예문에서 ‘뵈다’는 ‘보살이 사람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을 가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리킨다. (9가)의 ‘뵈다’는 ‘몸’이라는 목적어가 분명히 나와 있어 사동사로 보인다. 그러나 (9나)의 ‘뵈다’는 아무런 목적어가 없어 피동사로 보인다. 즉, (9)에서 서술된 ‘보살이 불자의 앞에 나타나는 상황’은 사동사 ‘뵈다[示]’와 피동사 ‘뵈다[見]’ 중 어느 쪽을 사용하더라도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9가)에서 목적어인 ‘몸’이 주어인 ‘나(보현보살)’와 공지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9가)와 같은 예문 이야기로 앞서 본 (6나)의 과정에 대응한다. 즉, (9가) 유형의 예문은 사동사 ‘뵈다[示]’가 재귀적으로 사용된 용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10)은 재귀적 용법의 사동사 ‘뵈다[示]’와 피동사 ‘뵈다[見]’의 구문 유형을 15세기 문헌에서 추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10가~라)의 예문은 동사가 표상하는 시선의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주어를 향하고 있으므로, 주어로 나타난 참가자가 실질적으로는 피동작주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 (10) 15세기 재귀적 용법의 사동사 ‘뵈다[示]’와, 피동사 ‘뵈다[見]’ 용례의 유형

- 가. ‘뵈다’의 목적어가 ‘몸’, ‘목숨’ 등 주어와 동일시될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맥락상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은 그 목적어가 다른 이의 시선에 노출되는 사건인 경우. 재귀적 사동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뵈다’가 ‘~하여 뵈다’ 구성으로 쓰여서,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 목적어가 생략된 재귀 사동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뵈다’의 주어가 사람 명사이지만, 맥락을 보고 판단했을 때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이 주어가 시선에 노출되는 사건인 경우. 사람을 주어로 하는 피동 구문이다.
- 라. ‘뵈다’의 주어가 사물명사인 경우. 사물을 주어로 하는 피동 구문이다.

만약 (10가~나)와 같은 재귀적 구문이 많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피동사 ‘뵈다[見]’에 한해서는 이향천(1991)이 주장한 피동 구문의 발생 과정이 단순히 논리적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과정이었을 가능성의 크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후로는 (10가~라)의 유형에 해당하는 예는 모두 피동사 ‘뵈다[見]’의 예로 분류하기로 한다. 15세기 피동사 ‘뵈다[見]’의 분포를 (10)에서 제시한 각 유형에 따라 나눠보면 [표 7]과 같다.

[표 7] 15세기 피동사 ‘뵈다[見]’의 구문 분포

사람주어+ 주어와 동일시 가능한 목적어+뵈다	사람주어+ ~하여 + 뵈다	사람주어+ 뵈다	사물 주어+ 뵈다	합
13건	12건	23건	38건	86건

15~16세기 국어에서 피동사 ‘뵈다[見]’는 86건으로 집계되는데, 이것은 811건 집계되는 사동사 ‘뵈다[示]’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이는 피동사 ‘뵈다[見]’가 사동사 ‘뵈다[示]’에 비해 후대에 발생한 구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sup>11</sup> 사물을 주어로 하는 피동사 ‘뵈다[見]’의 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므로, 피동 파생이 이 시기에 이미 문법적 범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0가) 유형의 재귀적 사동 구문 13건이 함께 나타나므로, 사동사 ‘뵈다[示]’가 재귀적으로 쓰여 주어가 시각적 인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10나) 유형의 목적어가 생략된 재귀 사동 구문이 12건 관찰되므로, 재귀 사동 구조에서

11 참고 삼아 16세기 자료를 보면, 피동사 '뵈다[見]'가 6건 나타난다. 이 자료들은 유경 언해가 대부분인데, 불경 언해와 달리 '뵈다[見]'라는 단어가 쓰일 맥락이 많지 않았던 듯하다. (6가)처럼 재귀적 사동으로 분석되는 구문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15세기에 관찰되는 (6가) 유형의 사례 13건이 일종의 흔적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머지 유형에 대해 16세기에 관찰된 용례 수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 주어+~하여 + 뵈다 : 2건	사람 주어+뵈다 : 3건
사물 주어+뵈다 : 1건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재귀적으로 쓰인 목적어를 생략하는 용법이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각 유형의 예를 들면 다음의 (11)과 같다.

### (11) 15세기 피동사 ‘뵈다[見]’의 구문별 사례

가. 사람 주어 + 주어와 동일시되는 목적어 + 뵈다

그때 普賢菩薩이 부여씩 술 볶샤디 … 이 사르미 듣니거나 셔거나 ㅎ야셔  
이 經을 널거 외오거든 낸 그저그 六牙白象王 퉁고 굴근 菩薩衆과로 그  
고대 가 모를 뵈여 供養하야 딕하야 護持하야 무수 물 편안크 호리니 쪼 法  
華經 供養을 위흔 전치이다 (석보상절 21:52a~b, 15세기)

나. 사람 주어 + ~하여 + 뵈다

모단 노미 그 比丘를 자바 기름 브슨 가마애 녀코 브를 오래 딛다가 둑게  
를 여러 보니 比丘 | 蓮 곳 우희 안자 잇거늘 … 比丘 | 虛空에 올아 種  
種 變化하야 뵈오 倭를 지서 널오디 내 부enty 弟子 | 로니 諸漏 업수를 得  
하야 죽사릿 큰 저푸를 이제 다 벼서나이다 (석보상절 24:16a~b, 15세기)

다. 사람 주어 + 뵈다

이] 藥師瑠璃光如來へ 일후를 듣즈부면 모단 힝여글 ㅂ리고 도훈 法법을  
닦가 惡趣예 아니 디리니 비록 모단 힝역 ㅂ리고 도훈 法 닦고물 몯하야  
惡趣예 떠러디고도 데 如來へ 本願威力으로 [약사유리광여래가 악취에  
떨어진 이의] 알피 뵐사 일후를 잖간 들이시면 … (석보상절 09:14b~15a,  
15세기)

라. 사물 주어 + 뵈다

그때 婆羅門이 波羅奈國 ㅋ새 다드루니 … 흰 므지게 나지여 바미여 長常  
뵈오 벼리 뿐듣고 그 나라햇 시미며 모시며 고지며 果實들히 다 이울며 여  
워더라 (월인석보 20:33b~34a, 15세기)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피동사 ‘뵈다[見]’는 사동사 ‘뵈다[示]’의 재귀적 쓰임에서 기원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뵙다’ 동사의 기원형 역시 재귀 사동 구조의 사동사 ‘뵈다[示]’라고 확신할 수 있다. 또한 ‘뵙다’ 동사의 피동사 용법이 생겨난 원인은 사동사 ‘뵈다[示]’가 재분석을 거쳐 피동사 ‘뵈다[見]’가 발달한 것처럼 이 재분석이 ‘뵈다[謁=示]’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여, 15세기의 ‘뵙다’ 동사가 어떻게 사동사로 분석될 수 있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 5.4 사동 구조 ‘뵈다’의 통사적 특징

사동사 ‘뵈다[示]’의 통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사동 파생 일반에서 관찰되는 문법 관계 및 격표지와 관련된 특징을 논의하기로 한다. 사동 파생은 기존의 동작주보다 더 강력한 동작주를 사건에 도입하는 파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 도입된 논항이 주어의 위치와 주격 표지를 가져간다. 파생되기 전에 동작주였던 논항은 필연적으로 배경화를 겪고 주어가 아닌 다른 문법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범언어적으로 보면, 배경화의 정도에서도 세 단계가 관찰된다. 첫째, 사역주의 영향을 받는 피동작주의 측면을 강조하여 또 하나의 직접목적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사건에서 수행되는 동작의 주체로서 사건에 어느 정도 주도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간접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사역주가 동작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사역주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도구에 관련된 구문으로<sup>12</sup>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Haspelmath & Müller-Bardey 2004:1137).

12 세 번째의 ‘도구’ 유형은 ‘뵈다[示]’와 관련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세국어의 일반적 장형 사동 구문에서 관찰된다. 법화경에서 가져온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舍利弗아 엇데 일후미 諸佛世尊이 오직 一大事 因緣 選초로 世間애 나 現乎 삼고  
諸佛世尊이 衆生으로 부텨 知見을 여러 清淨을 得게 코져 ھ실씨 世間애 나  
現乎 시며 衆生이게 부텨 知見을 뵈오져 ھ실씨 世間애 나 現乎 시며 衆生으로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5.2절에서 잠깐 보았듯이, 15세기의 사동사 ‘뵈다[示]’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유형이 같이 나타난다. 이를 격틀 구조와 의미 구조를 합쳐서 다시 나타내면 (12) 와 같다.

### (12)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의 격틀·논항 구조

가. [사역주]<sub>NOM</sub> + [피사역주]<sub>ACC</sub> + [피동작주]<sub>ACC</sub> + 뵈다

나. [사역주]<sub>NOM</sub> + [피사역주]<sub>DAT</sub> + [피동작주]<sub>ACC</sub> + 뵈다

이제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의 통사 구조에서 (12가)와 (12나) 중 어느 쪽이 더 전형적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 관찰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동사 ‘뵈다[示]’를 ‘뵈다[謁]’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사역주가 생략되지 않고 인물 명사로 실현된 경우만을 모아서 격표지에 따라 분류하였다.<sup>13</sup> 다만 많은 예문에서 ‘뵈다[示]’가 ‘알게 하다’, ‘[진리]를 깨우치다’ 등으로 그 뜻이 이미 전환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사역성이 유지될 때가 있는데, 피사역

---

부텨 知見을 알에 코져 ھ실씨 世間애 나 現ھ시며 衆生 으로 부텨 知見道애

들에 코져 ھ실씨 世間애 나 現ھ시누니라 (법화경언해 1:179a~179b, 1463)

‘뵈다[示]’에 속하는 ‘뵈오져’의 피사역주는 여격 표지 ‘-이[게]’를 취했지만, 그 외의 장형사 동 구문들에서 피사역주는 모두 도구격 표지 ‘-으[로]’를 취했다. 이는 ‘뵈다[示]’라는 사동사가 그 피사역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사동 구문에 비해서 더 강한 것으로 분류되었음을 시사한다.

13 인물 명사로 실현되었더라도 ‘위하여’와 ‘드려’가 나타난 경우는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15 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용례에서는 이들이 아직 동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그<sup>의</sup> 釋迦牟尼佛이 文殊師利씩 니<sup>르</sup>샤디 이 久滅度多寶如來 너희 위호야  
그 양조를 뵈시리라 (석보상절 20:39b~41a, 1447)

나. 부텨 쏘 難陘 드려다가 地獄을 뵈시니 … (월인석보 7:12b~13a, 1459)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주 논항이 생략되지 않고 나타나 있으면 이들도 격표지 분포를 관찰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15세기 자료에서 ‘뵈다[示]’ 동사의 예는 811건 관찰된다. 이 중에서 피사역주 논항이 생략된 예는 672건이고<sup>14</sup> 이 논문에서 고려하는 ‘인물명사+격표지’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62건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77건을 분류하여 사동사 ‘뵈다[示]’의 피사역주가 취하는 격표지의 분포를 보이면 [표 8]과 같다.<sup>15</sup> (13)은 각각의 예이다.

[표 8] 15세기 ‘뵈다[示]’ 동사의 피사역주 논항이 취하는 격표지의 분포

대격	여격	격표지 생략	합
47건	13건	18건	78건

(13) 15세기 ‘뵈다[示]’의 피사역주가 인물 명사로 나타난 예와 그 격표지

가. 여격

내 이제 네게 兜羅縵手를 뵈노니 네 누니 불 제 모 쓰 미 分別호 누녀 아닌  
누녀 (능엄경언해 1:55b, 15세기)

나. 대격

即時예 如來 金色 불 훌 드리우샤 輪手를 아래로 그르치샤 阿難을 뵈야

14 생략된 피사역주는 대부분이 ‘중생’이다. 15세기 문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불경언해류에서 ‘뵈다[示]’는 가르쳐 보일 때에 많이 쓰인다. 따라서 피사역주가 중생이라는 것이 맥락상 현저하다 보니 생략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5 피동사 ‘뵈다[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동사 ‘뵈다[示]’ 또한 16세기 자료에서 관찰되는 예가 드물다. 이들은 16세기 자료에서 전체 54건이 출현하는데 피사역주 논항이 아예 생략된 경우가 39건이다. 피사역주 논항이 사람으로 나타난 경우의 격표지 분포는 다음과 같다.

여격	:	2건	대격	:	7건	무표지	:	4건
----	---	----	----	---	----	-----	---	----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나른샤디 네 이제 내이 母陀羅手를 보라 正흐녀 갓?녀 (능엄경언해  
2:12a, 15세기)

### 다. 격표지 생략

阿難이 솔오디 … [부처가] 다수 輸指스 그틀 구펴 주여 사흘 뵈실씨 이런  
드로 주머귓 相이 겨시더이다 (능엄경언해 1:98a-98b, 15세기)

‘뵈다[示]’의 피사역주가 되는 인물 명사는 대격 표지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16</sup> 그런데 이 격표지 분포를 자세히 보면, 15세기 ‘뵙다’ 동사의 대우받는 논향이 취하는 격표지의 분포와 경향이 비슷하다. 다음의 [표 9]는 15세기 ‘뵙다’ 동사의 용례에서 대우받는 논향이 취한 격표지와, 사동사 ‘뵈다[示]’의 용례에서 피사역주 논향이 취하는 격표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 9] 15세기 ‘뵙다’ 동사의 대우받는 논향과 사동사 ‘뵈다[示]’의 피사역주 논  
향이 취하는 격표지 분포의 비교

	대격	여격	격표지 생략	합
‘뵈다[示]’의 피사역주 논향	47건 (61%)	13건 (16%)	18건 (23%)	78건 (100%)
‘뵙다’의 대우받는 논향	20건 (48%)	4건 (7%)	19건 (45%)	43건 (100%)

사동사 ‘뵈다[示]’의 격틀 구조에서 피동작주 논향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사동사 ‘뵈다[示]’와 ‘뵙다’ 동사가 취하는 격틀 구조가 분포하는 경향이 거의 같다. 따라서 15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재귀 사동 구조로 분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16 대부분의 문헌에서 여격보다 대격 표지가 더 많이 관찰되는데, 『법화경언해』(1463)는 여격이 6건, 대격이 1건 격표지 생략이 3건으로 비율이 정반대이다. 마치 언해자가 의도적으로 여격을 더 좋은 번역이라고 보고 언해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것이다. 또한 15세기 사동사 ‘뵈다[示]’의 피사역주가 명사로 실현될 경우 대부분이 인물 명사로 한정되는데, 이것은 15세기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인물 명사로 한정되는 현상과 같다.

### 5.5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와 피동 구조의 ‘뵙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뵙다’ 동사의 기원적 통사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후대에 관찰되는 ‘뵙다’ 동사의 피동사 용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5.3절에서 보았듯이, 재귀 사동 구조는 재분석을 거쳐 피동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재귀 사동 구조로 쓰인 사동사 ‘뵈다[示]’에서 피동사 ‘뵈다[見]’가 발달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에서 피동 구조의 ‘뵙다’가 발달해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세기에 새로이 발생한 여격 격틀 구조는 재귀 사동 구조가 피동 구조로 재분석되는 변화에 대응하여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사동사 ‘뵈다[示]’를 보면, 피사역주 논항은 여격 표지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16세기 자료에서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뵙다’ 동사의 용례 역시, 피사역주 논항이 여격 표지를 취하는 재귀 사동 구조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용례를 재귀 사동 구조로 분석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로, 16세기 이후 격틀 구조의 분포가 변화하는 경향에서 사동사 ‘뵈다[示]’와 ‘뵙다’ 동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4장에서 보았듯이 ‘뵙다’ 동사는 16~18세기에 걸쳐 여격 격틀 구조의 쓰임새가 꾸준히 증가하여, 18세기에 이르면 대격 격틀 구조보다 여격 격틀 구조가 훨씬 선호되었다. 그러나 같은 말뭉치에서 사동사 ‘뵈다[示]’의 격틀 구조가 분포하는 양상을 조사해 보면, ‘뵙다’와 달리 꾸준히 대격 격틀 구조가 선호되었다. 16세기의 사동사 ‘뵈다[示]’는 용례 수가 매우 적으므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로 제외하고, 17~18세기의 문헌 자료에서 사동사 ‘뵈다[示]’가 취하는 격틀 구조의 분포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17~18세기 사동사 ‘뵈다[示]’의 격틀 구조 분포

‘뵈다[示]’	대격 격틀 구조	여격 격틀 구조	기타	합
17세기	11건	3건	10건	24건
18세기	34건	12건	13건	59건

17~18세기의 자료에서 사동사 ‘뵈다[示]’는 ‘뵙다’와 달리 여격 격틀 구조의 용례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17~18세기의 자료에서 여격 격틀 구조로 쓰인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가 아님을 시사한다. 만약 17~18세기 ‘뵙다’ 동사의 여격 격틀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에 대응한다면, 이는 17~18세기의 사동 구조에서 피사역주 논항이 여격을 취하는 것이 선호되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표 10]을 보면 17~18세기의 사동사 ‘뵈다[示]’는 피사역주 논항의 격표지로 대격을 선호하였다. ‘뵙다’와 ‘뵈다[示]’의 용례를 추출한 말뭉치는 동일하므로, 만약 17~18세기의 자료에서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여전히 재귀 사동 구조로서 사동사 ‘뵈다[示]’의 한 종류에 속한다면, 격틀 구조의 분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17~18세기의 자료에서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는 재귀 사동 구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두 번째 문제는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20세기 전반기에 피동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15세기 이후 한국어의 사·피동 파생 방법의 변화를 연구한 강명순(2001, 2007)에 따르면, 접사 결합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사동사와 피동사를 파생시키는 파생법이 15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즉, ‘뵈다[示]’와 ‘뵈다[見]’처럼 형태가 동일한 사동사와 피동사의 쌍이 활발히 만들어졌으며, 한국어 화자들은 사동사와 피동사를 맥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락에 따라 구분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서 맥락이란 동사의 논항과, 논항이 취하는 격표지 등을 의미한다. 만약 여격 격틀 구조에 대응하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라고 한다면, 이것이 피동 구조로 재분석된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위의 두 가지를 합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17~18세기 자료에서 여격 격틀 구조에 대응하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는 재귀 사동 구조가 아니었다. 둘, 15세기 이후 한국어 화자들은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셋, 20세기 전반기에 여격 격틀 구조에 대응하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는 피동 구조로 인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는 17~18세기에도 피동 구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사동사 ‘뵈다[示]’가 17~18세기까지도 꾸준히 대격 격틀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띠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동사 ‘뵈다[示]’가 15세기와 17~18세기의 두 시기에 대격 격틀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그 사이에 있는 16세기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3장에서 보았듯이, ‘뵙다’ 동사의 경우 여격 격틀 구조의 쓰임새가 16세기부터 늘어난다. 이러한 경향의 차이는 16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16세기 ‘뵙다’ 동사에서 여격 격틀 구조가 새로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 문제가 있다. 여격 격틀 구조로 실현되는 16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여전히 재귀 사동 구조라면, 이 동사의 통사 구조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논항 구조, 문법 관계, 각 논항과 문법 관계의 대응이라는 세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동사의 격틀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보다는 ‘뵙다’ 동사의 논항 구조가 재분석되면서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피동 구조가 추가되었고, 이 변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격틀 구조가 생겨났다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0세기의 ‘뵙다’ 동사에서 피동 구조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었으므로, 어느 시기에 재귀 사동 구조가 피동 구조로 재분석되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명하다. 이렇게 논항 구조가 재분석되는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어서 알 길이 없지만, 달라진 논항 구조에 대응하는 여격 격틀 구조가 생겨난 시기는 15~16세기 사이가 분명하다. 달리 고려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격틀 구조가 변화하기 전에 논항 구조가 재분석되는 변화가 먼저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6세기의 여격 격틀 구조에 대응하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재귀 사동 구조로 분석한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일관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피동 구조로 분석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는 통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여격 격틀을 취한 16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피동 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 5.6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뵙다’ 동사는 ‘보다’ 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가 재귀 사동 구조를 취하여 쓰이면서 발달한 동사이다. 15세기 자료에서는 사동사 ‘뵈다[示]’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므로, 사동사 ‘뵈다[示]’의 특수한 용례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는 통사 구조가 재분석되면서 재귀 사동 구조와 피동 구조로 분화된다. ‘뵙다’에 새로이 추가된 피동 구조에 대응하여 여격 격틀 구조가 생겨났으며, 16세기부터 이 여격 격틀 구조가 쓰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 역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되었다.<sup>17</sup> 16세기 자료에서

---

<sup>17</sup> 피동 구조로 전부 교체되지 않고 기존의 통사 구조가 존속하게 된 원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사동 구조의 영향이 컸다. 둘째, ‘뵙다’가 대우 어휘이기 때문에 사용 맥락이 보수적이어서 변화가 더뎠다.

## 5.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와 재귀 사동성

재귀 사동 구조에 대응하는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한 용례와, 피동 구조에 대응하는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용례가 모두 관찰된다.

그런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일어난 변화가 15~16세기에 일어난 이 문화 뿐만은 아니다. 이 장에서 ‘뵙다’ 동사의 기원이 사동사 ‘뵈다[示]’임을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뵙다’ 동사의 목적어는 그 의미역이 피사역주로 출발했으므로, 인물이 아닌 명사는 마땅히 오지 못한다. 사물이나 추상명사가 시각적 인지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사동사 ‘뵈다[示]’의 피사역주 역할을 맡는 참가자는 인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비인물 명사가 오는 현상이 18세기부터 관찰되기 시작하고 19~20세기에는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는 ‘뵙다[觀]’의 용법이 소수이나마 자리를 잡는다. 이것은 ‘뵙다’ 목적어의 의미역을 더 이상 피사역주로 한정할 수 없게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화의 결과 등장한 것이 현대 한국어의 ‘뵙다’가 취하는 타동 구조이다. 6장에서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일어난 변화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면서, 이 의미역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 6.1 ‘뵙다’ 동사의 목적어 논항 종류와 통사 구조 변화

6장에서는 시기별로 ‘뵙다’ 동사의 목적어 논항의 의미역을 분석하여 논항 구조를 밝히고, 이것을 해당 시기에 있었던 격틀 구조와 조합하여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변화해 온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16세기에 새로이 득세하기 시작한 여격 격틀 구조가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6장에서는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18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비인물 명사들을 중요한 단서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겠다. ‘뵙다’ 동사의 격틀 구조 분포만으로는 5장에서 논의한 것 이상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장에서 보았듯이 18세기 문헌에서는 여격 격틀 구조가 대격 격틀 구조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는데, 19세기 문헌에서는 두 구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20세기 문헌에서는 대격 격틀 구조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분포 비율 변화를 보고 18~19세기 사이에 통사 구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포 비율 변화가 곧 18~19세기 사이에 통사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4장의 통계에서 사용한 말뭉치에서, 17~19세기의 자료는 문헌의 질과 양 두 측면에서 충분히 정련된 것이 아니다. 혹시 자료의 편중 때문에 왜곡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다른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sup> 4장에서 정리한 자료 중에서 17~19세기에 걸친 두 격틀 구조의 분포 비율은 두 격틀 구조가 17세기 이후에도 모두 꾸준히 사용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1 특정 구문이 나타나는 비율의 변화를 논거로 삼아 문법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려면, 그 분포 비율의 계산에 사용한 문헌들이 당대의 언어 자료를 대표하는 표본이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말뭉치가 시기별로 자료의 양이 불균형하다는 점에서, 17~19세기 문헌들의 절대적 시기가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사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4장의 통계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이다. 따라서 이 분포 비율의 변화가 정말로 문법에 일어난 통시적 변화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16세기 여겨 격틀 구조의 출현처럼,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구문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자료의 양과 관계없이 언어 변화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미 4장에서 보았듯이, 18세기 이후에 새로이 나타난 구문이 있다. 바로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비인물 명사가 오는 구문이다. 따라서 ‘뵙다’의 목적어로 오는 명사의 종류를 주된 논거로 삼아 ‘뵙다’ 동사가 겪은 통시적 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sup>2</sup> 이하의 각 절에서 15세기 이전, 16~18세기, 19세기 이후로 나누어 ‘뵙다’의 통사 구조가 겪은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 6.2 기원~15세기: 재귀 사동 구조

5장에서 이미 ‘뵙다’의 기원적 통사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로 분석된다는 것과 이 재귀 사동 구조로서의 특징이 15세기 문헌들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15세기 ‘뵙다’ 동사의 목적어는 모두 인물 명사로서, 비인물 명사는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의 (1)과 같은 사례가 일견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는 예로 보일 수 있으나, 앞뒤 맥락을 보면 이들은 목상이나 그림을 살아 있는 사람을 대하듯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인물 명사로 다룰 수 없다.

#### (1) 15세기 ‘뵙다’ 동사에서 비인물이 인물로 취급된 사례

가. 丁蘭이 쳐며셔 어버지<sup>를</sup> 일코 남<sup>고</sup>로 어버지<sup>의</sup> 樣子<sup>를</sup> 링<sup>고</sup>라 사니 훈가지  
로 아침나죄 뵈더니 (삼강행실도 孝:10, 런던대 소장, 15세기)

나. 徐孝肅이 쳐며셔 아비 죽거늘 즈라아 아비<sup>의</sup> 樣子<sup>를</sup> 어미<sup>드</sup>려 무려 그려 廟

---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명사의 종류란 인물 명사와 비인물 명사의 구분이다. 장소 명사 종류는 여기서 논의하는 대상이 아니다.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애 두고 아침나죄 뵈며 朔望애 祭 旱더라 (삼강행실도 孝:26, 런던대 소장,  
15세기)

15세기 ‘보다[觀]’ 동사의 용례를 보면, 시각적 인지의 대상이 된 비인물 명사를 대우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객체 존대 어미 ‘-습-’이 결합한 ‘보습다’가 사용된다. 이 ‘보습다’는 객체로 인물 명사와 비인물 명사를 모두 취하기 때문에, ‘뵈다[謁]’와 구별되지 않을 때도 있다.<sup>3</sup> 그러나 ‘일방적인 시각적 인지’의 측면이 강조될 때 인물 명사를 대우하는 ‘보습다’가 쓰이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2~3)은 15세기 ‘보습다’가 인물 명사와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여 쓰인 예이다.<sup>4</sup> 특히 (2다)는 맥락상 ‘어느 때 부처가 있는 곳으로 가서 부처를 직접 보겠는가’ 하는 의미이므로 ‘뵙다’가 쓰일 수 있는 맥락에서 ‘보습다’가 쓰인 예이다.

#### (2) 15세기 인물 명사를 대우하여 쓰인 ‘보습다’의 예

가. 王이 左右 梵志를 브리샤 두루 가 어드라 旱시니 玉女 그튼시니를 보  
습고 와 술로디 執杖釋의 쪽니미 겨시더이다 (석보상절 3:11a, 15세기)

나. 太子 | 跋伽仙林에 가시니 데 수프레 잇는 … 여러 새돌히 太子를 보습고  
各各 이든 우루를 울며… (석보상절 3:32a~33a, 15세기)

다. 須達이 이 말 듣고 부텨고 發心을 니른와다 언제 새어든 부텨를 가 보스  
흘려뇨 旱더니… (석보상절 6:19a, 15세기)

3 3.1절에서 동일한 문헌의 동일한 내용이 판본에 따라 ‘보습다’와 ‘뵙다’로 교체되는 예를 보였다.

4 15세기 문헌에서 ‘보습다’가 쓰인 용례를 중심으로, 목적어가 인물 명사인 비율과 비인물 명사인 비율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양쪽 모두 예가 많기 때문에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더 전형적인 목적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예문만 제시해 둔다.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3) 15세기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여 쓰인 ‘보습다’의 예

가. 東都액 도조기 威武를 니기 아수방 二隊玄甲을 보습고 저호니 (용비어천  
가 59, 15세기)

나. [미륵보살이] 쪼 너기샤디 文殊師利는 法王へ 아드리라 디나거신 無量諸  
佛의 ھ마 親近히 供養 ھ ସ 방 이실씨 당다이 의련 希有 ھ 相을 보습방 잇  
느니 내 이제 무로리라 (석보상절 13:15a~15b, 15세기)

다. 그의 日月淨明德佛이 … 방 中 後에 涅槃애 들어시늘 그저그 一切衆生 喜  
見菩薩이 부덧 滅度를 보습고 슬허 설밝… (석보상절 20:15b~17b, 15세  
기)

(2가)에서는 왕이 보낸 ‘좌우 범지’가 ‘한 옥녀 같으신 이’를 보고 돌아가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여성은 공주인데, 신하인 좌우 범지가 공주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존재를 인지하고 돌아가는 사건이다. 따라서 ‘보습다 [觀]’의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2나)는 ‘동도에 (일어난) 도둑이 (당 태종의) 위엄과 무력을 익히 알고 두 대의 검은 갑옷을 보고 두려워하니’로 해석되는데, 두 대의 검은 갑옷은 당 태종과 관련이 있는 사물이다. 사물을 대우한 ‘보습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2다)는 일월정명덕 부처가 열반에 들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멸도’를 보고서 슬퍼하는 내용이다. ‘부처가 열반에 드는 모습’을 대우하는 ‘보습다’의 예이다.

이를 바탕으로 15세기에 ‘보다’ 동사가 지녔던 객체 대우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보다[觀]’을 대우할 때 사용된 표현은 객체 존대 어미 ‘-습-’을 이용한 활용형 ‘보습다’이다. ‘만나다’의 의미로 쓰인 ‘보다[會]’의 경우, 만나는 대상이 주어보다 높은 사람으면 재귀 사동 구조를 이용한 객체 대우 표현 ‘뵙다’가 사용되었다.<sup>5</sup> 그러나 ‘보습다’ 역시 ‘만나다’를 의미하는 ‘보다[會]’의 객체 대우 표현

5 ‘뵙다’가 지시하는 사건은 ‘보습다’가 지시하는 사건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뵙다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므로, ‘보습다’가 ‘뵙다’보다 객체 대우 표현으로서 더 폭넓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15세기 '보다' 동사의 객체 대우 패러다임

평대 표현	객체 대우 표현
보다[觀]	보습다
보다[會]	뵙다[謁]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15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여간의 파생 정보까지 밝혀서 적으면 다음의 (4)와 같다. (5)와 같은 예문에서 15세기 ‘뵙다’ 동사의 재귀사동성을 엿볼 수 있다.

### (4) 15세기 ‘뵙다’의 어간 의미와 통사 구조

#### 재귀 사동 구조

[사역주아랫사람]<sub>NOM</sub> [피사역주윗사람]<sub>ACC</sub> ([피동작주아랫사람]) 뵈다[示]

### (5) 15세기 ‘뵙다’ 동사의 재귀사동성이 엿보이는 예문

그제 王이 보내시고 사흘 브려 金一百鎰을 더해야 가 보내여 마치신대 父母 놀라 두려 싯봇겨 오슬 더 니표려 ھ더니 女士 닐오디 이려트시 ھ야 王을 뵈우오면 양지 다루며 오시 ㄱ론디라 아라보디 몽ھ시리니 請훈둔 주거 도 가디 아니호리라<sup>6</sup> (내훈2 下:71a, 15세기)

<sup>6</sup> 가 쓰였을 경우 만남의 형식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 형식성은 16세기에서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16세기 『삼강행실도』에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다’를 의미하는 “朝夕定省”은 예외없이 ‘뵙다’로 옮겨진다.

6 이 일화는 『열녀전(列女傳)』에서 인용한 것이다. 권6 변통전(辯通傳)에 수록된 齊宿瘤女 편의 예문인데 제시한 부분의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於是王遣歸，使使者加金百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이 예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왕이 행차하던 길에 자기에게 엎드려 예를 표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일손을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를 보고서, 까닭을 물으니 부모님이 일을 멈추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한다. 왕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덕성이 있는 여인이라 여겨 궁에 맞아들이려 하는데, 부모가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보내려 하자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바뀐 모습을 하고 서 나타나면 얼굴이 다르고 옷이 다르니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며 거절하는 내용이다. ‘뵙다’가 ‘알현’의 의미와 ‘모습을 보여 줌’의 의미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중의적이다.

이 예가 암시하는 바를 살려 15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뵙다’는 재귀 사동 구조를 취하여 쓰인 사동사 ‘뵈다[示]’의 한 용례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뵙다’ 동사의 목적어로 오는 명사는 항상 인물 명사로 한정되는데, 이것은 이 논항의 의미역이 피사역주라는 데에서 생겨난 제약이다.

### 6.3 16~18세기: 재귀 사동 구조, 피동 구조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6세기 ‘뵙다’ 동사는 종래의 재귀 사동 구조 외에도 피동 구조가 추가되는 변화를 겪는다. 즉, ‘뵙다’ 동사는 16세기부터 두 가지 통사 구조에 대응하게 된다. 특히 ‘-의게’ 형 여격 표지를 취하는 ‘뵙다’의 용례는, 새로이 등장한 여격 표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개신형인 피동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씩’ 형 여격 표지를 취하는 경우는 ‘-의게’ 형보다 존대의 의미를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인물 명사로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15세기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16세기에는 ‘뵙다’의 목적어가 아직 동작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17세기의 문헌에서 찾아낸 ‘뵙다’ 동사의 예

---

鎰，往聘迎之，父母驚惶，欲洗沐，加衣裳，女曰：“如是見王，則變容更服，不見識也，請死不往”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에서는 16세기와 달라지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격틀 구조가 분포하는 경향은 물론이고 목적어가 인물 명사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16~17세기 사이에는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6)은 이 시기에 ‘뵙다’ 동사가 지녔던 두 통사 구조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 (6) 16~17세기 ‘뵙다’의 어간 의미와 통사 구조

#### 가. 재귀 사동 구조

[사역주아랫사람]<sub>NOM</sub> [피사역주윗사람]<sub>ACC</sub> ([피동작주아랫사람]) 뵈다[示]

#### 나. 피동 구조

[피동작주아랫사람]<sub>NOM</sub> [동작주윗사람]<sub>DAT</sub> 뵈다[見]

다음의 (7)은 16세기의 ‘뵙다’ 동사가 취했던 두 가지 통사 구조가 드러나는 예이다.

### (7) 16세기 ‘뵙다’의 통사 구조별 사례

#### 가. 재귀 사동 구조

원나랏 병매 담꺾를 터 성을 ㅎ마 아일 저그 윤곡이 두 아들 간 슨 려 ㅎ거  
눌 누미 낐오디 오누리 엇던 시절이완디 이런 오활흔 일 ㅎ눈다 ㅎ야눌 윤  
곡이 낐오디 아희들히 관디 ㅎ야 조양을 짜 아래 가 뵈습게 ㅎ노라 (삼강행  
실도 동경대 소장 忠:23a, 16세기)

#### 나. 피동 구조

석석이 세 설 머거셔 아비 죽거늘 아침마다 심히 슬피 어드며 즋라는 아침  
나죄 관디 ㅎ야 언의게 뵈더라 (삼강행실도 孝:28a, 동경대 소장, 16세기)

16세기의 예문 (7가)와 (7나)를 대비하여 보면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두 예문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은 모두 ‘관대한 모습으로 어른을 만나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 예문의 격틀 구조를 보면, (7가)에서는 ‘조상(조상)’에 대격 표지 ‘-을’이 결합했고 (7나)에서는 ‘어미(어머니)’에 여격 표지 ‘-의게’가 결합했다. 이것은 통사 구조의 차이에서 온 격틀 실현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7가)는 재귀 사동 구조로서 ‘조상’의 의미역이 피사역주이기 때문에 ‘조상’에 대격 표지가 나타났다. 반면에 (7나)는 피동 구조로서 ‘어미’의 의미역이 하강한 동작주이기 때문에 ‘어미’에 여격 표지가 나타났다.

17세기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는 16세기와 같다. 다음 (8)은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18세기 용례이다.

### (8) 17세기 ‘뵙다’의 통사 구조별 사례

#### 가. 재귀 사동 구조

冠호며 筍티 아닌 者」 고 불구며 널어 總角하고 碲面하고 뼈 尊長을 뵈며  
… 이의 冠호며 筍호면 다 成人흔 禮로써 責흘디라 (가례언해 2:26b-27a,  
17세기)

#### 나. 피동 구조

어마님이시며 내 일노 셜니 죽은 동침들 싱각하니 [나는] 이제 죽으면 텐  
하의 가도<sup>7</sup> 부형의게도 반가이 뵈디 못 헤여 붓그려온 넉시 외로이 돌거시  
니… (계축일기 下:21a, 17세기)

(8가)는 ‘관을 쓰거나 머리를 올리지 않은 자가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머리와 얼굴 단장을 한 모습으로 존장을 뵈며…’로 해석된다. 어른이 아랫사람의 단정한 모습을 보시게끔 하라는 맥락이므로 재귀 사동성이 잘 드러난다. (8나)는 ‘어머님이

7 이 부분은 ‘지하(地下)에 가도’가 ‘천하(天下)에 가도’로 잘못 적힌 것이 아닌가 싶다. 16세기 『번역소학』 이후로 ‘죽어 지하에 가 조상을 만난다’는 상투적인 문구가 한국어 역사 문헌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며 내 일로 서럽게 죽은 동생들 생각하니 (나는) 이제 죽으면 저승에 가도 부모 형제에게도 반가이 뵙지 못하여 부끄러운 넋이 외로이 돌 것이니’로 해석되는데, 부모 형제를 만나도 그들이 자기를 반가워하기보다는 원망할 것이라는 맥락이다. 즉, ‘반가이 뵙다’가 표상하는 사건에서 시각적 인지의 주체는 부모 형제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부모 형제를 하강한 동작주로 하는 피동 구조라고 할 수 있다.

5장에서 16세기의 ‘뵙다’ 동사가 취하는 피동 구조는 개신형이라고 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문헌이 있다. 바로 『소학언해』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소학언해』는 원래 1518년에 소학을 언해한 『번역소학』이 의역이 심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재번역을 하여 1587년에 다시 펴낸 것이다. 번역된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16세기 후반 자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초반 자료인 『번역소학』보다 더 보수적인 문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소학언해』에 ‘뵙다’ 동사가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하는 예가 없다. 이 문헌에서 ‘뵙다’ 동사가 인물 명사를 목적어로 취한 예는 8건인데, 8건 모두 목적어에 ‘-씩’ 표지가 결합했다. 반면 『번역소학』에서는 ‘-씩’ 3건, ‘-를’ 5건, 격표지 생략 3건으로 여격 격틀 구조와 대격 격틀 구조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소학언해』에서 ‘뵙다’ 동사의 목적어에 결합하는 격표지로 ‘-씩’가 많이 나타난 것은, ‘-씩’ 표지가 형태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객체 대우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인 듯하다. 재귀 사동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객체 대우의 의미가 인지적·개념적인 수준인 데 반해, 피동 구조에서 여격 표지를 ‘-씩’로 사용하면 형태적으로 객체 대우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점이 있다. 즉, 『소학언해』에서 사용된 ‘뵙다’ 동사의 예에서 여격 격틀 구조가 많이 나타난 것은 문법적인 인식이 아니라 문체적인 선호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의도적으로 고전 중국어 원문에 충실한 문체를 선택했던 『소학언해』보다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을 시도했던 『번역소학』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이 ‘뵙다’의 격틀 구조에 대한 당대 화자들의 인식을 더 잘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이제, 18세기의 통사 구조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여격 격틀 구조를 취한 ‘뵙다’의 용례가 다수 나타나기 때문에 피동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대격 격틀 구조를 취한 용례들 역시, 대격이 결합한 목적어가 인물 명사로 한정된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뵙다’가 쓰인 문장의 내용을 보면 ‘뵙다’의 의미가 ‘만나다’가 아니라 ‘보다[觀]’인 듯한 용례가 관찰된다. 이에 관하여 4.3절에서 제시한 예문 (10)을 다시 가져와 제시하면 (9)와 같다.

(9) 18세기에 새로 등장한, 비인물 논항을 대우하는 ‘뵙다[觀]’의 예

가. 슬프다 내 고로 훈 여싱으로 뻐 양금위명 흐기는 곳 주궁이시니 주궁이 디난  
그을 후로 브터 식음을 전혀 물니시고 테루를 양히 흘 나오시니 무양 훈 번  
우러러 뵈오매 심간이 블붓는 듯 훈디라 (속명의록언해 2:26a-b, 18세기)

나. 왕이 이러 특시 글 우 샤디 의흡다 우리 성조 광능죠겨오셔 무비로 대략을  
명 흐시고 문치로 태평을 일위셔 신기 흐신 공이 팔방의 넙하시며 너르신  
복이 만세의 덥하시니 오희라 창점의 즐기심과 흥벽의 금초심도 오히려  
다시 뵈옵는 듯 흐온 싱각이 잇거든…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 1a,  
18세기)

다. [擣] 큰한아바님 상수는 통곡 흐온 밧 무슨 말씀을 알외오리잇가 쉬이 가옵  
게 되여 소오니 다시 [擣]뵈올가 신기히 녀겨습더니 그사이 [隔]져리 되오  
실 줄 어이 싱각 흐여 소리잇가 면길 헉역 흐오신 췄히 쪽 째치오시니 오  
죽히 양 흐오시랴 [隔]뵈옵는 듯 굿브온 념녀 아므라타 업 소며… (은진  
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138, 18세기)

4.3절에서 이미 분석한 것처럼, (9가~다)는 모두 어른을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른의 어떠한 모습을 보는’ 사건을 가리킨다. 즉, ‘어른의 모습’이 ‘뵙다’ 사건에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서 객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례들은 ‘뵙다’ 목적어의 의미역이 피사역주에서 피동작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5~17세기 사이의 자료에서 ‘뵙다’ 동사가 취한 대격 목적어에 관련해, 이 논항의 의미역이 피사역주로 분석된 것은 ‘뵙다’ 동사의 기원적 사건 구조에 존재했던 상호 시각적 인지라는 특성 때문이었다. 3.1절에서 이것을 살펴보았다. ‘뵙다’의 객체가 인물일 경우, 주체가 해당 인물로 하여금 주체 자신을 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도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뵙다’의 객체가 인물이라면 이것을 피사역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객체가 ‘어른의 모습’이 되면 이것은 피사역주가 될 수 없다. ‘어른의 모습’은 시각적 인지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세기에서 관찰된 사례만으로는 이 비인물 명사가 어떤 격표지를 취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것이 피동 구조의 변화인지 재귀 사동 구조의 변화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 자료를 보면 이 비인물 명사들이 ‘뵙다[觀]’의 목적어로 나타날 때 대격 표지를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격 격틀 구조에 대응하는 재귀 사동 구조에서, ‘뵙다’의 목적어 의미역이 재해석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피사역주를 지닌 (10가)의 구조가 피동작주를 지닌 (10나)의 구조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 (10) 18세기 자료에서 관찰되는 ‘뵙다’의 목적어 의미역과 대격 격틀 구조

가. [사역주]<sub>NOM</sub> [피사역주]<sub>ACC</sub> ([피동작주]) 뵙다[示]

나. [동작주]<sub>NOM</sub> [피동작주]<sub>ACC</sub> 뵙다[謁/觀]

목적어 논항의 의미역이 피동작주라면 비인물 명사로 실현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10가)에서 (10나)로 바뀌는 변화의 핵심은 ‘뵙다’ 동사의 자릿값이다. 피동작주가 생략되는 용법이 꾸준히 반복된 결과 피동작주의 존재가 희미해지면서, ‘뵙다’의 자릿값이 (10가)의 세 자리에서 (10나)의 두 자리로 재분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이 자릿값 재분석의 동기는 ‘뵙다’의 또 다른 통사 구조인 피동 구조를 모델로 한 유추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16~17세기의 ‘뵙다’ 동사에서는 여격 격틀 구조가 피동 구조에, 대격 격틀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에 대응했다. 그런데 18세기 ‘뵙다’ 동사의 용례를 보면 여격 격틀 구조로 쓰이는 경우가 매우 활발하다. 예를 들어 『무목왕정총록』은 한 문헌 안에서 여격 격틀 구조가 26건, 대격 격틀 구조가 15건 나타나 두 구조를 모두 사용하면서도 여격 격틀 구조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18세기 전체를 통틀어 격틀 구조의 분포 비율을 따지는 것은 말뭉치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무목왕정총록』처럼 동일한 문헌 내에서의 비율이라면, 당대의 문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뵙다’의 용례에서 실제로 여격 격틀 구조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여격 격틀 구조에 대응하는 피동 구조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유추가 일어날 때는 유형 빈도가 높은 쪽을 따라 낮은 쪽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유추 방향이다(Bybee 2001). 이 논문에서 문제가 되는 피동 구조와 재귀 사동 구조의 경우, 피동 구조가 여러 맥락에서 더 자주 나타나므로 피동 구조를 모델로 삼아 재귀 사동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릿값과 관련해 이들을 비교하면, 피동 구조는 필수 논항의 수가 둘이고 재귀 사동 구조는 셋이다. 그런데 재귀 사동 구조의 필수 논항 중 하나는 항상 생략되므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논항의 수는 둘이다. 따라서 피동 구조의 ‘뵙다’를 모델로 삼아서, 이전에는 필수 논항 둘과 생략된 필수 논항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던 논항 구조가 단순히 필수 논항 둘로 이루어진 논항 구조로 재분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릿값 재분석으로 남는 것은 필수 논항이 두 개이면서 주격 표지와 대격 표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격틀 구조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가장 전형적인 통사 구조는 타동 구조이다. 타동 구조는 주격-대격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통사 구조이며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조합을 논항 구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조로 지닌다. 그러므로 (10나)가 타동 구조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각 논항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5.2절에서 재귀 사동 구조의 두 측면을 논의하며 지적 했듯이 사역주는 동작주의 한 부류이므로 동작주로 재해석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또한 사역주에 비하면 피사역주의 동작주성이 더 낮으므로, 종래 피사역주로 해석 되던 논항이 피동작주의 해석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뵙다’의 타동 구조가 18세기에 새로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 변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 분석할 19세기의 ‘뵙다[觀]’와 비교하면, 편지와 같이 완전한 무정물 이 ‘뵙다[觀]’의 대상이 되는 예가 18세기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1)과 같다.

### (11) 18세기 한글 간찰에서 편지를 대우하는 ‘보옵다’의 예

- 가. [편지를] 덕수오시니 밧즈와 보옵고… (은진송씨 송준길가문 한글간찰 31, 18세기)
- 나. 글월 밧즈와 보옵고… (은진송씨 송준길가문 한글간찰 32, 18세기)
- 다. 경산셔 흐오신 편지노 보옵고… (고령박씨 선세언적 29~30면, 18세기)

19세기 한글 간찰에서 편지를 목적어로 취하는 ‘뵙다[觀]’의 사례가 관찰되는 데에 반해, 18세기 한글 간찰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16~17세기와 같이 재귀 사동 구조와 피동 구조가 병존하는 가운데, 재귀 사동 구조가 타동 구조로 재해석되는 변화가 18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정리하여 18세기 ‘뵙다’의 통사 구조를 보이면 다음의 (12)와 같다. (13)은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예이다.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 (12) 18세기 ‘뵙다’의 어간 의미와 통사 구조

#### 가. 재귀 사동 구조

[사역주아랫사람]<sub>NOM</sub> [피사역주윗사람]<sub>ACC</sub> ([피동작주아랫사람]) 뵈다[示]

#### 나. 피동 구조

[피동작주아랫사람]<sub>NOM</sub> [동작주윗사람]<sub>DAT</sub> 뵈다[見]

#### 다. 타동 구조 (개신형)

[동작주아랫사람]<sub>NOM</sub> [피동작주윗사람]<sub>ACC</sub> 뵙다[謁/觀]

### (13) 18세기 ‘뵙다’의 예

#### 가. 재귀 사동 구조

『금영으로부터 헐방원(擷芳園)의 도라와 태상을 봉대 부지 서루 잡고  
울 시… (무목왕정총록 1:68, 18세기)

#### 나. 피동 구조

『妻』 조촌 사ーム과 服飾을 다 보내고 다시 더른 뵈 치마 미여 … 鄉里예 도  
라가 식어의게 뵈는 네를 뭇고 독을 자바 나가 물 길어 婦道를 닷그니 모  
을과 나라하셔 일콘더라 (내훈 2:110a, 중간본, 17세기)

#### 다. 타동 구조

왕이 이러트시 골으샤다 … 너르신 복이 만세의 덥히시니 오희라 창장의  
즐기심과 흥벽의 금초심도 오히려 다시 뵈옵는 듯흐온 싱각이 있거든…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 1a, 18세기)

(13가)는 ‘(황)제가 금영으로부터 헐방원에 돌아와 태상을 뵙고 부자가 서로 잡고 울 새’로 해석된다. (13다)와 같은 ‘뵙다[觀]’의 예를 생각하면 이 경우에도 ‘뵙다’의 목적어인 ‘태상’이 피사역주가 아니라 피동작주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목왕정총록』에 ‘뵙다[觀]’의 예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문헌에 담긴 언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의 문법에는 아직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13나)는 ‘부인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과 (자기의) 의복을 다 보내고 다시 베 치마를 둘러 매고 … 고향에 돌아가 시어머니께 뵙는 예를 마치고 독을 들어 나가서 물 길어 부인의 도리를 닦으니 마을과 나라에서 (열녀라) 일컫더라’로 해석된다. ‘뵙다’의 목적어 ‘시어머니’가 여격 표지를 취하고 나타났다. 여격 격틀 구조 쪽에서 17~18세기 사이에 여격 논항 의미역이 하강된 동작주 이외의 역할로 변화하는 기미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동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16~18세기에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에 일어난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에 접어들어 재귀 사동 구조가 일부 재분석되면서 피동 구조가 ‘뵙다’의 통사 구조에 추가된다. 개신형에 해당하는 피동 구조의 용례가 16~18세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18세기에 재귀 사동 구조가 타동 구조로 재분석되기 시작한다. ‘뵙다’ 동사가 타동 구조를 취하는 변화가 확산되는 것은, 18세기 이후로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는 ‘뵙다[觀]’의 용법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6.4 19세기 이후: 타동 구조, 피동 구조

19세기의 문헌 자료에서 ‘뵙다’ 동사의 예를 보면, ‘뵙다[觀]’의 용법이 18세기 보다 더 많이 관찰된다. 특히 ‘뵙다’ 동사의 목적어가 수행하는 의미역이 피동작주로 해석되는 변화가 이 시기 안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편지와 같은 무정물이 확실히 명사로서 격표지를 지니고 ‘뵙다[觀]’의 목적어로 쓰이는 용법이 개인 화자내의 문법에 확고히 자리를 잡은 사례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를 드러내는 자료로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이하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이 있다.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은 의성 김씨 김성일파의 30세손 김진화와 그 가족들이 주고 받은 편지의 모음으로서, 대체로 19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것이 많다. 이 논문에서 자료로 삼은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은 모두 김진화에게 보내진 것이고, 발신자는 그 부인, 며느리, 둘째 딸, 넷째 딸, 제수, 조카며느리, 외손부 등이다. 이들 중 생몰년대가 확인되는 사람들을 제시하면 (14)와 같다.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 (14)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의 등장 인물

가. 김진화: 1793년 ~ 1850년

나. 부인 여강 이씨: 1792년 ~ 1862년

다. 며느리 진성 이씨: 1825년 ~ 1888년

나머지 인물들은 생몰년대가 분명하지 않으나 제수를 제외하고 딸, 외손부, 조카며느리 등은 19세기 초중반에 태어난 이들일 것이다. 즉, 편지의 발신인들은 모두 19세기 화자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인 여강 이씨와 넷째 딸, 그리고 며느리 진성 이씨와 둘째 딸의 그룹 사이에 ‘뵙다[觀]’의 쓰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보낸 편지 중 답장으로 쓰인 것들은 서두가 김진화의 편지를 읽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편지를 보내면 하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전달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으니, 편지를 수신했음을 편지의 첫머리에서 밝히는 것이 관례였다. 이 때, ‘하서(下書), 덕사오심, 슈찰(手札)’ 등 김진화의 편지를 가리키는 목적 어를 취하는 동사로 부인 여강 이씨는 항상 ‘보옵다’를 사용하는 데 반해, 며느리 진성 이씨는 항상 ‘뵈옵다’를 사용했다. 다음의 [표 12]는 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 12]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에서 편지를 대우하는 ‘보다’와 ‘뵙다[觀]’

	(편지) 보옵다	(편지) 뵙옵다	합
부인 여강 이씨	16건	--	16건
며느리 진성 이씨	--	4건	4건
김진화의 둘째 딸	--	3건	3건
김진화의 넷째 딸	1건	--	1건
김진화의 조카며느리	--	1건	1건

이러한 차이는 부인과 며느리 간 출신지 차이, 그리고 둘째 딸과 넷째 딸 간 거주지 차이에서 기원했을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 및 둘째 딸의 한글 간찰에서 나타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나는 ‘뵈옵다’를 일관되게 사용한 것은, 편지와 같은 사물을 대우하는 ‘뵙다[觀]’의 용법이 확고히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18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비인물 명사의 예가 ‘어른의 어떠한 모습’이었음을 논의했는데, 이러한 용법이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에서도 관찰된다. 앞서 편지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보옵다’를 사용했던 부인 여강 이씨도 비록 1건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용법의 ‘뵙다’를 사용하였다. 그 외 외손부나 제수 등도 이런 용법을 사용하였는데, 용례를 모아서 제시하면 다음의 (15)와 같다.

(15)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에서 ‘어른의 어떠한 모습’을 대우하는 ‘뵙다’

가. 부인 여강 이씨

...요소이눈 잡소오시기 죠곰 낫조오신가 구미 그덧하신 모양 뵈옵고 이탁  
두립소오니…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 35, 19세기)

나. 외손부

[小3]외손부는 와 뵈오니 [隔1]한어마님 그데후 첨절이 주즈옵셔 업” 여  
지 업소오시니 두립습고…<sup>8</sup>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 121, 19  
세기)

다. 제수

예는[移1] 형님계오셔 그만흐옵시니 뵐옵기 즐겁소이며 시덕도 온 여름  
혈미로운 상 괴로이 지니옵[添1]고 슈척훈 모양 갑” 흉옵더니 요소이 그  
만하니 깃부옵고 …<sup>9</sup>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 133, 19세기)

8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외손부는 [여기에] 와 보니, 할머님 기체후 더치신 병환이 잣으시어 기력이 매우 여리시고 여지없으니 두렵고…”

9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기는 형님께서 그만하시니 뵐옵기 즐거우며, 새댁도 온 여름을 [병으로] 헐어 괴로이 지내고 여원 모양이라 갑갑하더니 요새는 그만하니 기쁘옵고 …”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부인 여강 이씨가 ‘어른의 어떠한 모습’에 ‘보옵다’를 사용하는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넷째 딸은 이런 경우에도 ‘보옵다’를 사용한 용례가 있다. 다음은 넷째 딸이 ‘어른의 어떠한 모습’에 사용한 ‘보옵다’의 예이다.

### (16) 김진화의 넷째 딸이 쓰는 ‘보옵다[觀]’의 예

칠십 당연하신 안노인 가이업습고 만실 비황 등 엄 ” 흐시고 가련은 불승 흐 온디 붓어루신니 심녀 보옵기 민망 흐 옵고 …<sup>10</sup>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 104, 19세기)

그런데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뵙다[觀]’의 목적어로 편지가 출현하게 되는 변화가 확실히 자리를 잡는다. 초계 정씨 한글 간찰에서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초계 정씨 한글 간찰은 경남 방언 화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편지로서, 작성 시기는 19세기 중후반에 몰려 있다. 초계 정씨 한글 간찰에서 편지는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뵈옵다’의 목적어로 나타난다. 다음의 (17)에서 모아서 제시하였다.

### (17) 초계 정씨 한글 간찰에서 사용된 ‘뵙다[觀]’의 예

가. 나림 친필도 못 뵈오니 더욱 굼 ” 흐 온나…<sup>11</sup> (초계정씨 한글 간찰 1, 19세기 말 ~ 20세기 초 )

나. 거번 [隔] 하셔 밧주와 주시 뵈온 후 일주 알외옵디 못 죄송 흐 옵던 츄 총열 닻치오며 겸 흐 와 하셔 밧주와 뵐와 말씀이온 듯 지삼 뵈옵소오니…<sup>12</sup> (초계 정씨 한글 간찰 9, 19세기)

10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칠십을 맞으신 시조모님 가엾으시고, 집안이 모두 슬퍼하는 가운데 기운이 없이 지내시고 가련하기는 이루 다 이기지 못하는데, 바깥 어르신네 심려 [하시는 모양] 뵐기 딱하고…”

11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나리님의 친필도 못 뵐오니 더욱 궁금하오나…”

12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지난 번 하서 받아 자세히 본 후 一字 아뢰지 못하여 죄송하던 차 총열이 닦쳐 겸하여 하서 받아 모시고 말씀이온 듯 재삼 뵐오니…”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다. 호서 밧즈와 뵈오니 친이 문안드리듯 ㅎ외다<sup>13</sup> (초계정씨 한글 간찰 10, 19세기)

라. 우리 [隔1] 아부님 호서 밧즈오니 우리 부여 미와 잘삼이온듯 탐 ”주시 뵈 올소오니 …<sup>14</sup> (초계정씨 한글 간찰 45, 19세기)

(17가~라) 모두 ‘뵙다’의 주어는 편지의 화자이므로 생략되었다. 이 네 건의 ‘뵙다’가 모두 ‘하서(下書)’를 목적어로 삼고 있어서 편지와 같은 무정물도 ‘뵙다’의 목적어가 될 수 있었음이 드러난다.

다음의 (18)은 초계 정씨 한글 간찰에서 편지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로 ‘보읍다’가 쓰인 유일한 예이다.

(18) 19세기 중후반 경남 방언 화자가 사용한 ‘(편지) 보읍다[觀]’의 예  
듯방 읍편의 어마 호서 밧자와 보오니…<sup>15</sup> (초계정씨 한글 간찰 28, 19세기)

따라서 19세기에는 ‘보다[觀]’ 동사의 객체 대우 표현으로 ‘뵙다[觀]’가 쓰이는 용례가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3]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3] 19세기 ‘보다’ 동사의 객체 대우 패러다임

평대 표현	객체 대우 표현
보다[觀]	보읍다
보다[會]	뵙다

13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하서 받아 뵈오니 친히 문안드리듯 합니다”

14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리 아버님의 하서를 받으니 우리 부녀 [미와] 말씀인 듯 탐탐하고 잘 뵙었으니…”

15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뜻밖에 이 편에 어머님 하서 받아 보니…”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표 13]을 15세기의 ‘보다’ 동사가 지녔던 객체 대우 패러다임을 정리한 [표 11]과 비교하면, ‘뵙다’ 동사의 의미장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옵다’는 15세기처럼 ‘보다’와 객체 대우 어미 ‘-읍-’의 결합에 의한 활용형이라기보다는, ‘보습다’가 어휘화하여 특정 맥락에서 살아남은 객체 대우 어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하자면, ‘뵙다’가 대우하는 목적어는 인물로 한정되어 있다가 18세기에는 ‘어른의 모습’도 대우할 수 있게 되었고, 19세기에는 ‘편지’와 같은 사물까지도 대우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계속 재귀 사동 구조로 남아 있었다면, ‘편지’와 같이 시각적 인지를 수행할 수 없는 무정물은 ‘뵙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타동 구조로 재분석되었다면 그 목적어는 피동작주로서 시각적 인지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무정물도 목적어가 될 수 있다. ‘편지’를 대우하는 ‘뵙다’의 용례가 자리잡은 것은 ‘뵙다’의 통사 구조가 타동 구조로 재분석되면서 인물과의 관련성이 낮은 명사도 목적어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인물과의 관련성’ 척도에서, ‘어른의 어떠한 모습’과 ‘편지’ 사이에 있는 것이 ‘얼굴’과 같은 신체 명사이다. (19)는 윗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명사가 대우를 받는 용례이다. 이러한 용법은 19세기부터 나타나서 20세기로 이어진다.

### (19) 신체 명사가 ‘뵙다[觀]’의 목적어로 나타난 예

가. 소심은 천은을 입수와 이제 순무 중임으로 이곳을 지나기로 존안을 다시 뵈옵고져 乎여 드러왓습거니와 (월봉기 1:14b, 고소설 판각본 전집, 19세기)

나. 량인이 골으디 우리노 텐성에 니르면 엇더케 되겠느냐 닦답하디 괴롭던 거스로 평안한 거슬 밧구고 근심하던 거스로 즐거운 거슬 밧구고 세상에 셔 괴도하며 눈물 흘니던 거스로 조흔 양을 엊을 터이오 머리에 금면류관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을 쓰고 흥상 하느님 얼굴을 뵈오리니… (천로역정 2:198a,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 19세기)

(19가~나)에서는 ‘존안’과 ‘하나님 얼굴’이 ‘뵙다’의 목적어로 쓰였다. 얼굴을 보는 것이 곧 만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체 명사 ‘얼굴’은 인물 명사와 같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아무리 비유가 적용되더라도 신체 명사가 지니는 의미역은 인물 명사의 의미역과 동일하지 않다. 이는 인물을 장소로 환유했던 ‘뵙다’의 용례에서, 장소 논항이 대부분 처격 표지를 취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목적어 논항으로 실현된 명사의 ‘장소’라는 의미적 특성 때문에 장소 명사들은 피사역주의 의미역을 수행할 수 없었고, 대신 의미적 특성에 어울리는 ‘처소’라는 의미역으로 분석되어 대격 표지가 아니라 처격 표지를 취했다. 비유를 동원해도 장소 명사가 피사역주로 해석될 수 없다면, 인물의 부분에 불과한 신체 명사 역시 피사역주의 의미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른다면, 18~19세기 사이에 ‘뵙다’의 대격 격틀 구조에서 목적어 의미역의 재해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재귀 사동 구조가 타동 구조로 변화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변화를 통해 ‘뵙다[觀]’의 목적어로 실현될 수 있는 비인물 명사의 목록이 ‘어른의 어떠한 모습’에서 어른의 신체 부분을 가리키는 명사로 확대되고 결국에는 ‘편지’와 같이 윗사람과 간접적인 관련만 지니는 무정물까지 포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20세기 자료에서 비인물 명사의 종류별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물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므로, 20세기 자료에서는 신체 명사류가 ‘뵙다[觀]’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편지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내용상 편지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한글 간찰을 제외하고 20세기 신소설류만 보면, 비인물 명사가 ‘뵙다[觀]’의 목적어로 온 16건 가운데 12건이 신체 명사류의 일종인 ‘얼굴’이다. 반면 편지 등의 무정물이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목적어로 온 경우는 3건이었다. 따라서 ‘얼굴’ 등의 신체 명사가 ‘뵙다’의 목적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편지보다 먼저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핀 바를 종합하여 19~20세기 ‘뵙다’의 통사 구조 및 어간 의미를 제시하면 (20)과 같다. (21~22)는 시기별로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예이다.

(20) 19~20세기 ‘뵙다’의 통사 구조 및 어간 의미

가. 타동 구조

[동작주아랫사람]<sub>NOM</sub> [피동작주윗사람/무정물]<sub>ACC</sub> 뵙다[謁/觀]

나. 피동 구조

[피동작주아랫사람]<sub>NOM</sub> [동작주윗사람]<sub>DAT</sub> 뵈다[見]

(21) 19세기 ‘뵙다’의 통사 구조별 예

가. 타동 구조 (인물 목적어)

예수 | 션인을 향<sup>하</sup>야 골<sup>으</sup>샤디 너 훈가지로 와 내 성부 텐국의 복을 누려 흥<sup>상</sup> 톈쥬를 뵈옵고 흥<sup>상</sup> 텐쥬를 찬미<sup>하</sup>라 <sup>하</sup>시리니 (성경직<sup>하</sup> 17b, 19세기)

나. 타동 구조 (비인물 목적어)

톈쥬여 … 부라건대 우리 등이 임의 신덕의 빗출 인<sup>하</sup>야 너를 알았시니 못 춤내 네 존귀<sup>하</sup>신 영광을 뵈옵노 디 니<sup>르</sup>게 <sup>하</sup>샤… (성경직<sup>하</sup> 8b-9a, 19세기)

다. 피동 구조

괴독도 | 골<sup>으</sup>디 … 우리보담 몬져 간 천천만만 성도들이 피<sup>ㅊ</sup> 해롭게 흠이 업고 서로 소랑<sup>하</sup>며 거록<sup>흔</sup> 풍치가 름름<sup>하</sup>야 각각 하느님씩 뵈옵고 흥<sup>상</sup> 그 압희 서서 은총을 누리<sup>느</sup>니… (천로역정 권1:8a, 파리동양어학교 소장, 19세기)

(21가)는 ‘네가 함께 와 우리 아버지 천국의 복을 누려 항상 천주를 뵙고 항상 천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주를 찬미하라’는 말로 해석된다. 여기서 ‘뵙다’의 목적어인 ‘천주’가 지니는 의미 역은 피동작주이다. (21나)의 ‘(하느님의) 영광을 뵙는 데 이르게 하시어’와 같은 예문에서 보이듯이, 비인물 명사가 ‘뵙다’의 목적어로 쓰인 예가 같은 문헌에서 관찰되기 때문이다. 대격 격틀 구조에 대응하는 ‘뵙다’의 통사 구조가 재귀 사동 구조에서 타동 구조로 재분석되지 않았다면 (21나)와 같은 용례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21나)의 용례는 이 문헌을 지은 사람의 문법에서 ‘뵙다’의 통사 구조가 타동 구조로 재분석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1가~나)의 용례에서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는 타동 구조라고 볼 수 있다. (21다)는 ‘여러 성도들이 서로 해롭게 함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풍채가 늠름하여 각각 하느님께 뵙고 항상 그 앞에 서서 은총을 누리나니…’로 해석된다. ‘뵙다’의 목적어인 ‘하느님’이 여격 표지를 취하고 있어 피동 구조이다.

### (22) 20세기 ‘뵙다’의 통사 구조별 예

#### 가. 타동 구조 (인물 목적어)

찰란한 광명 아래 송죽인연을 일우온 후 이곳 션군을 다시뵈 뵈올스록 비  
범한 관옥풍치 진짓 군주에 괴틀인듯…<sup>16</sup> (의성김씨 천전파 한글 간찰 12,  
20세기)

#### 나. 타동 구조 (비인물 목적어)

(심) 시심이 령간 말씀은 익히 듯죠 왓스나 지금이야 낫죠와 뵈옵습니다  
괴테 안녕합시오

(김) 네 명학을 뵈와 누구신 줄은 알겠소마는 엊지히 차자 계신가요 (홍도  
화 61, 20세기)

---

16 현대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찰란한 광명 아래 송죽의 인연을 이룬 후 이곳 사위를 다시 볼수록 비범한 관옥 같은 풍채가 참으로 군자의 기틀인 듯 합니다.” 이 편지는 장모가 암사돈에게 보낸 것인데, 이런 사돈 간 편지에서는 사위가 ‘뵙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 6. ‘뵙다’ 통사 구조의 통시적 변화

### 다. 피동 구조

잇흔 날 [사위가] 장모 뵈 온 더 장공내외가 깃불을 측냥치 못 하 더라  
(완월루 47, 20세기)

(22가)는 장모가 안사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군(사위)를 다시 볼수록 비범하고 관옥과 같은 풍채가 마치 군자의 기틀인 듯…’이라고 칭찬을 하는 내용이다. 20세기 한글 간찰 중 혼서가 많은데, (22가)와 같은 표현은 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투적인 문구이다. 사위의 모습에 대한 서술이 강조되는 맥락이므로 ‘뵙다’의 실질적인 목적어는 ‘사위’이기보다는 ‘사위의 모습’이며, 따라서 타동 구조임을 알 수 있다. (22나)는 명함이 목적어이므로 타동 구조가 확실하다. (22다)는 ‘뵙다’의 목적어인 ‘장인 장모’가 여격 표지를 취했으므로 피동 구조이다.

19~20세기 ‘뵙다’의 통사 구조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격을 취하는 목적어의 의미역이 피동작주로 해석되는 변화가 완료되어 재귀 사동 구조가 타동 구조로 바뀌었다. 한편 피동 구조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20세기 소설류에서 대격 격틀 구조가 훨씬 더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sup>17</sup> 피동 구조의 쓰임새가 타동 구조에 밀려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화의 존재는 1945년 이후 한국어 문헌들을 바탕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여 만든 『표준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 피동 구조의 ‘뵙다’를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한편 이 사전들이 비인물 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뵙다[觀]’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인물 명사를 대우하는 용법은 그리 널리 퍼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이 비록 사전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3.1절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한국어 화자들의 언어 생활에서 글이나 사진, 영상을 목적어로 취하는 ‘뵙다’

17 17~19세기와 달리 20세기 자료들은 문헌이 다양하고 시기 또한 확실하다. 따라서 20세기 자료에서 ‘뵙다’ 격틀 구조의 분포 비율을 계산하면, 이 비율이 곧바로 20세기의 문법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의 용례가 확인된다. 현대 한국어의 ‘뵙다’가 목적어를 대우하는 타동사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 7. 결론

지금까지 ‘보다’ 동사의 사동 파생 동사 ‘뵈다’에서 기원한 ‘뵙다’ 동사가 현대 한국어의 타동사 ‘뵙다’가 되기까지 일어난 통사 변화의 시기, 과정,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의 ‘뵙다’ 동사만 보아서는 짐작할 수 없는 재귀 사동성과 피동성이 이 동사에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사동사가 재귀 사동 구조라는 특수한 구조를 취하면 재분석을 통해 피동사나 타동사로 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뵙다’ 동사의 기원형은 ‘보다’ 동사에 사동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사동사 ‘뵈다[示]’이다. 이 기원형의 통사 구조는 재귀 사동 구조로 분석된다. 15세기 한국어에서 재귀 사동 구조의 ‘뵈다[示]’를 나타내면 다음의 (1)과 같다.

(1) ‘뵙다’ 동사의 기원형이 된 재귀 사동 구조의 사동사 ‘뵈다[示]’

내	부텨-률	(나-률)	뵈다
[사역주] <sub>i-NOM</sub>	[피사역주] <sub>j-ACC</sub>	([피동작주] <sub>i-ACC</sub> ) 보-이 <sub>CAUS-DAT</sub> 다	
‘내가 부처로 하여금 나를 보시도록 하다’			

15세기의 ‘뵙다’ 동사는 (1)과 같이 피동작주가 생략된 재귀 사동 구조로 분석된다. 피사역주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언제나 인물 명사로 실현되었으며, 대격 표지 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뵙다’ 동사의 재귀 사동 구조는 주어 자리에 오는 아랫사람의 피동작주 측면이 부각되면서 피동 구조로 재분석된다. 16세기 자료에서 여격 격사를 구조를 취하는 ‘뵙다’ 동사의 용례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증거이다. 새로이 추가된 피동 구조의 ‘뵙다’ 동사를 16세기 한국어로 나타내면 다음의 (2)와 같다.

## ‘뵙다’ 동사의 통사론

### (2) ‘뵙다’ 동사의 새로운 용법으로 생겨난 피동 구조의 ‘뵈다[見]’

내	부터-식	뵈다
[피동작주] <sub>i-NOM</sub>	[동작주] <sub>j-DAT</sub>	보-이 <sub>PASS</sub> -다
‘내가 부처의 시선을 받다’		

동사의 격틀 구조는 문법 관계나 논항 구조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뵙다’ 동사에서 아랫사람이 주어가 되고 윗사람이 목적어가 되는 문법 관계는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논항 구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역이 피동작주와 동작주로 재분석되면서 ‘뵙다’ 동사의 통사 구조가 피동 구조로 재분석된 것이다. 그리고 이 피동 구조에 대응하여 새로운 격틀 구조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 피동사 용법이 새로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재귀 사동 구조의 사동사 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재귀 사동 구조의 ‘뵙다’ 동사는 18세기까지 사용되다가, 활발히 사용되던 피동 구조에 유추되어 필수 논항이 두 개인 구조로 재분석된다. 아랫사람이 주어가 되고 윗사람이 목적어가 되는 문법 관계와 목적어는 대격 표지를 취하는 격틀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논항 구조가 두 자리로 재분석된 결과, 종래 재귀 사동 구조였던 통사 구조가 타동 구조로 바뀌어 인식되었다. 각 논항의 의미역 또한 타동 구조에 맞춰서 재분석되었다. 새로이 출현한 타동 구조의 ‘뵙다’ 동사를 19세기 한국어로 나타내면 다음의 (3)과 같다.

### (3) ‘뵙다’ 동사의 새로운 용법으로 생겨난 타동 구조의 ‘뵈다’

내가	부처-를	뵈다
[동작주] <sub>i-NOM</sub>	[피동작주] <sub>j-ACC</sub>	뵈-다
‘내가 부처를 보다’		

‘뵙다’ 동사의 타동사 용법에서 어간 ‘뵈-’는 더 이상 ‘-이-’ 접사가 결합한 것으

로 분석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어의 의미역이 피동작주로 재분석된 결과, ‘뵙다’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편지나 명함 등의 무정물이 오는 ‘뵙다[觀]’의 용법이 새로이 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번째 재분석의 결과 새로이 생겨난 타동사 용법은 활발히 사용되어 기존에 활발하게 쓰이던 피동사 용법을 대체한다. 20세기에 피동사 용법이 빠르게 쇠퇴한 것은 타동사 용법이 언중의 생활에 전파되는 속도가 빨랐던 까닭이다. 1945년 이후의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들이 ‘뵙다’ 동사의 피동 구조를 아예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동 구조는 이미 생산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21세기에는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6~18세기 사이에 피동사 용법이 재귀 사동사 용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것은 당시의 언어 변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한계를 밝혀 두고자 한다. 우선, 15세기의 ‘뵈습다’가 객체 대우 어미인 ‘-습-’이 결합한 활용형에서 출발했고 이것이 현대 한국어 ‘뵙다’ 형태의 기원이 되었으므로, ‘뵙다’ 동사와 ‘-습-’ 사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16~17세기 사이에 ‘-습-’이 객체 대우 기능을 잃어버리는 변화가 ‘뵙다’의 통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통사 구조의 변화를 논의하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 형태적 변화를 자세히 정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뵙다’ 형태와 ‘뵈다’ 형태를 구분하여 다룰 수 없었다. 『표준 국어 대사전』 등 여러 사전에서 ‘뵈다’와 ‘뵙다’ 사이에 객체를 대우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므로, 이 차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역시 다루지 못했다. 또한 피동 구조와 재귀 사동 구조 또는 타동 구조 사이에 대우의 정도나 혹은 활용 맥락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도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연구의 대상을 ‘뵙다’ 동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뵙다’ 동사에서 확인된 재귀 사동 구조가 다른 동사에서도 확인되는지 여부까지는 다룰 수 없었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보다’ 동사 외에도 재귀 사동 구조를 취하는 동사가 15세기에 있었는가 하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나, 아쉽게도 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보다’ 동사 이외에 다른 동사가 재귀 사동 구조를 취한 용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한 국어 문법사에서 피동사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한다. 추후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 문헌

- 강명순 (2001), 「국어 ‘태’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명순 (2007), 『국어의 ‘태’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고영근 (2010), 『표준 중세국어문법론』(제3판), 집문당.
- 고영근·남기심 (2007),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구현정 (2004), 「존비어휘화에 나타나는 인지적 양상」, 『한국어 의미학』 14, 97~120.
- 권재일 (1991), 「사동법 실현 방법의 역사」, 『한글』 211, 99~124.
- 권재일 (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 (1993), 「한국어 피동법의 역사적 변화」, 『언어학』 15, 25~43.
- 권재일 (1995), 「통사 변화 연구의 대상과 방법」, 『언어학』 17, 295~315.
- 권재일 (2001), 「한국어 격틀 구조의 역사적 변화」, 『어학연구』 37(1), 135~155.
- 김현주 (2010), 「국어 대우법 어미의 형태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승호 (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양규 (1972), 「국어의 처격에 대한 연구: 통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재훈 (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유민호 (2008), 「여격 조사의 형성과 변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필재 (2002), 「‘뵙다’류 동사의 형태음운론」, 『한국문화』 29, 43~63.
- 이광호 (1972), 「중세국어의 대격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4), 「국어 비대격 ‘을-NP’에 대한 해석」, 『언어』 19(1), 265~286.
- 이향천 (1991), 「피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기 (2005), 「현대국어의 불규칙적 현상과 국어사」, 『한국언어문화학』 2(1), 207~225.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 이선영 (2010), 「15세기 국어의 어휘적 대우」, 『어문연구』 44, 103~125.
- 이종묵 (1998), 「杜詩의 언해 양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杜詩와杜詩諺解 研究』, 태학사, 143~211.
- Allen, Cynthia L. (1995), *Case Marking and Reanalysis: Grammatical Relations from Old to Early Modern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 Barðdal, Jóhanna and Leonid Kulikov (2009), Case in decline, in Andrej Malchukov and Andrew Spencer (eds.),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470~478.
- Benveniste, Émile (1999), 『인도·유럽 사회의 제도·문화 어휘 연구 1, 2』, (김현권 역), 아르케 (원서 출판1969).
- Bickel, Balthasar (2011), Grammatical relations typology, in Jae Jung Song (ed.), *Oxford Handbook of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399~444.
- Bickel, Balthasar and Johanna Nichols (2009) Case marking and alignment, in Andrej Malchukov and Andrew Spencer (eds.),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470~478.
- Black, Barry J. (2004), *Case*,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bee, Joan (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7), *Frequency of Use And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Croft, William (2000), *Explaining Language Change*, Pearson Education Ltd.
- Dryer, Matthew S. (1986), Primary objects, secondary objects, and antidative. *Language* 62, 808~845.
- Escandell-Vidal, Victoria (1996), Towards a cognitive approach to politeness, *Language Science* 18, 629~650.
- Fried, Mirjam (2006), Agent back-grounding as a functional domain: Reflexivization and passivization in Czech and Russian, in Benjamin Lyngfelt and Torgrim Solstad (eds.), *Demoting the agent: passive, middle and other voice phenomena*, John Benjamins, 83~110.
- Haspelmath, Martin (1998), Does grammaticalization need reanalysis?, *Studies in Language* 22(2), 315~351.  
\_\_\_\_\_, (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Hodder Education
- Haspelmath, Martin and Thomas Müller-Bardey (2004) Valency change, in Geert Booij, Christian Lehmann and Joachim Mugdan (eds.) *Morphology: A*

## 참고문헌

- Handbook on Inflection and Word Formation*, Vol. 2, de Gruyter, 1130~1145.
- Marantz, Alec (2012), Verbal argument structure: Events and participants, *Lingua* (in press), <http://dx.doi.org/10.1016/j.lingua.2012.10.012>
- Kim, Alan Hyun-Oak (2012), How Adessive becomes Nominative in the system of Korean honorifics?: Metaphor of de-agentivizing superior, in *Proceedings of the Japanese/Korean Conference* 22, 14~15.
- Palancar, Enrique L. (2002), *The Origin of Agent Markers*, Akademie Verlag.
- Primus, Beatrice (2009), Case, grammatical relations, and semantic roles, in Andrej Malchukov and Andrew Spencer (eds.),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261~275.
- Shibatani, Masayoshi (2004), Voice, in Geert Booij, Christian Lehmann and Joachim Mugdan (eds.) *Morphology: A Handbook on Inflection and Word Formation*, Vol. 2, de Gruyter, 1146~1165.
- Solstad, Torgrim and Benjamin Lyngfelt (2006), Perspectives on demotion, in Benjamin Lyngfelt and Torgrim Solstad (eds.), *Demoting the agent: passive, middle and other voice phenomena*, John Benjamins, 1~20.

## 역사 문헌 자료

- 국립국어연구원 (2010.10 수정),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결과물』 역사 말뭉치.
- 홍윤표의 국어연구 사이트 제공 원문 자료 (<http://www.hongyp.co.kr>)
- 한국학 중앙 연구원 (2005~2009)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10.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원문정보DB (<http://kyujanggak.snu.ac.kr/>).
- 중화전자불전협회 제공 각종 불경 원문 (<http://www.cbeta.org>).

## 부록: 문헌 선정 및 용례 추출 기준

언어를 역사언어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작업은 기원을 추적하는 일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일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시도한 것은 후자이기 때문에, 연구의 토대가 되는 문헌 자료를 선정할 때 각 자료가 반영하는 언어의 시기를 명확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논문은 통사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번역문이라면 발화문의 통사 구조 측면에서 원어의 간섭을 받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 번역 문장이 원어의 문장 구조에 이끌려 비전형적인 구조를 취할 때가 많다는 점은 번역과 관련된 직역/의역 및 번역투 논란을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다. Allen(1995)는 고대 영어에서 초기근대영어까지 500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영어의 통사 변화를 연구하면서, 부록으로 문헌 및 자료 선정 근거를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선정 기준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Allen(1995:460-461)에서 제시된 통사 변화 연구를 위한 문헌 선정 기준
  - 가. 외국어의 번역문이 아닐 것: 번역문일 경우 원어의 문법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 나. 가능한 한 산문일 것: 운문의 경우 문체적 이유로 어순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시적 허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 다. 당대에 작성된 문헌일 것: 이전 문헌을 후대에 필사한 경우, 이것은 필사된 시기의 문헌으로는 볼 수 없다.
  - 라. 예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것: 같은 문헌 내에서 앞에서 쓴 문장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인용된 문장을 중복하여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 간략한 기준은 한국어사의 통사 변화를 연구할 때에도 유용하다. 한국어사를 연구할 때 가장 좋은 자료는 문헌의 원본, 혹은 적어도 영인본을 직접 확인하여 찾

아낸 자료이다. 그러나 이 논문처럼 동사 하나만을 대상으로 고찰하는 경우, 문헌 하나당 출현 횟수가 적거나 아예 관찰되지 않는 문헌도 많기 때문에 대량의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량의 문헌을 대상으로 원본 또는 영인본을 확인하는 작업은 방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며 정확도도 떨어진다. 따라서 문헌을 입력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결과물』(이하 세종역사말뭉치)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세종역사말뭉치를 구성하고 있는 문헌 입력 자료들이 통사 변화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지 먼저 살펴보았다. 세종역사말뭉치를 자료의 성격 또는 시기 정보에 따라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 자료의 성격에 따라 나눈 세종역사말뭉치의 구성

가. 언해 자료 (대개 작성 시기가 확인됨)	약 356만 어절
나. 한국어로 작성된 문헌 중 시기가 확인되는 자료	약 86만 어절
다. 한국어로 작성된 문헌 중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	약 440만 어절
라. 운서류, 유해류, 천자문, 보감 등 어휘 사전 자료	약 150만 어절
마. 19~20세기의 신문 자료	약 141만 어절
바. 19~20세기에 외국인이 작성한 자료	약 21만 어절
(전체 약 1,195만 어절)	

(2가) 언해문 자료의 경우, 언해문은 일종의 번역문이므로 통사 구조 측면에서 한문에 담겨 있는 고전 중국어 문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뵙다’ 동사의 목적어는 고전중국어에서는 동사 뒤에 표시가 되며, 대개는 별도의 격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동시에 등장할 경우, 대개는 위치로서 구분이 되고 간혹 ‘以’가 결합하여 간접목적어 해석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 논문의 분석 대상인 ‘뵙다’에 동사 관련해 원문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을 확인한 결과, ‘覲, 謁, 見, 面’ 등의 한자 등이 ‘뵙다’에 대응했으며 이들 뒤에 오는 목적어는 모두 하나였다. 그러므로 이 목적어가 간접목적어로 쓰였는지 직접목적어로 쓰였는지 구별할 단서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뵙다’가 대우하는 목적어 논항의 격 정보에 한해서는, 번역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가 고전중국어의 번역자료에 속하는 (2가)의 문헌을 분석 대상에 넣었다. 단, (2가) 자료 중에서 원어가 고전중국어가 아닌 언해문이 존재하는데, 『첩해신어』, 『몽어노걸대』, 『청어노걸대』, 『팔세아』, 『소아론』, 『삼역총해』 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원어가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등의 교착어에 속하고 격 정보를 표시하는 형태소들이 존재하는 언어이므로 번역에서 원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나) 자료에서는 운문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월인천강지곡』과 이것의 재수록된 『월인석보』의 부분, 『두시언해』, 17~18세기 가사문학, 그리고 『청구영언』 등의 시조 자료가 이에 속한다. 이 논문에서는 15~17세기 운문자료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되 18세기 이후부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운문이 통사 변화 연구 자료로서 부적절해지는 경우는 어순 및 각 단어의 형태, 그리고 특정 단어의 빈도를 연구할 때이다. 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어순이 도치될 수 있으며, 운을 맞추기 위해 단어의 형태가 변질되거나<sup>1</sup>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일부러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격표지를 주요한 관찰 대상으로 삼는 이 논문에서는 운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

특히나 『두시언해』의 경우, 이종묵(1998)에 따르면 이 언해문의 작성 목적은 구결로는 드러나지 않는 원문의 통사 구조를 정확히 옮기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런

1 예를 들어, 세종역사말뭉치에 수록되어 있는 18세기 자료에서 ‘뵈다[見]’에 해당하는 ‘보이-’ 형은 시조와 가사에서만 관찰된다. 산문에서도 ‘보이-’ 형이 관찰되는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산문에 ‘보이-’가 쓰인 예로 1897년에 나온 윤음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들 수 있다.  
“이러므로 짐이 동묘에 밍셔훈 글월로뼈 두로 너의 무리에게 보이노라”

데 바로 위에서 밝혔듯이 ‘뵙다’ 동사의 목적어는 원어를 보고 간접목적어인지 직접목적어인지 알 도리가 없으므로, 당시 언어에서 ‘뵈다[謁]’가 지녔던 한국어의 격틀구조가 번역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8세기 이후의 가사문학 및 시조문학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료의 성격 탓이 아니라, 자료 중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역사말뭉치에 수록된 입력 자료에서 18세기 『악학습령』에 실린 시가 18세기 『청구영언』에 다시 실려 있는 등의 중복 양상이 관찰되었다. 필사자별로 텍스트가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필사본 소설과 달리 시조나 가사는 저자가 명확히 밝혀진 채로 암송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변형될 가능성이 좀 더 낮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반영하면 같은 자료가 중복하여 반영된다. 이들을 모두 비교하여 18세기 시조를 한 종류씩만 뽑아내는 작업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아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길을 택했다.

(2다) 역시 아쉽지만 제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시기가 확인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2나)와 (2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종역사말뭉치에서 제공하는 ‘말뭉치목록\_역사.xls’ 파일의 ‘분류 기호’ 열에서 둘째 자리가 0으로 분류되었는가 여부이다.<sup>2</sup> (2다)를 구성하는 자료 중 320만 어절 정도는 18~19세기로 추정되는 판소리 문학이나 필사본 소설이지만, 한글 간찰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뵙다’ 동사와 관련해서는 18세기와 19세기를 동일한 시기로 묶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자료군을 통째로 제외하였다.

(2라~바)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자료들이기

---

2 세종역사말뭉치에서 안내하는 분류의 원칙에 따르면 분류기호 및 파일명의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숫자는 자료가 반영하는 시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0으로 분류된 자료들은 연대불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목록을 자세히 보면 0으로 분류된 자료들 중에도 출판연도가 적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들의 저본을 자세히 조사하면 그 중에서도 다시 시기가 확인되는 자료를 추려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방대한 시간이 들거나 불가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통째로 제외하였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때문에 동사 어간의 뜻만 제시되고 격틀구조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색의 실익이 별로 없다. (2마)는 자료의 성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19~20세기 자료가 (2가, 나) 만으로도 충분한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반영하지 않았다. (2바)는 외국인이 작성한 자료로서 학습자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아 일단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종역사말뭉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1가, 나)의 약 386만 어절이 남는다. 홍윤표의 국어연구([www.hongyp.co.kr](http://www.hongyp.co.kr))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문헌 입력 자료 중, 세종역사말뭉치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이 386만 어절에 더하여 기초 자료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 기초 자료들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교감한 파일을 구할 수 있으면 그 교감된 파일을 검색 대상으로 삼았다.<sup>3</sup>

다음으로, 선정된 입력 자료 파일을 대상으로 정련 작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이 담고 있는 언어 자료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성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고전중국어가 아닌 언어를 원문으로 하는 언해문 자료 및 18세기 이후의 시조 및 가사 문학을 제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특히 15~16세기를 대상으로 각 입력 자료의 저본이 된 문헌의 언어가 정말로 해당 시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확인했다.<sup>4</sup> 15~16세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엄격한 확인을 거친 것은, 이 자료들이 이 시기의 언어 양상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17~20세기에 대해서는 각 입력 자료가 반영하는 시기를 특별히 더 검증하지 않았는데,

3 개인 차원에서 문헌 입력 작업을 이끌고 그 결과물을 공개해 주신 홍윤표 선생님, 18세기 자료들 및 15~16세기 교감본의 대다수를 제공해 주신 서울대 언어학과 고성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15~16세기 자료들의 원문 탐색과 교감 및 자료 입력을 행하고 이를 외부에 공유해 주신 서울대 국문학과의 가와사키 케이고 선생님 및 다른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4 이 확인 작업을 하면서 디지털 한글박물관([www.hangeulmuseum.org/](http://www.hangeulmuseum.org/))에 실려 있는 문헌 해제를 많이 참조했다. 여기에 해제가 없을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http://www.riss.kr))에서 문헌 이름으로 검색하여 해당 문헌을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서 참조했다.

17세기 이후의 언어 양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한글 간찰 자료가 따로 있어서,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하기에는 그쪽이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17세기 이후의 입력 자료들은 입력한 저본을 밝히고 문헌 해제를 찾는 작업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이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체적인 경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 논문에서는 시기 검증의 실익이 없었다.

중복성을 제거할 때에 중간본과 복각본의 문제가 있다. 중간본은 당연히 중간된 시기의 언어 자료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간혹 문헌 해제에서 복각본이라 서술하는 경우에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간본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원본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제에서 표기 등에 변화가 있다고 기록된 경우 전부 복각 시기의 자료로 시기를 변경했다. 책을 찍어낸다는 것은 배포의 의사가 있다는 뜻이고, 복각을 할 때 일부는 바꾸고 일부는 바꾸지 않았다면 바꾸지 않은 표현이 비록 오래된 표현일지언정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복각본의 자료는 복각 시기의 언어 자료로 판단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와, 또는 표기 수준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원간본의 언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제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복각본이 원간본의 언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일 문헌이 같은 시기에 여러 지방에서 간행된 경우, 대표 문헌을 하나 선정해서 그것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15~16세기 문헌 목록과, 용례 검색에 사용한 입력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뵈다’, ‘뵈웁다’, ‘보습다’ 및 그 후계형이 검색되지 않은 문헌은 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3) 이 논문에서 사용한 15~16세기 문헌 목록과 입력 자료

1447 용비어천가: 세종역사말뭉치, 미

정제/A5CA0021

1448 석보상절 권3, 6, 9, 11, 13,

19~21, 23, 24: 서울대 언어학과 역

사비교언어학 연구실 교감본

‘뵙다’ 동사의 통사론

- 1447 월인천강지곡 상: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5CD0019
- 1449 월인석보 권1, 2, 4, 7~15, 17~23, 25: 고성익 교감본
- 1462 능엄경 언해: 서울대 언어학과 역사비교언어학 연구실 교감본
- 1463 법화경 언해: 고성익 교감본
- 1464 금강경언해: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0CD0001
- 1464 아미타경언해: 고성익 교감본
- 1464 선종영가집언해: 고성익 교감본
- 1464 반야심경언해: 흥윤표 제공본
- 1465 원각경언해: 고성익 교감본
- 1466 구급방언해: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5CE0001
- 1466 몽산법어언해: 고성익 교감본
- 1467 목우자수심결언해: 고성익 교감본
- 1475 내훈: 가와사키 케이고 편집본
- 1481 삼강행실도 (런던대학 소장): 흥윤표 제공본
- 1481 초간두시언해 권 3, 5-11, 14-25: 가와사키 케이고 입력 권18 + 흥윤표 제공본 (그 외)
- 1482 금강경삼가해언해: 고성익 교감본
- 1482 남명천계송언해 (통칭 남명집언해):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P5CD0002
- 1485 관음경언해: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5CD0004
- 1496 육조법보단경 상, 중, 하: 흥윤표의 국어연구 제공본
- 1496 진언권공언해: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P5CD0003
- 1500 개간 법화경 권1, 2: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5CD0005
- 15C말~16C 초 구급간이방언해 중간본 1~3, 6, 7: 흥윤표 제공본
- 1514 속삼강행실도: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G0019
- 1517 몽산법어언해 (충청도 연산 고운사판):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F0004
- 1517 번역박통사 상: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F0001
- 1517 번역노걸대: 흥윤표 제공본
- 1518 이룬행실도 (옥산서원 소장):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G0009

1518 정속언해 (이원주 교수 소장):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G0011	1576 안락국태자전: 홍윤표 제공본
1518 번역소학 권6~10: 가와사키 케이고 교감본	1577 계초심학인문: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G0007
1522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언해: 홍윤표 제공본	1581 삼강행실도 (동경대 소장, 중간본):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5CG0003
1542 분문온역이해방: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E0001	1586 이응태묘출토언간: 홍윤표 제공본
1548 십현담요해: 신용암, 정혜린, 가와사키 케이고, 김민지 입력본	1587 소학언해 1~6 (도산서원 소장): 가와사키 케이고 교감본
1560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통칭 육자신주언해): 세종 미정 제/A6CD0010	1590 효경언해 (존경각 소장): 가와사키 케이고 교감본
1563 부모은중경언해: 홍윤표 제공본	1590 맹자언해 (도산서원 소장):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D0007
1567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P6CD0005	1590 논어언해 (도산서원 소장):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A6CD0008
1574 여씨향약언해: 세종역사말뭉치, 미정제/P6CG0007	

17세기 이후의 세종역사말뭉치 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대 및 파일을 밝히지 않는다. 입력 저본의 연대를 따로 검증한 것이 아니어서, 세종역사말뭉치의 목록을 반복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세종역사말뭉치에서 분류기호 두 번째 자리가 7~9 및 A인 자료들 중에서, 위에서 밝힌 선정 기준에 맞는 것만 검색 대상으로 삼았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뵙다[謁]’ 등의 사례가 검색된 문헌의 목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4) 이 논문에서 사용한 17~20세기 세종역사말뭉치 수록 문헌

가. 17세기

연병지남,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효자도·속삼강효자도, 중간두시언해, 家禮諺解, 女訓諺解, 朴通事諺解, 산성일기, 병자일기, 진주하씨묘출토간찰, 癸丑日記, 獨樂堂 嘉南先生文集, 嶺南歌 蘆溪先生文集

나. 18세기

속삼강행실도(평안감영 중간본), 御製內訓諺解, 여사서언해, 御製常訓諺解, 어제자성편언해, 맹자율곡언해, 논어율곡언해, 무목왕정통녹(낙선재필사본), 御製警世問答諺解, 낙선재 필사본 형세언

다. 19세기

경판본 토생전, 쌍주기연, 옥주호연, 장경전, 조옹전, 장풍운전, 월봉기, 장한절효기, 설인귀전, 남원고사, 쥬년첨례광익, 진대방전, 남궁계적언해, 관성제군명성경언해, 易言諺解, 현수문전, 鱗兔歌, 월왕전, 성경직해, 텐로역명(파리동양어학교 소장), 심청전(하버드대 소장), 주교요지, 완판본 퇴별가, 申在孝판소리사설集, 화용도(박순호 소장 42장본), 金鈴傳, 용문전, 이대봉전, 초한전, 낙천등운

라. 20세기

심청전(김동욱 소장), 효녀실기심청(박순호 소장), 신유복전, 추풍감별곡, 화의 혈, 홍도화, 현미경, 행락도, 재봉춘, 원앙도, 옥호기연, 마상루, 화중화, 철세계, 죽서루, 천공염, 월하가인, 쌍옥적, 두견성, 황금탑, 목단화, 완월루, 명월정, 추풍감수록, 송뢰금, 성산유람기, 산천초목, 만인계, 동각한매, 구의산, 고목화, 신약전서, 괴히일기

18세기 자료 중에서 (5)에 정리한 자료들은 고성익의 교감본을 제공받아 그것으

로 분석하였다. 이 18세기 자료 교감본들은 5장에서 ‘뵈다[謁]’ 통사 구조의 18세기 변화를 분석할 때 한글 간찰 자료와 함께 증거로 사용하였다.

#### (5) 18세기 문헌 중 교감을 거친 입력 자료

각종 윤음류, 어제훈서언해, 천의소감, 종덕신편언해, 어제속자성편, 명의록  
언해, 속명의록언해 (이상 고성익 교감본)

17세기 이후의 한글 간찰 자료로는 한국학 중앙 연구원이 펴낸 『조선 후기의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10권을 이용하였다. 한글 간찰 중에서도 시기가 분명한 것과 모호한 것이 있는데, 필자의 생몰년도를 고려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하여 자료로 사용하고 그조차도 불가능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다. 단, 한글 간찰의 해제에서 전제적으로 19~20세기에 걸치는 것으로 분류한 한글 간찰들의 경우, 19~20세기를 한데 묶어 같은 시기로 취급하고 증거로 이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한글 간찰의 목록을 시기별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한글 간찰의 번호는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에서 부여한 것을 적었다.

#### (6) 이 논문에서 사용한 한글 간찰의 시기별 목록

##### 가. 17세기

고령 박씨 한글 간찰: 5, 7

나주 임씨 한글 간찰: 1

은진 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3, 11, 14, 15, 58, 66

은진 송씨 송규렴 가문 한글 간찰: 41, 76, 124

##### 나. 18세기

고령 박씨 한글 간찰: 15, 19

은진 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 24, 34, 36, 40, 72, 73, 75, 81, 84, 90,  
105, 107, 110, 115, 120, 122, 123, 124, 127, 132, 137, 138

‘뵙다’ 동사의 통사론

신창 맹씨 한글 간찰: 21, 22

의성 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 1

다. 19세기

광산 김씨 한글 간찰 : 13, 14, 31, 35, 43, 88, 90, 110, 111, 112, 114, 126, 128, 135, 141, 147, 148

초계 정씨 한글 간찰 : 9, 10, 12, 17, 28, 45

의성 김씨 천전파 한글 간찰: 47

의성 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 : 15, 21, 22, 26, 28, 33, 35, 41, 42, 43, 45, 46, 50, 52, 53, 55, 56, 57, 59, 91, 95, 96, 97, 103, 104, 105, 106, 116, 117, 121, 132, 133, 135, 145, 148, 161, 167

전주 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 : 5, 6, 13, 56, 57, 60, 61

라. 연대 미상으로서 19세기~20세기 사이

광산 김씨 한글 간찰: 19, 23, 27, 29, 33, 48, 71, 101, 109, 117, 118, 120, 121, 129, 138, 143, 144

초계 정씨 한글 간찰 : 1, 33

의성 김씨 천전파 한글 간찰 : 8, 14, 22, 23, 24

마. 20세기

광산 김씨 한글 간찰: 34, 95

의성 김씨 천전파 한글 간찰: 9, 12, 28

전주 이씨 덕천군파 종택 한글 간찰: 11, 12, 35, 36, 37, 38, 39, 40, 41, 42, 43, 45, 46, 47, 48, 52, 72

대부분의 한글 간찰은 시집온 아내, 며느리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시집온 여성들은 대개 ‘동래 정씨’ 등으로 본관과 성에 대한 정보로 특정되며, 운이 좋으면 생몰년도가 밝혀져 있는 정도이다. 이 정보만으로는 (심증이 갈지언정) 해당 여성 이 어느 지역 방언을 사용했는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간혹 섞여 있는 땔

들의 편지나 가문의 남성에 의해 쓰인 편지가 아닌 한, 특정 편지가 어느 방언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편지의 필자들이 같은 방언권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선후기 한글 간찰(연간)의 역주 연구』에 수록된 각 간찰의 해제에 따르면 광산 김씨 한글 간찰은 충청 방언을, 초계 정씨 한글 간찰은 경남 방언을, 의성 김씨 천전파와 김성일파의 한글 간찰은 특히 안동 지역 방언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연구의 목적과 분석 대상의 특성에 맞춰 국어사 문헌들 중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 다음, ‘뵈다’와 ‘보습다’ 및 그 후계형에 관련된 예문을 검색했다. 예문을 검색할 때 흔히 UniConc 등의 말뭉치 검색기를 이용하나, 이 논문에서는 검색기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열어 ‘보’ 어간과 ‘뵈’ 어간을 일일이 검색하는 방법을 택했다. 검색하고자 하는 표현이 객체 존대와 관계가 있는 이상, 전체 맥락을 보고서 대우하는 주체와 대우받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이것이 ‘뵈다[謁]’의 예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필수 논항 정보가 ‘뵈-’ 어간 근처에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뵈다[示]’나 ‘뵈다[見]’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논항의 정보를 확인해야 예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맥락상 생략되었다면 생략된 정보를 복원해야만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보습다[觀]’의 후계형 ‘보옵다[觀]’의 경우, 17세기 이후 ‘-습-’의 객체 존대 기능이 소멸하고 청자존대/화자겸양으로 기능이 바뀐 바 있다. 즉, 17세기 이후의 ‘보옵다[觀]’는 목적어가 대우받아야 할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섞여 있다.<sup>5</sup>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앞뒤 맥락을 폭넓게 확인하여 관련된 논항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맥락에 따른 논항 생략이 빈번히 일어나는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

5 17세기 이후에 바뀐 ‘-읍-’의 기능을 화자 겸양으로 본다면 두 경우 모두 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청자 존대로 본다면 전자를 객체 존대 어미 ‘-습-’의 흔적형으로 분석하고, 후자를 새로이 발달한 청자 존대 표현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읍-’의 구체적인 기능은 이 논문의 초점을 벗어나는 주제이므로 더 분석하지 않는다.

### ‘뵙다’ 동사의 통시 통사론

로 통사 변화를 연구할 때 생겨나는 검색의 어려움이며, 현재로서는 이를 극복하는 검색기 사용 방법은 찾지 못했다.

이상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 선정 방법과 예문 검색에서 유의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미 여러 선학들에 의해 중세 이후 한국어 문법사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이 개괄적으로 연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추구할 과제는 그러한 변화들을 관련된 단어들 수준까지 내려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변화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자료들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고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수록된 역사말뭉치를 바탕으로 문법사를 연구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한국어 역사 말뭉치인 세종역사말뭉치의 경우, 통사 변화나 의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록에서는 통사 변화와 관련해 이용할 수 있는 15~16세기 자료를 정련하여 목록을 제시하였고, 지금은 가문별로 정리되어 있는 한글 간찰 자료를 시기별로 해체하여 17~20세기까지 그 목록을 일부나마 정리해 보았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시행착오의 기록이지만, 통사 변화에 흥미를 지닌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bstract

## Syntactic Changes in Korean Verb *poypta* :From Reflexive Causative to Others

Kim, Migyeong

Linguistics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yntactic change is one of the understudied fields of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Diachronic developments of grammatical categories such as causative and passive have been explored, while diachronic reanalysis on verbs' syntactic structure is still remained to be studied. This thesis is a case study on syntactic changes which a Korean honorific verb *poypta* '(humbly) see' had undergone.

The verb *poypta* was derived from *pota* 'see' by applying causative suffix *-y-*. Its original syntactic structure had been reflexive causative. A causative sentence would typically have three arguments [Causer], [Causee], and [Patient], and each of them designates a participant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s. A reflexive causative sentence would also have three arguments, but [Causer] and [Patient] designate the same participant. As a result, *poypta* indicated an event 'A socially lower person makes a socially higher person to see the lower one herself/himself.' Actually, it was an event which a lower person sees a higher person. Presenting the actual event in an indirect way led to honorification.

Reflexive causative constructions such as French *se faire* always require a reflexive pronoun *se*. However, the reflexive pronoun in *poypta* construction was always omitted, because it was contextually given information. Omitting arguments related to given information has been a characteristic of Korean language through its history. By the repetitive omission of reflexive pronoun, the characteristic of *poypta* as three-place predicate has weakened. This led to two directions of reanalysis.

If one focuses the action part of *poypta* event, the subject is the one who is

## ‘뵙다’ 동사의 통사 통사론

seen, and the object is the one who sees. In this respect, the subject would be reanalyzed as [Patient], and the object as [Agent]. This is the reanalysis happened between 15<sup>th</sup> and 16<sup>th</sup> century. A passive structure has emerged, and gradually propagated into the speech community.

On the other hand, if one focuses the affectedness part, the subject is the one who does something, and the object is the one who is done something. In this respect, the subject would be reanalyzed as [Agent], and the object as [Patient]. This is the reanalysis happened between 18<sup>th</sup> and 19<sup>th</sup> century. Because the spread of passive structure was not fast enough to substitute reflexive causative structure, the latter had been used until 18<sup>th</sup> century. As a result of second reanalysis, a transitive structure has emerged, and diffused rapidly enough to replace passive structure. This is the process how we have got the transitive verb *poypta* in Modern Korean.

The syntactic changes in *poypta* case is interesting because it has not been motivated other than syntactic reanalysis. The grammatical relation or the meaning of its stem has never changed, and erosion of related case morphemes did not happen either. The changes from reflexive causative to passive or transitive was motivated by contextually driven argument omission, which made speakers difficult to analyze the verb's complex argument structures.

Keywords : syntactic change, reanalysis, reflexive causative, passive,  
argument structure, case frame

Student Number : 2010-22952